

중국을 주께로

96/7-8

격월간 중국을 주께로/ 발행처: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주소:서울서초구 방배본동 756-7(신우빌딩 301호)/
전화: 533-5497, 592-0132 발행인:이동화/ 발행일:1996. 6. 20/ 등록일:1994. 2. 14일자 (등록번호/ 바 - 2078)
통권40호



특집/ 21세기 중국선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중국 유학 이렇게 도전하라
중국 리전트립의 ABC
중국선교 훈련단체 소개

선교한국'96 후속 세미나
(China Cluster Conference)

'96 중국선교 세미나

최근의 중국 교회와 선교

최근 중국 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함께 중국 교회가 당면해 있는
필요와 문제의 해결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이에, 최근의 중국 교회의 진정한 필요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선교의 동반자로서 있는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정 중국선교의 밑알이기를 자처하는, 헌신자들의 사역의
구체적인 장을 열어야 하는지 제시하는 귀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중국과 중국선교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기간 및 장소

부산: 1996년 9월 2일(월)- 3일(화) / 수영로교회 교육관

대구: 1996년 9월 5일(목)- 7일(토) / 삼성교회

서울: 1996년 9월 12일(목)-14일(토) / 중화기독교한성교회

강 사

Victor Chen(陳敏淵)/ 미국 복음증주협회(OCL-福音證主協會) 사역자

Larry Chok(祝民忠)/ 홍콩 복음증주협회 홍보부장

왕쓰웨이/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선교사훈련원> 교무처장

한운숙/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 연구원

민요섭/ HOPE(전문인협력기구) 본부장

이요한/ 중국어문선교회 총무

- 주 최 중국어문선교회, 중국복음선교회, HOPE
- 주 관 부산선교협의회, 선교대구,
- 주 원 선교한국 '96 조직위원회, 수영로교회, 삼성교회, 중화기독교한성교회
- 참 가 대 상 '96 선교한국 참여자, 목회자, 신학생, 각 교회 해외선교 담당자,
선교단체 실무자, 중국선교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
- 참 가 비 일반 25,000원, 학생 20,000원
- 신 청 8월부터 등록. 중국어문선교회(T.02)533-5497)
중국복음선교회(T.02)778-3626)
HOPE(T.02)533-6057)

본 세미나는 숙박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세계 선교사 수급 전망과 한국 교회

이동화

한국 교회의 해외선교 역사는 1912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대한예수교장로회가 그 해 총회 조직을 기념하여 3명의 선교사를 중국 산둥(山東) 지역에 파송한 것이 그 효시였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해외선교가 본격화된 것은 역시 '7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우리의 해외선교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한 통계에 의하면 1994년 현재 해외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는 3,272명이고, 잘하면 2천년까지 1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물론 여기에는 전체 한국 선교사의 20~30%에 달하는 각국의 교포 교회 목회자들도 포함되어 있겠으나, 그렇더라도 우리 모두 자부할 만한 일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의 시야를 한 차원 높여 “세계 선교사 수급”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 교회가 이 정도에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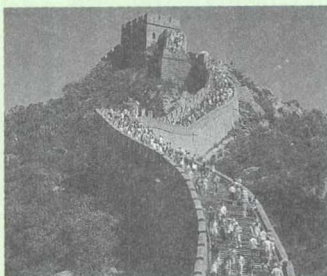
현재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교사 수는 15만 명 정도이며, 이 중 서구 선교사와 제2, 제3세계 선교사의 비율은 7대 3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국 선교사 수는 아직 세계 선교사 총수의 3.3%에 불과하고 제2, 제3세계 선교사의 10%도 채 되지 않는 미약한 수준이다. 게다가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동안 세계선교를 주도했던 미국 교회의 선교사 수급 능력이 갈수록 떨어져서, 2천년에는 서구대 비서구 선교사의 비율이 같아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뿐만 아니다. 학자에 따라, 2천년에 가서는 인구의 자연 증가와 10/40 창문 지역의 선교 수요 확대로 인해 필요한 선교사 숫자가 지금의 두 배인 30만이 될 것으로 예측하는 이도 있으니, 선교사 수급 문제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답은 자명하다. 제2, 제3세계 교회가 새로운 선교사 공급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한국 교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를 제외한 제2, 제3세계 선교사들은 대개 자국 내에 있는 타민족 선교를 위해 파송된 선교사들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젊은이들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는 얘기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렇다. 그리고 이 때를 위해서 한국 교회의 젊은이들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믿는다. 나는 지금도 작년 9월 말 '95 GCOWE 대회 마지막 날, 잠실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열렸던 SM 2000 대회의 감격을 잊을 수 없다. 그 때 하나님의 선교 부르심 앞에 일어난 6만 명에 달하는 주의 청년들이 속속 선교지로 나설 때에, 선교사 수급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특집 / 21세기 중국선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8 중국 유학 이렇게 도전하라 편집부
12 대만, 중국선교 훈련의 보루 한해빈
16 싱가포르에서 준비하는 중국선교 김한성
20 중국 비전트립의 ABC 장희락
24 중국선교 훈련단체 소개 이민선, 김은희
- ①열린 문틈으로 중국을 배운다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선교사훈련원
②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군사들의 요새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③우리도 전문인 선교사가 될 수 있다
-한국전문인선교훈련원



선교 나침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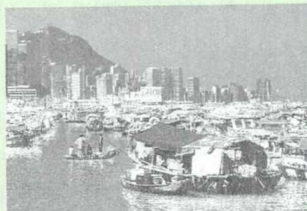
- 4 특별기고 중국의 정치 변화와 중국선교 유관지
34 세미나 지상중계 중국의 통일문제 백기인

헌신의 삶

- 32 중국 교회 체험기(3) 메이쥡즈
 따마잔교회 부흥의 비밀
48 중국 선교사의 간증(13) 허드슨 테일러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52 대륙 성도의 간증 링허
 하늘을 나는 종달새
84 현지에서 온 소식
 허름한 방 한 칸에서의 찬양 장잉메이

중국은 지금

- 42 변화하는 중국 경찰과 도둑이 한 집안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68 시사 연구 홍콩 반환 카운트다운 365일
 ①불투명한 미래, 흔들리는 홍콩인들
 ②경제특구 재고, 홍콩은 끝났다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③반환 1년을 앞둔 홍콩 교회의 전망 이병일



인물·역사

- 56 인물연구(4) 김교철
중화민국 선교사 홍승한 목사(III)
 66 중국선교의 발자취 방지일
시국 대처

중국을 알자

- 76 중국의 省(6)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풍부한 물산, 다양한 민족
쓰촨성 · 구이저우성 · 윈난성
 86 중국문화 문방사보(文房四寶)
 88 중국영화 감상
아비정전, 중경삼림 김현경



자료실

- 104 지역별 중국 대학 소개 편집부



※본지의 중국어 표기는 기본적으로 외래어 한글 맞춤법 표기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편의상 지명과 인명을 한문 독음으로 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 1 발행인 칼럼 이동화
세계 선교사 수급 전망과 한국 교회
 31 선교중국어 차이나
 今天是中元節(오늘은 중원절이다)
 46 중국 교회 소식
 83 묵상의 샘
시련으로 변화되는 인생
 92 중국어 찬송가
 生命之道歌(달고 오묘한 그 말씀)
 93 중국어 복음성가
 慈愛的天父(사랑의 주님이)
 94 선교 다이제스트
한족 가정교회와 중국선교
 95 신간도서
『중국 기독교사』 외 2권
 96 중국은 지금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동향
 100 시사만평
옛 것이 더 낫다.
 101 시사용어
‘三’과 ‘四’가 들어간 말
 102 선교단신

별책부록

‘중국을 주제로’ 기도칼럼더



표지설명

후난(湖南)성의 여름.
 아직 개방의 물결이 미치지 않은 중국 내륙의 농촌에서는 여전히 가족관계가 중시된다. 한 미아오(苗)족 가정의 바쁜 농번기에 잠시 일손을 쉬고 여유를 즐기고 있다. 험한 노동에 지친 이들이지만 건강하고 밝은 미소가 아름답다.

중국의 정치 변화와 중국선교

유관지

선교는 정치 정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마오쩌둥(毛澤東) 시절에도 복음은 은밀하게 퍼져 나가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선교가 본격화된 것은 1970년대 후반기 중국의 정치 지배자들이 개방화 정책을 택한 이후부터이다. 만일 덩샤오핑(鄧小平)의 개방 정책이 없었다면 지금 이 글 같은 것도 발표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견되는 중국의 정치 변화는 어떤 것이며 그같은 변화가 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검토해 보는 것은 뻔 같은 지혜로움(마 10:16)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우리가 어렵지 않게 예견할 수 있는 중국의 정치 변화는 다음의 네 가지이다.

- ① 덩샤오핑의 사망 ② 양안관계
- ③ 경제 성장 ④ 기타

과연 이런 변화들은 중국선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덩샤오핑의 사망

북한의 김일성이 세상을 떠나자 그에 대한 평가가 분분하였다. 물론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분단을 고착시키고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는 것이 대표적이었다. 교계에서도, 수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을 학살하고 개인 숭배를 극대화시켜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

광을 가로챈 인물이라고들 비난하였다. 그러나 이런 평가도 있었다.

“위장 내지 전시용이라는 소리를 듣기도 하지만 여하튼 교회의 문을 다시 연 사람이 아니냐?”

한편으론, “김일성은 그래도 기독교 체험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 아니냐? 그에 반해 김정일은 기독교 체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 교회에 대해 어떻게 나올지 염려된다”

이 두 번째 평가는 덩샤오핑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70년대 후반기 중국 교회의 문을 다시 연 당사자가 바로 그였기 때문이다. 한때 사망 임박설이 나돌기도 했던 덩샤오핑이 정말로 세상을 떠난다면 중국 교회는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영향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더 많을 것이다.

통치자가 세상을 떠나면 그 국가는 긴장에 휩싸인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이것이 더 심하다. 경직된 국가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주목과 제약을 받는 것은 평소 ‘불온 시’되던 계층이다.

덩샤오핑 사후에는 아무래도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영향이 커질 것인데, 장쩌민은 최근 포스트 덩 시대를 대비해 좌경화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회주의 이데올로기 확립, 중국 고유의 사회주의 건설 등은 장쩌민이 1996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 가운데 주요 항목들이다.

중국이 3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계엄법 역시 덩의 사망을 대비한 것으로 여겨진다.

양안 관계

지난 3월, 전세계를 긴장시켰던 대만 해협의 긴장은 큰 불상사없이 가라앉고, 양안은 일단 평온을 되찾은 듯하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은 중국의 일부이며 중국은 엄연히 하나이다'라는 기본 노선을 변경하지 않는 한, 양안 문제는 계속해서 불씨로 남아 있을 것이다.

지난번 대만 해협의 파고가 높아졌을 때 미국은 대만을 적극 지원하면서 항공모함을 파견하였다. 중국은 이에 대해 국내 문제에 대한 간섭이라면서 몹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양안 관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며, 이것은 바로 중국선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통해서 이뤄지는 중국선교 활동은 앞으로 더 심한 규제와 감시 대상이 될 것이 분명하다.

중국의 삼자정책은 원래 1950년 6·25사변 당시 항미원조(抗美援朝) 운동의 하나로 시작된 것인데, 이번에도 같은 양상이 전개될지 모른다. 리덩후이 총통이 크리스천이며 미국에 많은 지인(知人)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경제 성장

얼마 전, 한국이 2020년에 세계 7대 경제대국의 하나가 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전문가들은 세계의 중심이 동아시아로 옮겨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한국이 세계 7대 경제강국이 될 때 쯤이면 중국은 세계 1위 내지 2위의 경제대국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이 같은 견해는 여러 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 우리 나라 사람들이 중국,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졸부(猝富) 행세를 하며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 많은데, 그때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도 이제는 겸손하게 구령(救靈) 중심의 전도로 한시

바빠 전환되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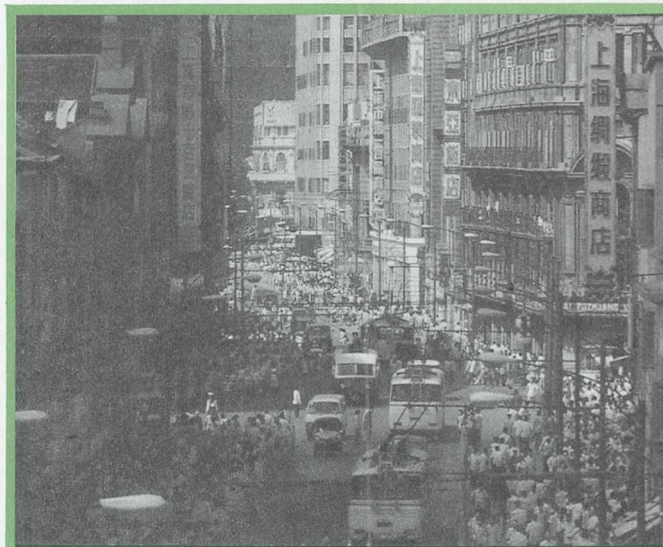
제일 크게 염려되는 것이 있다. 중국은 통일전선(統一戰線)의 하나로 종교에 대해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 경제적 빈곤 극복을 주요 모순으로 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종교 등을 이차적 모순으로 하여 일단 연합하고 있다는 것이다. 타도 대상이던 주요 모순이 격파되면, 연합하였던 이차적 모순을 주요 모순으로 삼아 공격하는 것이 통일전선의 기본 논리이다. 경제적 빈곤이라는 주요 모순이 격파되었을 때 종교는 과연 어떤 대접을 받을 것인가?

기타

그 밖에 중국선교에 있어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홍콩 인수

중국은 내년 6월 30일 홍콩을 인수한 뒤에도 홍콩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거듭 거듭 이야기하고 있다. 하지만 홍콩을 발판으로 하고 있는 중국선교 활동들은 아무래도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이미 여러 해 전부터 홍콩의 선교 기관들은 위축 증세를 보이고 있다.



상하이시 전경. 정차경제·건설의 중심지로 국제사회에 부상하고 있다.



중국의 다양한 소수민족

민족 분쟁

중국은 전통적으로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내세우며 ‘중국은 수많은 민족이 모인 하나의 가정과 같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가정이 요즘 가끔 삐거덕거리는 소리를 낸다. 신장(新疆)의 위구르족, 티벳족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민족주의는 요즘 세계적인 경향이다. 러시아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골치를 앓고 있는가? 올림픽이 회를 거듭할수록 그 참가국이 늘어나는 것도 각 민족이 독립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아무리 소수민족 우대정책을 취한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중국의 소수민족들은 티벳족은 라마교, 위구르족은 회교, 이런 식으로 각기 고유한 종교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연히 중국 당국은 민족 문제와 결부하여 종교 문제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

중국이 한국 교회의 선교 활동에 대해 경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한국 교회 인사들이 중국에 와서 민족 감정에 호소하여 통일에 앞장 서도록 자극한다는 점이다.

도시화

아직도 중국을 전통적인 농업국가로 간주하고 선교 정책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 빠른 속도로 도시화되어 가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주거·가정 문제 등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정치가들은 한국이 농촌 국가에서 출발하여 빠른 속도로 근대화를 이룩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경제 정책을 모델로 삼으려고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 한국 교회는 도시화를 가장 리얼하게 체험한 교회이므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국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선교 정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일들은 너무 새삼스러운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새삼스럽기 때문에 무심히 넘겨 버리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궂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마 16:2-3)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정치적 변화를 선교정책에 참고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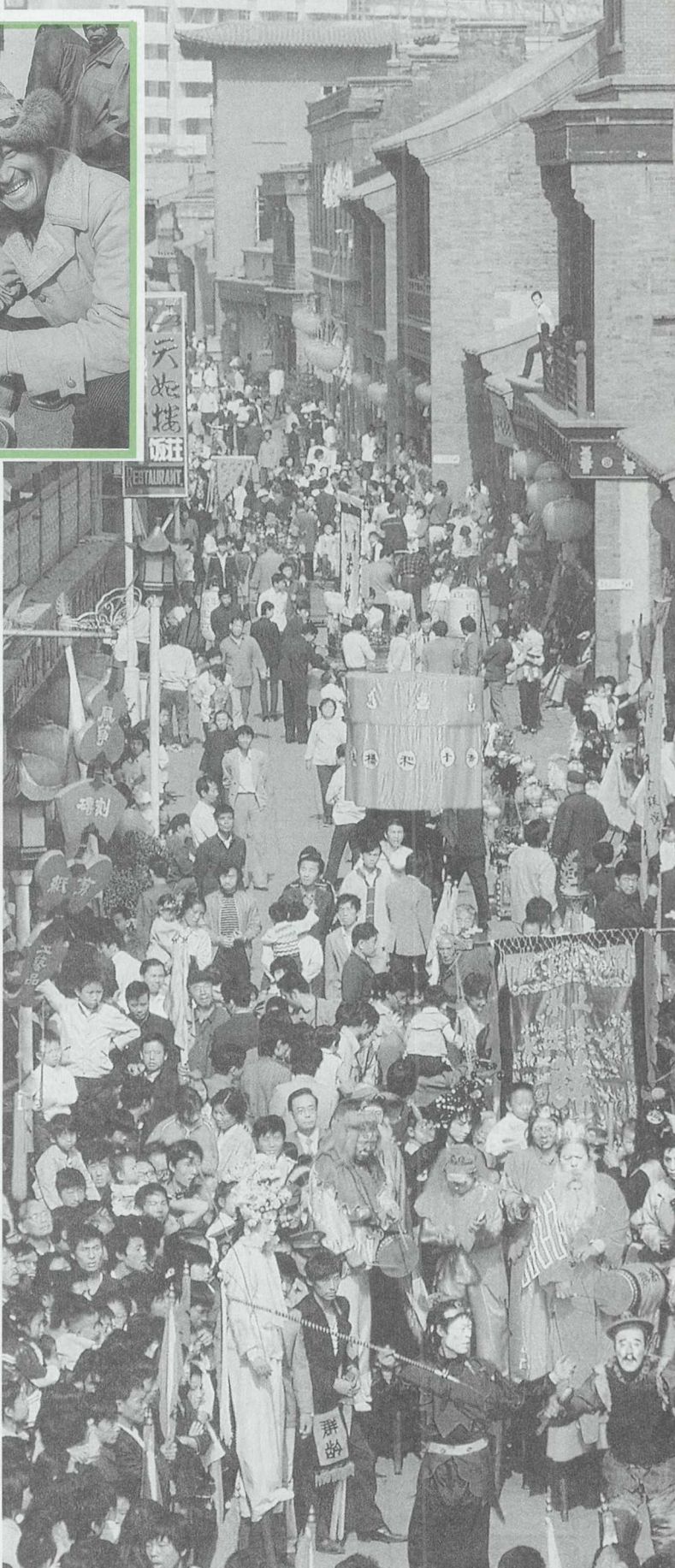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앞으로 예견되는 중국의 정치 변화 가운데 선교에 부담을 주는 것들이 많다. 그러나 선교는 성령이 하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는 가로막을 세력이 없다는 것이 선교의 기본 원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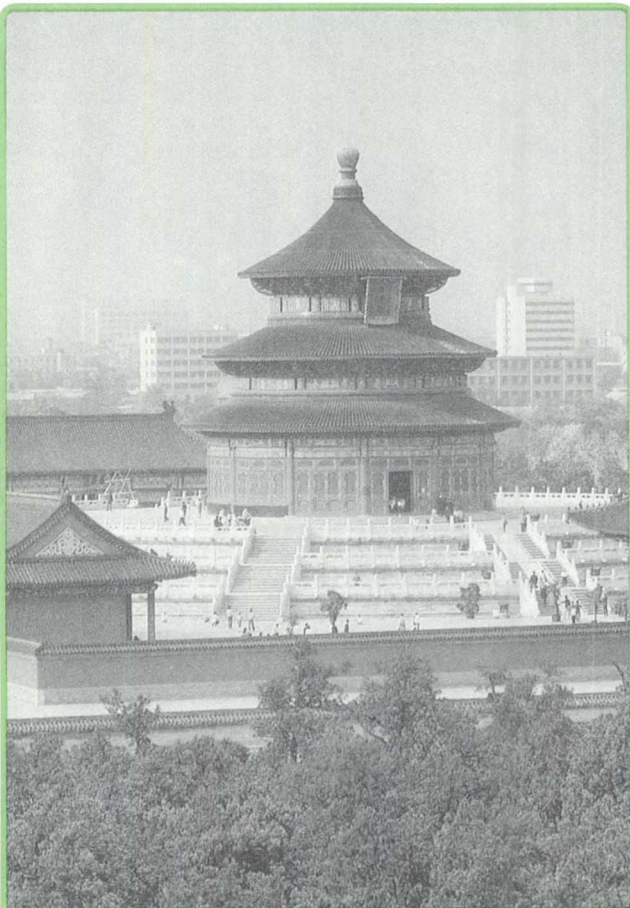
특 집



21세기 중국선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선교는 단순히 소명의식이나 열정만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확실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선교의 첫 걸음이기 는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준비나 훈련이 없다면
폐이지 않는 구슬과 같다 하겠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주님 자신이 제자를 불러
3년 동안이나 직접 훈련시키신 일일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과 같이 아직도 복음에 닫혀진 나라를
선교함에 있어, 깊은 영적훈련과 함께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사전 준비가 없다면
그 열매를 기대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중국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분연히 일어나,
그 깃발을 높이 들게 될 것입니다.
이 귀중한 현신이 보다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지게 하기 위해, 본지는 중국선교에
앞선 구체적인 준비에 초점을 맞추어
특집을 구성하였습니다.
모쪼록 이 특집이 21세기 중국선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알찬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간절합니다.





특집/ 21세기 중국선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중국 유학 이렇게 도전하라

중국 유학 준비 및 신청절차

편집부

중국이 세계 속에서 그 위치가 날로 부상됨에 따라 중국 유학의 추세가 점차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요즈음엔 북경 이외의 주요 경제 특구 및 개발 중인 도시로의 언어연수 등도 늘고 있다. 본 지는 중국선교 준비의 일환으로 중국 유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기본적인 정보를, 그리고 자료실에는 구체적인 대학 안내를 실었다. 독자들에게 참고되기를 바란다. [편집부]

중국 유학의 특징

중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면 누구나 유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병역미필 남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은 만 22세, 대학은 만 24세, 대학원은 만 26세까지 수학할 수 있다는 입학허가서를 소지해야만 유학수속을 밟을 수 있다.

중국은 물가가 싸고 학비, 기숙사비, 생활비 등 유학 경비가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저렴하며,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깝다는 장점이 있다. 학교 시설은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어도 숙소가 전부 기숙사이므로 다른 나라처럼 거처를 찾느라 고생할 필요가 없다. 또한 입학기준이 되는 TOEFL이나 입학시험 없이 간단하게 갈 수 있어, 중국어 초보자라도 쉽게 어학연수를 할 수 있다. 특히 어학연수생에게는 유학생 자격을 주지 않는 다른 나라와 달리, 중국은 1년 이상의 유학인 경우에도 자격이 되므로 유학비자 및 거류증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제도가 경직되어 있고 체계적이지 않아 수속 등이 순조롭지 못하고, 교통 및 통신수단이 불편하다는 단점도 있다. 경제적, 위생적으로 우리 나라보다 뒤떨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문화적 환경에 적응하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그러나 베이징이나 상하이 등 발달한 대도시의 경우라면 이런 불편함은 거의 느끼지 못할 것이다.

외국 유학생의 중국어 예비교육

전공을 불문하고 중국 대학의 주된 수강 언어

는 북경어(푸통화(普通話), 만다린)이다. 각 대학의 도서관, 자료실의 장서, 잡지, 자료도 중문이 대부분이다. 외국 유학생이 중국 대학에 와서 학업을 순조롭게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중국어 수준을 갖추어야 한다.

중국에 오기 전에 중국어를 배우지 않았거나 중국어 수준이 전공 학습 요구에 미치지 못한 유학생은, 중국에 와서 기초 중국어를 1~2년 배워야 한다. 이것이 한어진수생(漢語進修生) 코스이다. 중문학, 역사, 철학 및 중의(中醫) 등의 학과를 전공하려는 본과생도 2년 간 한어진수생 코스를 마친 후, 한어수평고시(HSK:본과 및 석박사 과정에 진학하려는 외국인을 위한 중국어 테스트)를 거쳐 중국어 수준이 규정된 기준에 도달해야만 전공 학과에 들어갈 수 있다. 중국에 오기 전에 이미 우수한 중국어 기초를 갖춘 인문계 보통진수생은 바로 대학에 들어가 전공을 공부할 수 있다.

중국 유학의 유형

한어진수생(漢語進修生)

기초 중국어를 배우는 어학연수생(자격:18세 이상 45세 이하)을 말한다. 많은 나라들이 어학연수생은 유학생으로 취급하지 않는데, 중국의 경우 비자 등은 유학생의 대우와 동일하다.

대학 도착 후 면접 또는 시험을 통해 레벨별로 나누어 10~15명 정도를 한 클래스로 편성하며 보통 주 20시간 수업이 진행된다. 월~금요일까지 주 5일제이며, 수업은 오전에 4시간(오전 8시~12시, 1시간 수업은 50분) 진행된다. 주로 회화(口語), 독해력 배양을 중심으로 학습하고 상급 클래스에서는 신문독해, 고전강독 등도 한다.

구비서류: 여권, 성적증명서(영문 2통), 재학 혹은 졸업증명서(영문 2통), 건강진단서 2통(중국 위생부 양식), 추천서(보통 부교수 이상, 또는 저명인사 추천서 2통), 사진 5장, 감독인 보증서, 재정보증서.

본과생(本科生)

본과생이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중국 대학의 학부에서 문과계는 4년, 의과계는 5년에서 6년 정도 배우는 대학 학부생을 말한다. 본과생에 입학하려면 현재 중국이나 한국에서 치루게 되는 한어수평고시 5등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대부분 중국 학생들과 수업이 같이 진행된다. 진급제도가 엄격한 중국의 대학에서 유급을 하거나 1학년 때 학점이 미달될 경우 퇴학이므로, 언어연수를 통해 중국 생활에 충분히 익숙해지고 중국어 실력도 연마한 뒤 본과에 입학하는 것이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유학생이 본과생으로 입학하여 졸업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일이다.

구비서류: 한어진수생의 구비서류에 한어수평고시 자격증이 첨부된다.

보통진수생(普通進修生)

한국의 학부 청강생에 해당하는 연수생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청강은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학부에서 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대학이 그렇게 엄격하지는 않다. 보통진수생으로 유학하는 경우, 신청 자격은 대학 2학년 이상 수료자로 중국 대학에서 배울 전공이 본국에서의 전공과 같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실제로는 한어진수생으로 공부하는 사람에게도 거의 청강을 허가하고 있으며 대우도 한어진수생과 비슷하다.

구비서류: 한어진수생과 동일하다.

석사연구생(碩士研究生)

국내 대학의 석사과정에 해당되지만 학습기간은 2년 반에서 3년 간이다. 한국에서 학부를 졸업한 사람도 중국어 필기 실력이 있으면 중국에서 시험을 볼 수 있다. 항시적으로 응모기간은 11월부터 1월 사이이며, 3, 4과목의 전공시험인 1차 필기시험은 2월에 실시하고, 1차를 통과해야만 2차 구두시험을 치룰 수 있다. 수업과목은 전공에 따라서는 전부 20과목 정도이며 그것을 2년간 이수하고, 마지막 해

에 논문을 쓴다. 수업은 중국 학생들과 함께 한다.

구비서류: 한어진수생 구비서류, 한어수평고시 7, 8등급 자격증, 정, 부교수 추천서 2통, 연구계획서(중문 또는 영문)

박사연구생(博士研究生)

국내 대학의 박사과정에 해당하며 학습기간은 2년이다. 석사과정을 수료한 사람이라도 상당한 중국어 실력이 필요하다. 대학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응모는 2, 3월경이고 1차 필기 시험은 4, 5월경에 실시하는데, 전공 과목 두 과목 정도와 외국어를 본다. 유학생의 경우 외국어가 면제되는 경우도 있다. 1차에 합격하면 2차 구두시험이 있다. 조교수 이상 2인의 추천장도 필요하다. 석사, 박사과정 시험을 신청하기에 앞서 유학생 사무실과 학부 사무실의 유학생 담당자, 지도 교수 등과 충분히 상담을 한 뒤에 결정한다.

중국유학의 학제

어학연수생의 경우는 1년에 두 번(3월과 9월) 입학신청을 받는다. 본과생 이상의 경우 신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9월 입학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1학기는 9월부터 다음해 1월 말, 2학기는 2월 말~7월이다. 따라서 겨울방학은 아주 짧거나 없고 봄방학, 여름방학이 있다. 장기 방학 동안 대학에서 실크로드 등으로 여행도 실시하므로 자유 의사대로 참가할 수 있다.

유학 준비

기초정보 수집(여행안내서를 참고로)→대상지역 선정 및 학교결정→여권수속→입학신청서류 발송(최소한 개강 6개월 전부터)→입학허가서 및 JW 202표 취득→비자수속→비행기 예약→환전→출국

기초정보 수집

중국문화, 역사, 정치 등 개관적인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시중에 나온 중국 개론서들과 여행 안내서를 탐독하라. 그리고 중국관련 선교단체들이 발간하는 정간물, 현지 선교사들의 기도편지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미 중국 유학을 갔다온 사람들의 경험담을 듣는 것은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경험담에만 의존하여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중국에 가는 것은 중국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본적인 지식의 토대 위에 스스로 부딪히는 사이에 중국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대상지역 및 대학 선정

본호 자료실(111쪽) '중국 지역별 대학 소개'를 참조하라.

일반적으로 언어연수를 갈 경우, 공부하고 싶은 지역을 먼저 선정한다. 대부분 사람들이 수도인 베이징으로 가면 표준어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베이징이나 티엔진으로 가지만, 현재 이곳은 어느 학교를 가나 한국 학생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으므로 외국어를 배우기에는 적당치 않다. 그리고 물가도 한국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학 경비가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오히려 한국 학생이 별로 없는 지역의 중점대학을 선정하면 언어를 배우는 데도 좋을 뿐 아니라, 지역 특유의 문화와 다양한 사람들을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상하이나 광저우 등 일상적으로 방언을 사용하는 지역의 대학에서는, 수업 시간에는 표준어를 배운다 해도, 직접 생활하는 가운데 마주치는 사람들이 그 지역 방언을 쓰기 때문에 생활언어로서의 중국어를 배우기에는 적합치 않다. 만약 특정한 지역을 염두에 두고 그 지역 방언을 배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표준어를 쓰는 지역의 대학을 선정해야 한다.

중국유학 신청 및 수속방법

1년 이상의 장기 자비유학은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중국의 대학에 편지를 보내어 소정의

서류를 받아 기입하여 보내는 작업을 하면 된다. 바쁜 사람이라면 미리 몇 곳의 대학을 정리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 유학원 등 중국 유학 알선단체에 수수료를 내고 준비된 대학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파견단체에 의뢰하려고 할 때는 우선 이 파견단체가 아주 정직하게 숨기지 않고 중국 유학의 문제점도 공평하게 말해주는가, 패키지 투어의 여행처럼 어떻게든 보내려 하는 자세는 없는가 등을 자세히 따져보아, 보다 확실한 단체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 단체의 팸플렛을 받아서 충분히 비교 검토할 필요도 있다.

유학비용

본 호 자료실을 참조하라.

학비

1989년의 유학제도의 개혁으로 학비액수의 결정권이 대학 측에 일임되어 어학연수생 등의 경우 \$1,200~\$2,000 사이라는 대략적인 폭만이 정해져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정하는 제도가 되었다. 가장 비싼 대학이 연 \$3,000이고 가장 싼 대학이 \$1,200, 평균 \$1,600~\$2,500 정도이다.

예1) 북경어언학원(北京語言學院) 한어진수생: 학비 \$2,500/년

예2) 안휘대학(安徽大學) 한어진수생: 학비 \$1,200/년

기숙사비와 식비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유학생 전용 기숙사를 이용해야 한다. 입주시 보증금의 의미인 야진(押金)을 지불하며, 기숙사비는 날짜로 계산한다. 별도로 기숙사의 관리비 등 잘 모르는 요금을 징수하는 대학도 생기고 있다.

예) 북경어언학원: 기숙사비 \$3~\$12/1일 (2인 1실, 일반적으로 \$5을 선택함)
\$ 1,400/ 350일

전원 기숙사제를 실시하고 있는 중국 대학은 교내에 학생 식당이 따로 있어서 학생들은 식당에서 각자 식사를 해결한다. 유학생들은

유학생 전용 식당을 이용하는데, 하루 \$4~\$6 정도가 든다. 미리 식권을 일괄적으로 구입해 두고 식사시에 지불하는 제도가 많다. 그래서 '식당관리비'라는 요금을 일정 금액으로 징수하고 있는 대학도 일부 있다.

예) 북경어언학원 구내식당: \$70/1개월

이전에는 수업료, 방세, 식권대의 세 가지 주된 경비에 포함되었던 것이, 최근에는 어떤 명목이 붙어서 그 이외에 상당한 요금을 징수하는 대학이 속출하고 있으므로, 직접 대학에 개인신청을 할 때에는 미리 이런 제 경비에 대해 충분히 문의하여 나중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둔다.

한국에서 송금 등을 하는 것이 비교적 불편하므로 한 학기 정도 쓸 학비 및 생활비는 미리 갖고 가야 할 것이다. 보통 한화 500~600만 원 정도면 1년 동안 생활하기에 불편함은 없을 것이다.

중국 유학 전 준비사항

중국에 오기 전에 본국에서 의료보험과 사고보험을 들어 놓아야 한다.

각자의 외국어 참고서를 준비한다. 영한사전, 중한사전, 한중사전 등은 기본이다.

학교 기숙사에서 침구 등 기본 생활용품을 제공하므로 가져올 필요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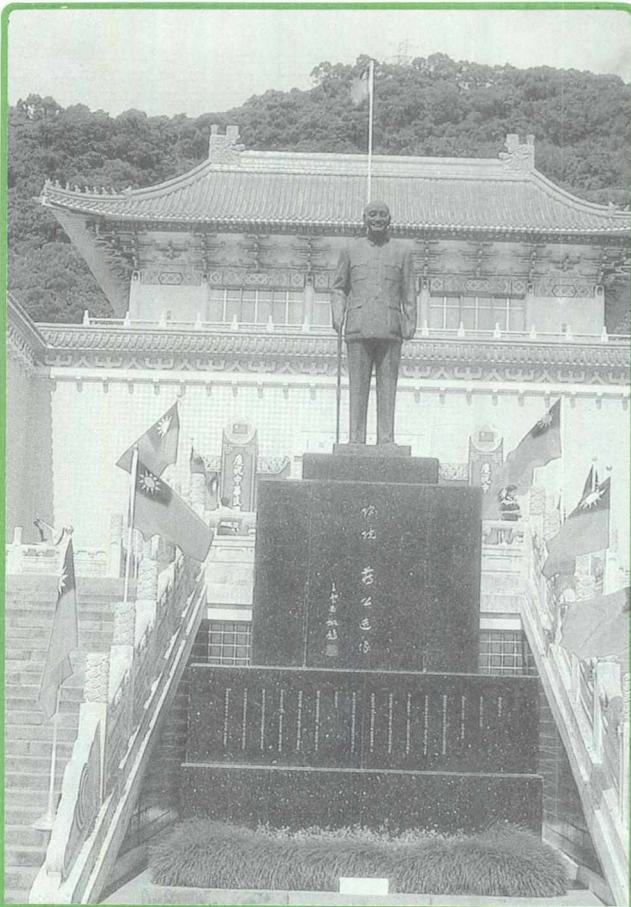
가족을 데리고 오려면 사전에 입학한 학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단체 기숙사에서는 일반적으로 가족에게 방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 해결해야 한다.

자비 유학생은 비용을 충분히 가져와야 한다. 중국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 학생은 중국 유학 기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다.

X비자(학생비자)로 유학한 학생들의 경우, 입국한 지 한 달 안에 JW 202표, 여권, 입학통지서, 신체검사표와 인민폐 100원(元)을 가지고 공안국에 가서 거류증을 신청해야 한다.

중국유학 안내

PC통신 천리안 중국어동호회(GO CHINA)
중국어문선교회(전화:02)594-8038)
큰샘해외유학원(전화:02)732-4636~7)



특집/ 21세기 중국선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대만, 중국선교 훈련의 보루

대만에서의 신학 훈련

한해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
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
이라(고전 1:17)”

현재

중국에서 주님은 어떤 일꾼을 부르시고 계시는가? ‘복음을 전할 일꾼’을 원하신다고 믿는다. 그런데 중국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통과해야만 하는 ‘만리장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정치적 체제와 언어, 문화적인 만리장성이 막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만리장성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현재와 미래의 중국선교에 필요한 사람은 첫째, 신학훈련이 되고 둘째, 언어와 문화적응훈련이 된 사람이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중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사역자의 부족이고, 여기에서 비롯된 성도들의 영적 갈급함은 심각하다. 말씀의 무지로 이단의 횡행이 가정교회 간에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중국 교회는 체계적인 신학교육을 받은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어에 준비되고 중국문화에 적응된 사람을 필요로 한다. 언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국어를 배우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중국어권 지역에서 습득하는 것이 효과면이나 능률면에서 가장 좋을 것이다. 선교지 언어를 배우는 순간부터 그 나라 선교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한 기능습득 뿐 아니라, 중국인에 대한 광범위한 이해를 뜻한다. 이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한 사람이라면 중국에 들어가 중국인들에게 배우며 많은 사역을 천천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욱 성숙한 중국 사역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직은 미숙하지만 영적 만리장성을 넘으려는 초년생 중국선교사로서 내 자신이 넘고 있는 방법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

것은 대륙이 아닌 타중국어권에서 신학훈련과 언어, 문화적 훈련을 받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필자가 공부하며 살고 있는 대만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이다.

대만 유학의 장점과 단점

대만이 신학 훈련하기에 좋은 점이라면, 신학과 언어를 동시에 배우고 중국문화와 중국인을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이외에도 많은 중국인 동역자들을 만나 교제할 수 있고, 중국인의 사역 속에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래에 함께 일할 중국인 동역자들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학교에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배우고 대만 교회들과 연관을 맺고 활동할 수 있다. 교회 안에서 직접 사역훈련을 받을 수도 있다. 대만에서 신학원을 졸업한 한국인 선교사들이 몇 분 있는데, 현재 대만에서 목회하면서 선교 방면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 바로 이런 장점들 때문에 적은 수지만 몇 명의 사역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다.

단점이라면 대만과 대륙에서 사용하는 한자가 달라서 이중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대만에서는 번체자(繁體字)를 익혀야 하고, 대륙에 가면 다시 간체자(簡體字)를 익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번체자로 되어 있는 신학교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될 수도 있다.

또다른 단점은 생활비가 비교적 많이 든다는 것이다. 한국보다 조금 많이 든다고 생각하면 된다. 생활비도 수월치 않다. 하지만 신학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적은 경비로 지낼 수 있는 길들이 있다.

신학원 입학에 대해서

입학하기 전에 먼저 신학적인 이해가 되어 있다면 수업을 따라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입학 조건으로 신학대학교 졸업자만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신학 수업을 받아본 경험이 있다면 별 문제될 것은 없다. 신학 경험이 없는 경우라면 신학적인 용어나 흐름에 관한 책을 먼저 읽고 올 것을 권한다.

언어면에서는 중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 듣고 말하기 중심으로 준비하고 작문 연습을 많이 해두면 큰 도움이 된다. 공통적으로 모든 학교들이 입학시험에서 중국어 시험을 치른다. 그래서 대부분 1, 2년 중국어 연수를 한 후에 입학한다. 한국에서 중문과를 졸업한 경우라면 곧바로 입학할 것을 권하고 싶다.

그 다음으로 비중을 두는 것이 ‘영어’이다. 그렇다고 아주 높은 수준의 영어 실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영문서를 보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면 된다. 입학시험에서는 영문을 중문으로 번역하는 시험을 치른다.

다음으로 성경이다. 성경은 한국에서 신학원에 입학하는 수준으로 준비하면 문제없다. 한국 학생들이 성경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내용보다는 중국어 성경의 지명이나 사람 이름을 모르는 것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언어 훈련도 동시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중국어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다.

입학하기 전에 중국어 성경을 3번 정도 완독하고 들어오면 입학시험 뿐 아니라 수업을 따라가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 성경은 큰 서점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그 중에서 화합본(和合本)을 보편적으로 사용한다. 성경 낭독테이프를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된다(성경 낭독테이프는 중국어문선교회에 연락하면 구할 수 있다).

입학시험

입학시험은 보통 필기와 면접시험으로 나누어서 치른다. 필기는 성경, 중국어, 영어이고 면접은 5분 설교와 면담을 한다. 입학하는 데 공통적으로 중요시 하는 것은 사역 경험이다. 신학교나 4년제 신학교를 나왔을 경우 졸업

이후 전도사 사역 2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한다. 일반 대학 졸업자의 경우도 입학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대만의 대표적 신학원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다오성신학원(道生神學院, Tao Sheng Theological Seminary)

다오성신학원은 중국복음화, 중국 교회의 하나님나라화, 중국문화의 기독교화를 목표로 하는 신학원이다. 학부는 없고 신학원 중심으로 수업하며 초교파적으로 학생을 받는다. 특히 중국 복음사역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다. 대륙선교를 목표로 훈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권하고 싶은 학교이다.

개설되어 있는 과는 도학석사과(道學碩士科 M. Div.), 선도석사과(宣道碩士科), 선도증서과(宣道證書科) 등이다. 도학석사과는 신학석사 과정이고, 선도석사과는 선교학석사 과정이며, 선도증서과는 선교학 증서과라고 생각하면 된다. 도학석사과와 선도석사과는 4년 과정이고 선도증서과는 1년 과정이다. 학제는 1년 3학기로 가을 학기에 시작하며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타이베이(臺北)에서 유명한 양명산(陽明山)에 위치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학교로 연락하면 안내 준다(전화: 886-2-892-2834).

중화복음신학원(中華福音神學院, China Evangelical Seminary)

전세계에 있는 중국인들 사이에서 높게 평가되고 있는 신학교이다. 초대 원장은 허드슨 테일러의 증손자이자 OMF 총재를 지낸 제임스 테일러가 역임하였다. 이 학교는 대만과 전세계의 중국인 교회 지도자들을 배출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초교파적으로 학생들을 선발한다.

개설되어 있는 과는 도학석사과(M. Div.), 성경석사과(聖經碩士科 M.A.R), 기독교연구증서과(基督教研究證書科 Diploma)가 있다.

도학석사과는 3년, 성경석사과는 2년, 기독교연구증서과는 1년 과정이다. 학제는 1년 3학기 가을 학기부터 시작한다. 중국어로 신학원을 수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신학석사과(神學碩士科 TH. M)와 교목학박사과(教牧學博士科 D. Min) 과정도 있다. 기숙사 생활을 원칙으로 하며, 타이베이 위치해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로 연락하라.

(전화: 886-2-365-9151)

이외에도 성결교신학원, 침례교신학원, 장로교신학원 등 많은 신학원들이 있다.

시험준비

외국(한국)에서 시험을 보려면 4월 이전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 학교들마다 일정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4월까지 등록을 받고, 5월에 시험을 치르고, 6월에 합격자를 발표한다. 합격자 발표가 나면 비자준비를 해서 9월 초에는 학교에 도착해야 한다. 수업은 9월 중순경에 시작한다. 대만에서도 중국인과 함께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자세한 일정과 방법은 학교로 연락하거나 전문 선교단체에 문의하면 기본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입학 조건이나 언어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문을 두드려 보라고 권하고 싶다.

비자

비자에 관해서는 좀 복잡하다는 인상을 받는다. '95년부터 신학원에 입학하는 경우에 4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신학원 학생으로 거류(居留)비자(Resident Visa)를 받을 경우, 졸업 후 3년 이내에 거류비자로는 다시 대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대만에서 사역할 생각이라면 선교사 비자를 받고 들어오거나 관광비자(Visit Visa)로 들어와서 6개월까지 연가할 수 있다. 6개월 이후에는 출국해서 관광비자를 받고 다시 입국해야 한다.

목사 안수

이들 신학원을 졸업한 이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목사 안수에 관한 것이다. 우선 대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졸업한 후에 3년 이상 사역을 하면 안수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 학교들의 안수 기준은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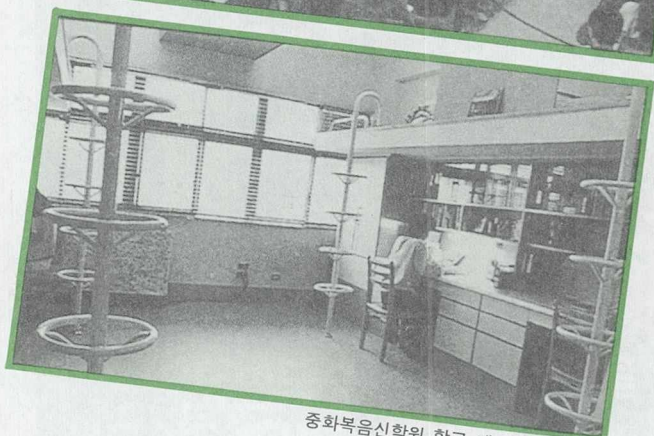
다오성신학원은 교단 배경을 두고 있지 않은 초교파적인 학교이면서, 졸업 후에 3년의 사역을 하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중화복음신학원은 자체적으로 목사 안수를 주지 않는다. 교회들과 연결하여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다. 모든 교파에서 수용하는 초교파적이고 복음적인 학교이기 때문에 안수를 받고자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다. 학교 기준보다는 교파에 따라 안수받는 자격이 달라질 수 있다.

중타이(中台)신학원과 성광(聖光)신학원은 3년 이상 사역을 한 사람에게 안수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제한은 없고 중국어와 교단에서 원하는 기준에만 부합된다면 안수받는 데 문제될 것이 없다.

위에서 말한 것은 대만에서 안수를 받을 경우이고, 만약 졸업한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 안수를 받을 계획이라면 다르다. 각 교단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한국 교단들은 국내에서 1년 내지 2년의 신학원 수업을 원한다. 그런 후에 안수받을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대개 대만에서 신학원을 졸업한 경우 진로는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대만에 남아서 교회를 개척하거나 기존 교회의 청빙을 받고 가는 것이다. 청빙받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중국어 구사가 탁월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졸업 이전에 이미 사역할 교회가 결정된다. 한국 교회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인 사역자라는 것이 장점이 되기도 한다.

다음은 한국이나 대륙, 그리고 제 3국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것이다. 졸업생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사역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4년 내지 5년을 투자하여,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전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춘 사역자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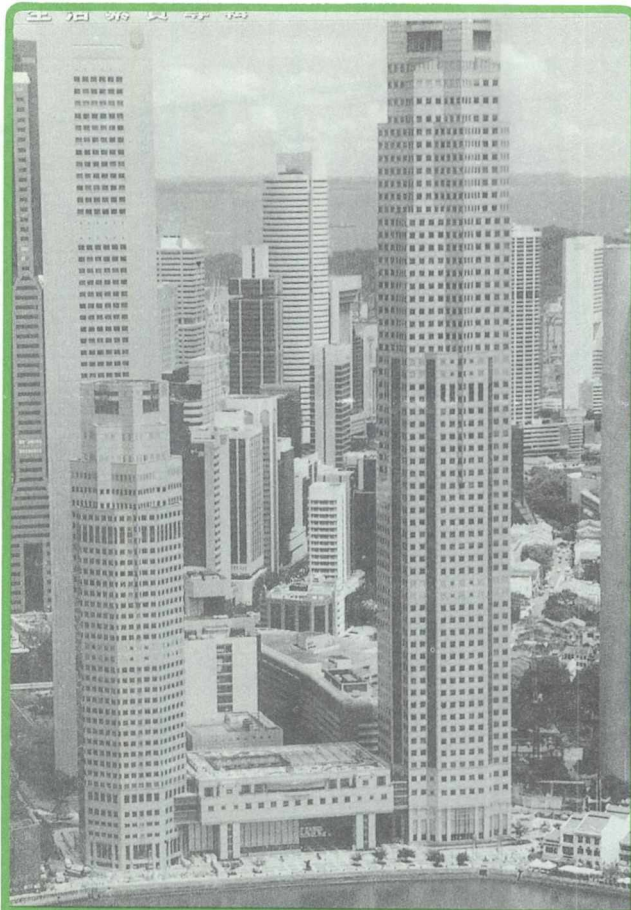


중화복음신학원 학교 내 각종 시설들.

준비될 것을 권하고 싶다.

대만에서 이런 과정으로 훈련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 그러나 앞으로 평생 중국인을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문화 적응과 신학훈련, 그리고 언어 겸 사역훈련을 대만에서 할 것을 고려해 볼 것을 권한다. 대만은 중국의 미래 모습이다. 하지만 대만인도 중국인이라는 데서, 한님께서 중국복음화를 위해 직접, 간접으로 대만을 사용하시리라 믿는다. 홍콩 반환 이후 중국선교에 있어 대만의 비중은 더 커질 것이다. 변화하는 중국선교에 부응하고 만리장성을 함께 넘기를 원하는 헌신된 사람이 한 번 도전해 보기를 독려하며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한해빈/ 중국어문선교회 파송 대만 선교사



특집/ 21세기 중국선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싱가폴에서 준비하는 중국선교

싱가폴신학원
(Singapore Bible College)의
신학훈련을 중심으로

김한성

들어가면서

한국에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만나보았던 선교에 관심을 가진 목회자, 선교지망생, 또는 평신도들이 선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한국식 선교'라고 생각한다. 한국인들은 대체적으로 하루 아침에 결과와 열매를 보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선교의 여러 영역 즉 훈련, 사역, 지원 등에서 무턱대고 해 보려는 예가 너무 많고,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이 현장 사역자로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되고 있다.

선교는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이 선교에 뛰어들어 지금까지 필자의 일관된 생각이다. 또 준비 자체가 선교라고 생각한다.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 중에 일 중심, 결과 중심의 사람들을 종종 보게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관계와 과정 자체를 더 중시하신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리고 선교를 잘 준비하면 할수록 더욱 효과적인 선교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고 수 십년 간 살아온 선교지의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단순히 복음이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한다. 하지만 우선 그들과 선교사 간에는 어떤 접촉점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적어도 그들이 선교사에게 관심과 흥미를 갖고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동기가 부여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 첫걸음은 언어(의사소통)이다. 말이 통하지 않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이 불문가지의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들과 의사소통이 된 후에는 현지인들과 어느 정도 초보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 그러나 초보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해서 중국인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필자의 견해로는 아니라고 본다. 제대로 된 의사소통은 중국인과 중국인 간에 가장 잘 될 것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대화를 불편없게 할지라도,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잃게하는

요소가 된다. 무언가 그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갖고 있어야 한다. 그것의 한 예가 영어이다. 영어교사로 전문인 사역을 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그런 예이다.

선교사는 중국인들이 필요로 하거나 관심을 가질만한 어떤 것을 갖추어야 한다. 신학도 그러하다. 중국에서 의사소통이 되고 나서 중국인이 갖지 못한 신학을 가졌을 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있게 된다. 그것이 신학과 신앙인 것이다. 그래서 신학교육은 필요하다. 이제 필자는 싱가포르신학원에서 수학하였던 경험을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싱가폴신학원의 특징

지금은 싱가포르에서 가장 큰 신학원이지만 초창기에는 극히 미약하였다. 40년 전, 싱가포르에 있는 또 다른 유수한 신학교인 트리니티신학원이 자유주의화되자, 보수적인 선교사와 크리스천들이 분리해서 생겨난 학교가 바로 싱가포르신학원이다. 이것은 마치 미국의 프린스턴신학교가 자유주의화되자 웨스트민스터신학원이 분리되어 설립된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비교적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학교이다. 너무나 보수적이어서 필자가 학교에 다니던 3년 동안은 싱가포르 TV 방송을 볼 수 없었고, 매일 신문만 볼 수 있었다.

이토록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신학 과정 중에는 현대의 자유주의 신학 등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공부하기도 한다. 지금은 트리니티신학원보다 개방적으로 교류하고 있으며, 예배 때 강사를 서로 초청하기도 한다. 싱가포르신학원은 주로 싱가포르 장로교, 침례교, 루터교 등 보수적인 교단의 지원으로 운영된다. 성공회와 감리교 등 진보적인 교단에서는 트리니티신학원의 학력은 그대로 인정하지만, 싱가포르신학원 출신은 따로 트리니티신학원에서 몇 학점을 이수해야만 해당 교단의 교역자가 될 수 있다.

싱가폴신학원의 모든 과정은 일반 신학교와 마찬가지로 영어부, 성악부, 중국어부로 나뉘어 있다. 영어부는 Th.M 과정까지 있고

중국어부와 성악부는 MDiv. 과정까지 있다. 이 학교는 성경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경 원문을 굉장히 중시하고, 귀납법식 성경연구가 MDiv. 과정의 핵심일 정도로 성경 자체를 깊이 파고 들어간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 교수진이 미국 달라스신학원과 웨스트민스터신학원 출신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학생은 300명 정도 되며 전세계 20여 개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각지의 중국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중국어부는 중국계가 대부분이고 영어부는 비교적 다양한 국적을 가진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 유학생들도 영어부에는 많은 편이나, 중국어부 졸업생은 현재까지 필자와 다른 선교사 둘 뿐이다. 이 학교는 싱가포르에서 중국어로 하는 신학과정 중 가장 중국어화 되었고, 중국계 신학생들이 많은 학교이기도 하다. 성악을 공부하는 학생도 영어나 중국어로 나뉘는데 국적은 다양한 편이다.

교수들은 대부분 전세계 각국에서 온 선교사로서 보수는 극히 미미하다. 선교사들은 본국 교회의 후원으로 생활을 하며, 다른 교수들은 주로 각 교회 예배에 강사로 초빙되어 설교한 후 받는 사례비로 생활하고 있다. 싱가포르신학원의 모든 교직원에게는 숙소가 제공되며 일률적으로 1,000싱가폴달러(한화 55만 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다. 교수들이 다른 곳에서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가르칠 만큼 헌신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열정적이다.

싱가폴신학원의 학비부담

싱가폴신학원의 학비는 기본적으로 무료이다. 모든 경비는 원칙적으로 전세계 각국에서 온 후원금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신학생 1인의 매월 최소 경비, 즉 매월 350싱가폴달러(한화 18만 원)는 신학생을 보낸 교회나 단체가 자원하여 후원해야 한다. 이것은 결코 강제적인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사람에게 한해서 내게 된다. 내지 않는 학생들도 많은데 학교측이 주선해서 생활비를 앞선해 주기도 한다. 됐다



가톨릭 교회가 편리하여 가까운 동남아시아와의 연결이 용이하다. 말레이시아에
는 화교 교회(성공회).
기에 전도받은 싱가포르 크리스천들이 전도하기 전에 거리 벤치에 앉아 기도로
미하고 있다.

고 해서 특별대우를 한다거나 내지 않았다고
해서 차별하는 예는 전혀 없다. 주중에는 학
생들 누구나 자신이 맡은 부분에서 봉사를 해
야 한다.

지금은 도서관과 기숙사를 짓고 있는 상황
이어서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특히 가
족이 있는 경우)은 싱가포르신학원에서 살 집
(아파트)을 알선해 주는데, 그 때는 자신이 최
소한의 경비를 학교 측과 공동 부담해야 한다.
이것마저도 필자가 알기로 매달 10만 원이 넘
지 않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학생이 기
숙사에 사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숙사비도
무료이다. 단 네 명이 한 방을 사용하므로 약
간 비좁은 환경에서 지내야 한다.

다만 기숙사 생활에서 월요일에서 토요일

까지 학생 개개인의 매끼 식사에 소용되는 쌀
과 부식값은 누구나 다 부담해야 한다. 매달
80달러(한화 4만 원)인데, 이것마저도 특별한
상황에서는 면제받을 수 있다.

싱가폴신학원의 입학요령

일반적으로 4년제 일반대학 졸업자에게는 3
년 과정의 M. Div. 과정이 있다. 고등학교 졸
업자를 위한 학사과정도 있고 신학교 졸업생
을 위한 2년 과정의 M.B.S.도 있다. 특이한
것은 계속교육 과정이 많이 있어서 졸업 후
사역하다가 몇 년 후에 다시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고, 6개월이나 1년의 단기 수업도
학교 측의 허락만 받으면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칙으로 25세 이상이라야 학교의 입학이
가능하다. 싱가포르신학원은 수업을 위한 어학
과정을 이미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하기
때문에, 언어가 되지 않는 학생은 언어를 어
느 정도 준비한 후에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
이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탈락하기 십상이다.

원서제출

3월 말까지 입학 신청자들의 사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이 입학지원을 하려
면 1~2월 중에 학교 측으로 편지를 보내 입
학지원서를 교부받고 상세히 기재하여 제출
하면 된다. 특히 인비 처리된 3인의 교역자나
신앙선배의 추천은 필수적이다.

주소는 반드시 영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주소 : SINGAPORE BIBLE COLLEGE
CHINESE DEPT. 9-15 ADAM RD.
SINGAPORE 1128

내용은 중국어나 영어로 쓰면 된다.

그러면 학교 측이 시험지를 보내주는데 시
험도 학교 측이 한 한국인 시험관을 내세워서
그의 감독하에 한국에서 시험을 보고, 시험관
이 인비로 답안지를 싱가포르신학원에 보내게
되어 있다. 시험과목은 주로 영어와 중국어
작문, 성경, 중국어 등이며, 5시간 10분에 걸
쳐 치루게 된다. 입학사정에 있어서 중국계가

아닌 사람은 어느 정도 고려를 해주기 때문에 성적문제로 인한 입학의 어려움이 많지는 않다.

합격이 되어 통지서를 전달받으면 학기는 7월에 시작하지만, 6월에 이미 단기과정이 있기 때문에 6월에 입국해야 한다. 그 모든 과정은 학교 측에서 상세한 안내 편지를 보내준다.

싱가폴신학원의 학교생활

수업은 언어가 되면 다 따라갈 수 있지만, 필자가 한국의 일반대학원에서 수학했던 경험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매일 책상에만 앉아 있어야 했기 때문에 종종 허리가 아파서 고생하였다. 닥달하는 싱가포르식 신학 교육으로 인하여 '84년에 입학한 중국어부 M. Div.는 많은 학생들이 병이 들었고 탈락하는 학생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싱가폴신학원은 동남아 각지의 교역자 양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국어 훈련은 이미 되어 있다는 전제하에서 교육한다. 다만 싱가포르의 국어가 영어이고 워낙 작은 나라여서 중국어로 된 참고자료가 대단히 빈약하다. 그래서 신학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종종 영어로 된 신학서적을 읽고 중국어로 보고서를 내야 하기 때문에, 영어로 된 책을 읽고 한국어로 사고하여 중국어로 옮겨야 하는 한국인에게 어려움은 배가된다.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교수들 중에도 어떤 분은 성적을 평가할 때 중국계가 아닌 것을 고려해 주지만, 어떤 분은 잘해도 오히려 점수를 깎는 수가 있다. 왜냐하면 외국인으로 말하자면 중국계 브라질 사람이나 한국인이나 다 외국인이기 때문이다. 또 선입견을 갖고, 비중국계는 중국인보다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성적을 처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맺음말

이상과 같이 싱가포르신학원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필자는 중국인 사역만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대만의 중화복음신학

원(中華福音神學院)이나 다오성신학원(道生神學院)을 권한다. 그것은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싱가포르의 영어가 공용어인 나라이고, 이 신학원은 싱가포르 주변 국가의 교회를 위한 사역자를 양성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사역을 하는 데는 아주 적절하지만, 대륙만을 위한 사역을 하기에는 대만이나 대륙보다 중국어 면에서 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중국어를 유창하게 하는 경우에 방언을 하나 더 익히기 위한 장소로는 싱가포르가 가장 적절하다. 싱가폴은 중국 각지에서 온 이민자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나라이다. 그래서 흔히 민난(閩南)어나 광둥(廣東)어, 하이난(海南)어, 푸저우(福州)어, 커자(客家)어 등 각종 방언을 접할 수 있고 방언 예배도 드릴 수 있다. 선교지의 도구가 되는 영국식 영어와 중국어, 중국어의 각종 방언 뿐 아니라 인도어, 말레이시아어 및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

또 선교적 분위기를 익히기에는 싱가포르신학원이 상당히 훌륭하다. 선교사들이 가르치는데다가 거의 매일 선교사들을 강사로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싱가포르에는 각종 해외 선교단체들의 본부나 지부가 거의 다 있다. 이 단체들의 각종 모임이 거의 싱가포르신학원에서 열리기 때문에 실제로 참여할 기회가 많다.

싱가폴에 있다면 교통이 편리하여 주변 국가에 가볼 기회가 적지 않아서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화교들과 쉽게 연결되기도 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등 동남아시아를 간다든지 호주와 뉴질랜드를 가는 것도 대단히 쉽다. 이런 점들이 선교에 대한 열정을 끊임없이 불어넣는 동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다.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로를 결정하면 될 것이다.

김한성/ 1995년 싱가포르신학원 목회학석사(M. Div.)
인천 남동공단 외국인교회, 구로공단 중국인
예배 및 인천제일교회 고등부 담당



특집/ 21세기 중국선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중국 비전트립의 ABC

장희락

중국선교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비전트립(Vision Trip)은 매우 중요하다. 선교의 비전은 어느 날 갑자기 오기도 하지만 비전트립을 통해 갖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보이지만 여행하는 동안에, 또는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여 자신이 할 일이 분명하게 보여질 수 있다. 그러나 비전트립은 중국선교 전문가거나 노련한 현지 선교사와 연결되어 그들의 지도를 받으며 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는 단순한 여행에 그치거나, 현지 선교 상황에 오히려 피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이 중국 비전트립을 계획하고 있는 단체, 교회, 개인에게 기본적인이고 핵심적인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편집자 주]

방학 여름휴가 등을 이용하여 중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이들이 부쩍 늘고 있다. 방문 목적은 여러

가지이지만, 일반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땅 밟기이다. 각 지역을 밟으면서 현장을 두루 살펴 보는 것이다. 둘째, 현지 일꾼들의 사업장을 보고 서로의 이해 가운데서 일꾼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의료, 이·미용 등의 기술을 가진 전문인들로 구성된 팀이 가서 섬기는 것이다. 여기서는 앞의 두 가지 형태에 대해 어떻게 준비해야 할 지 필자의 경험을 갖고 설명하고자 한다.

구성인원

인원은 10명 정도가 적당하다. 최소한 두 명은 중국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 명일 경우 심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만약 한 명도 없다면, 가기 전에 보다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10명 내외의 인원이면 경비를 대폭 절약할 수 있다. 5, 6명의 경우와 비슷한 가격으로 식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3조로 나누어 활동하기에 적합하고, 통솔하기에도 다소 여유가 있다. 한 도시를 둘러 보더라도 2, 3배 더 많이 보고 듣게 되는 효과가 있다.

기간과 지역 정하기

출입국 교통편은 비행기 혹은 선박을 이용하며, 10~15일이 가장 적당하다. 언어가 다른 타문화권에서의 2주 이상 여행은 쉽게 지루해진다. 그러므로 지역을 정할 때 되도록 동선을 짧게 하는 것이 좋다. 중국은 처음 방문하는 이들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대륙이라는 사실을 실감케하는 나라이다. 한 도시에서 인근 지역으로 옮길 때 시간을 여유있게 안배하는 것이 좋다.

사례 1)

- 미전도종족(소수민족)을 보고 싶으면:
남부 윈난(雲南)성을 중심으로
- 모슬렘 소수민족(위구르족, 회족)들에 대해 리서치하기를 원하면: 변경지역 내몽고자치구 우루무치→영하회족자치구 인촨(銀川)→간쑤(甘肅)성 란저우(蘭州)

사례 2)

다양한 중국어권 국가를 경험하고 싶으면:
광둥(廣東)성 선천(深圳)→홍콩→마카오

사례 3)

개혁 개방하의 중국을 보고 싶으면: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선천(深圳)→홍콩(홍콩에서 샤먼으로 출발하는 밤배를 이용하면 아름다운 밤 풍경을 볼 수 있다.)

사례 4)

화둥(華東) 지역의 대도시, 그리고 풍경이 빼어난 자연환경을 함께 보고 싶으면:
상하이(上海)→항저우(杭州)→쑤저우(蘇州)→난징(南京)

사례 5)

베이징(北京)→산둥(山東)성 지난(濟南)→칭다오(靑島)

예산(10명 기준, 1인 1일 경비, 한화)

- 숙박비(5,000원~10,000원)
일반적으로 2인 1실이다. 1인 1실이나 2인 1실 사용 가격은 같다.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경우는 한화 1만원 정도이고 이외의 지역은 5,000원 정도면 된다.
- 식비(5,000원, 간식비 포함)

타문화 지역에서의 여행이기 때문에 풍성한 식사는 체력유지에 도움을 준다.

• 일정경비(10,000원)

하루의 교통비, 입장료 등이 해당된다. 대부분의 입장료는 내국인에 비해 3배 이상의 가격이다.

• 공동경비

통신비(10,000원)

준비과정과 현지에서 사용되는 통신비(전화, 팩스) 항목.

준비물(15,000원)

준비 모임(간식비 포함)과 공동 준비물(필름 등)에 드는 경비.

선물, 기념품비(5,000원)

만나는 중국인들에게 가볍게 나눠 줄 수 있는 선물 서너가지를 준비한다(대상에 따라 다르지만 학생에게는 학용품이 좋다).

• 출·입국 교통비(공항세 포함)

• 여권·비자 발급비

• 예비비(50,000원)

개인별 지참금은 서로 상의해서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용돈이 넉넉지 못한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배려가 있다면 여행은 더 즐거울 것이다.

떠나기 보다 더 중요한 준비

• 방문할 지역에 대한 충분한 스터디가 필요하다(주 1회 이상)

3, 4개월 전부터 스터디 계획을 미리 세워 각자 조사하여 충분히 숙지해 가면 그만큼 풍성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각 지역에 대한 자료는 도서관, 중국선교 전문기관(중국어문선교회, 중국복음선교회)을 방문하면 얻을 수 있다. 시중에 나와있는 중국 여행서들도 반드시 일독을 권한다.

• 준비 모임은 모든 이들이 함께 참여한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진행하기보다 참여하는 모두가 분야별로 리더가 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분야별 리더에게 순종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기회로 만들라.

• 선물 부탁은 받지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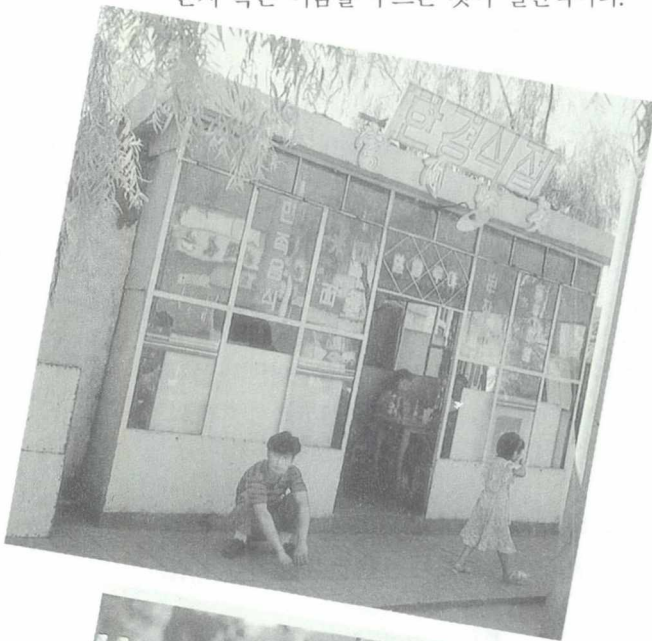
상품을 구하려고 신경을 쓰다보면 본의 아니게 개인 행동을 하게 되면서 팀워크를 해치는 원인이 된다.

• 기본회화를 익혀야 하다

중국어 구사가 가능한 사람에게 부탁하거나, 전문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 호칭에 주의하라

서로에 대한 호칭을 미리 연습해 놓는 것이 좋다. '목사님', '선교사님', '형제', '자매'라 부르지 말라. 현지에 가서 무심코 한 한마디가 일꾼의 가슴을 찡그러지게 한다.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인들의 중국 방문이 잦아지면서 한국 음식점도 속속 들어오고 있다. 음식은 한국 음식이지만 맛은 결코 한국맛이 아니다(?). 산둥성 웨이하이(威海)의 한글간판이 붙은 음식점. '可口可樂'이라는 차음(借音)으로 더 유명한 코카콜라는 이제 중국인들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음료수로 정착되었다.

준비일정 사례

◇S단체 (9월 10일, 대련→심양→연길→8경→백두산→북경→서울)

월/일	스터디 주제	매주 점검
5/3	기도회	기도회, 중국어 찬양, 중국어 회화
5/10	중국의 종교	
5/17	중국교회 I (삼자교회)	
5/18	Vision Trip 출정식	
5/25	중국교회 II (가정교회)	
5/31	중국교회 III (지도자)	
6/7	중국의 정치제도	
6/14	21C 중국, 어떻게 변할 것인가	
6/21	지역연구(북경·심양·연길)	
6/24 ~6/25	기도회 및 총점검	
6/26~ 7/5	가자! 중국으로	

◇Y단체(12월 13일, 청도→북경→심양→상해)

월/일	스터디 주제	매주 점검
9/3	관악산 등반(체력단련)	기도회, 중국어 찬양, 중국어 회화
9/10	강의: 단기선교에 대하여 지역 스터디① 청도	
9/17	북한산 등반 지역 스터디② 북경	
9/24	지역 스터디③ 심양	
10/1	등반, 강의: 리서치 방법 기초중국어 회화	
10/8	여행 및 준비사항 지역 스터디④ 상해	
10/15	등반, 팀 월 다지기	
10/22	문서전달 계획 시달 총점검	
	가자! 중국으로	

환전

중국에서 환전(달러를 인민폐로)은 별 어려움 없다. 여행자 수표(T/C)는 중국 내에서 받는 곳이 별로 없으므로 갖고 가면 사실상 쓰기에 불편하다.

중국에서는 「중국은행」과 고급 호텔 등에서 달러 환전을 할 수 있다. 대도시, 학교, 시장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암달러상에게 절대 환전하지 말라. 위조지폐가 대부분이다.

은행 영업 시간 : 10:00~13:00, 14:00~17:00

숙박 장소

보안상 일꾼 가정은 이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방문 지역 대학의 초대소(외국인을 위한 여관, 유학생 숙소)를 이용하면 된다. 숙박비가 싸고 주변 환경이 조용하면서도 비교적 깨끗하다. 찾기도 쉽다.

교통편

국내 여행시 먼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주로 열차를 이용하는데, 3일 전부터 표를 구입할 수 있다. 한 도시에 도착하면 먼저 역 근처에서 그 도시의 지도를 구입하는 것이 필수이다. 그리고 다음 지역으로 갈 표를 미리 구하는 편이 좋다.

외국인들이 여행하기에 무난한 기차종류는 잉위(딱딱한 침대:硬臥)이다. 상·중·하 3단으로 서로 마주보는 6개의 침대가 한 칸으로 되어 있어 중국인들과 얘기할 수 있는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된다.

여행사에 숙박·교통편을 의뢰했을 경우

한 지역에 도착하면 다음 지역 여행사에게 전화로 현재 지역에 도착한 사실과 다음 지역 출발 시간을 알려주라. 또 다음 지역에 도착했을 때도 동일하게 도착 사실을 여행사에 확인하고 표를 받기 위한 약속을 하면 된다. 대부분의 여행사에는 조선족이 있어서 언어에 대한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여행사 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토·일요일 휴무)

일정 계획시 주의 사항

- 여행 시각표를 참조하라(여행사 문의)
- 점검할 때 현지인에게 자문을 구하라
- 전문단체 혹은 방문 경험자, 여행사에 문의하라
- 현지에서 모든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때 일정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비행기표라도 구입하는 것이 좋다. 기본적으로 중국을 여행할 때는 항상 일정에 변동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해해야 한다. 홀어지거나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며

리더에게 순종하라.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공안국에 가면 외국인에 대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비상으로 예비된 열차표, 비행기표가 있을 수도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공안국 문을 두드려보라.

귀국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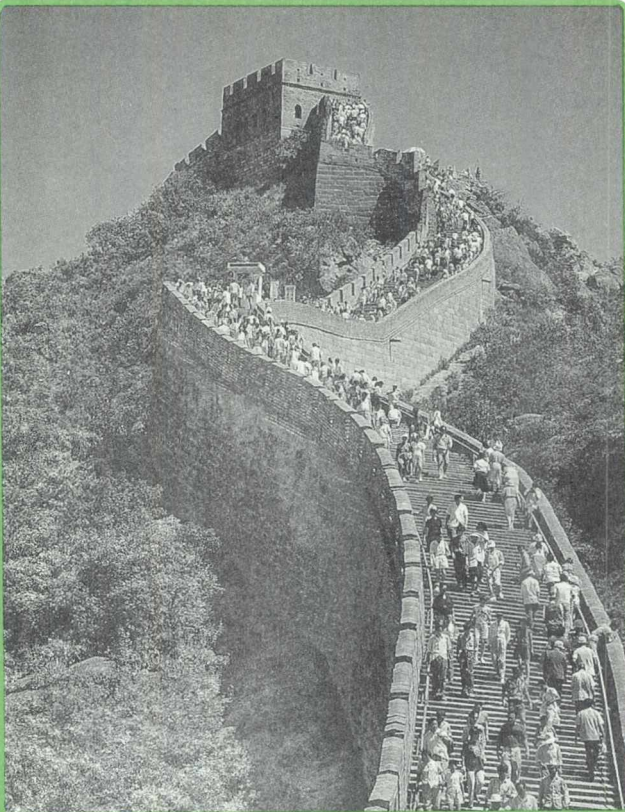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지역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면서 피로와 함께 경각심도 늦춰질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낸 일꾼의 안전을 위해 귀국 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친구들과 여행에 대해 대화하거나, 사업보고 할 때 일꾼의 현주소나 사업적 성격을 편견지나, 단체에 대해서 될 수 있으면 말하지 말고 공개적인 인쇄물로도 남기지 말라. 꼭 필요한 경우라도 그런 것이 있다 정도만 이야기하고 아주 필요한 극소수의 정책자들에게만 부분적으로 나누어 주라.

찍어온 사진이나 수집한 자료가 인쇄되거나 공개되려 할 때 한 번 더 주의하라. 일꾼과 함께 찍은 정면 사진은 발행, 게시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다.

여행시 먹을만한 중국 음식과 과일

宮保雞丁(궁빠오지펑):닭고기+옥수수조림
家常涼菜(자창량차이):우육+야채(상추) 무침
櫻桃肉(잉타오리우):탕수육과 비슷한 고기요리
魚香肉絲(위상리우쓰):돼지고기+완두콩+달콤한 소스
蕃茄里脊(판치에리지):돈가스 종류에 붉은 소스 첨가
鷄蛋湯(지판탕):계란을 넣어 시원하게 끓인 탕
肯德雞(컨더지):켄터키 치킨
白灼基圍蝦(바이쭈오지웨이샤):불에 그을린 큰 새우
香辣肉絲(향라리우쓰):고추를 첨가한 매운 고기튀김
八寶飯(빠바오판):8가지 과일이 들어간 단 찰밥.후식용
香蕉(상자오):바나나, 桔子(궈지):귤
荔枝(리즈):중국에서 나는 부드러운 과육의 과일
橙子(칭즈):오렌지, 鳳梨(펑리):파인애플
香瓜(상과), 酥瓜(티엔과):참외



중국선교 훈련단체 ①

열린 마음으로 중국을 배운다

중국복음선교회 부설
중국선교사훈련원

특집/ 21세기 중국선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중국선교 훈련단체 소개

중국선교, 산은 높고 갈 길은 멀다. 그러기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조심스레 걸음마를 연습해야 하지 않을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처럼 중국선교를 하려는 우리는 중국을 보다 잘 알아야 한다.

중국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 국가명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엄연한 공산주의 국가이고, 이 땅에서 북음들과 산을 넘겠다고 작정한 이들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각과 행동에 그리 큰 제약을 받지 않고 살아온 이들이 아닌가? 선교 헌신자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이래저래 알아야 할 것, 깨우칠 것이 많은 게 사실이다. 바로 이를 위해 설립된 국내 유수의 중국선교 훈련단체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나님께서 중국인을 구원하는 데 한국인들을 사용하시고, 한국인들을 통해 중국선교를 하기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훈련된 선교사를 중국에 보내야 하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이들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교회와 한국인 선교사들의 필요를 위해 이 땅에 살고 있는 화교 사역자들과 한국인들로 구성된 중국복음선교회는, 지난 1984년부터 10년이 넘게 중국선교의 비전을 품고 기도 와 준비작업을 한 끝에 <중국선교사훈련원>을 설립했다. 한국인들이 중국에서 무리 없는 장기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교육과 치밀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들이 절감한 것이다. '95년 3월에 개원하여 현재 2년째 운영되고 있는 <중국선교사훈련원>의 교무처장인 왕쓰쥬 목사와 여러 훈련생들을 만나 보았다.

훈련으로 거듭나는 사역자

<중국선교사훈련원>의 교육 과정은 2년이다. 일반적으로 훈련은 한국 교회에서 가능한 신학관련 과목보다는 한국 교회가 할 수 없는 교과목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중국어 학습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며 이외에 중국 사역학, 중국학, 선교학 등을 배운다. 이론적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 현장에 쉽게 적응하여 실제 사역을 할 수 있는 ‘전문 중국선교사’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선교사 훈련은 자칫 지식적인 데 치우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중국선교사훈련원>의 훈련과정은 사역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게 할 뿐 아니라, 중국인의 영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중국 상황에 적응하는 훈련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훈련이 결코 쉽지는 않다. 처음에 학생들은 ‘과연 이렇게까지 훈련해야만 중국 선교사가 될 수 있는가’라는 갈등을 많이 느낀다고 한다. 그러나 한 학기마다 있는 현장 실습을 다녀오고 나면, 학생들은 선교사훈련원의 취지를 심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

중국을 끌어안고, 간격을 좁히자

의건미 교수의 「중국어 기초회화」는 단지 중국인의 발음만 흉내내는 시간이 아니다. 글자 하나, 단어 하나가 나올 때마다 그 말의 배경을 설명하고 분석해 줌으로써 중국인의 사상과 생활 습관을 이해하게 한다. 이 시간에는 최근 중국에서 새롭게 유행하는 신조어(新造語)를 익히기도 한다. 이 외에도, 「중국 문화와 풍속」 시간에는 개괄적인 중국인의 문화, 풍습, 종교 등을 배우며, 「중국문학」 시간에는 시와 산문 등 중국의 역대 문학을 중국어로 배운다.

왕쓰웨이 목사의 「중국기독교사」는 주로 세미나를 하듯 연구과제가 주어지고, 토론과 질문으로 이어지는 스파르타식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매우 선호하는 과목이다.

또한 월 2회 “중국을 가까이”라는 특별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만두, 찹쌀, 마파두부, 춘유병(春油餅) 등 중국요리를 만들기도 하고, 중국영화·음악 감상 등 실제적인 중국인의 삶을 배우기도 한다. 이렇게 한국인으로서 중국인의 삶에 대한 간격을 좁히는 것이, 선교의 핵심부분에 접근하여 중국 교회를 위한 실질적인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길



중국선교사 훈련원 전경

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중국인에 의한 한국인 사역자를 위한 교육

<중국선교사훈련원>은 매년 10월부터 11월 까지 두 달간 신입생을 모집하며, 논술과 면접을 거쳐 입학할 수 있다. 중국선교에 소명이 확실하여 중국선교 사역에 평생 헌신할 자로서, 일반대학 또는 신학대학 졸업자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특정 업무에 4년 이상 근무한 자는 이 훈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 훈련원을 수료한 사람에게는 홍콩의 <중국선교신학원(China Mission Seminary)>이 인정하는 인준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훈련원의 전임교수와 전문과목 담당교수들은 홍콩과 대만의 중국선교 단체와 신학교를 이끌고 있는 교계 지도자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테면 홍콩 중국복음선교회(CMI) 국제총재인 조나단 차오 목사, 대만 다오성(道生)신학원 원장인 천레이 목사, 중국 교회 현지 사역자인 천웨이밍선교사 등이 학기중 특별 강의를 한다.

훈련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성적우수 장학금, 근로 장학금 등 네 종류의 장학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지도교수 체제를 적용하여 담당교수와 정기적인 면담과 토론, 매주

목요일 기도모임 등을 다채롭게 진행하고 있다. 학기마다 프로그램의 확대를 위해 각 과목당 10명 이내의 청강생 제도를 실시하여 중국선교 관심자들과 각 선교단체의 기존 사역자들에게 재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중국복음선교회가 운영하는 도서관은 중국학, 중국선교 및 선교학 도서와 논문, 정기간행물 등을 갖춘 국내 유일의 중국선교 전문 도서관이다. 훈련생들을 위한 학습의 공간이 될 뿐 아니라, 도서와 자료 대출도 가능해 훈련생들의 학업 및 일반인들의 연구와 자료조사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현지에서 진행되는 사역실습이 필수 교과목으로 이수하게 되어 있어서, 2년의 훈련기간 중 4회에 걸쳐 총 6개월을 언어실습과 더불어 특수현장에 들어가 여러 계층의 중국인들을 만나는 한 달여 동안의 사역실습을 통해, 훈련생들은 중국인들과 똑같이 생활하게 된다. 국내에서 배울때와는 달리, 막상 중국인의 생활과 환경 자체를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느끼고 돌아온다.

그래서 다시금 중국인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 위해 새로운 각오로 수업에 임하면서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 밖에도 훈련원에서는 졸업생들이 선교지를 선정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있다.

변화되는 중국을 기대하며

이제는 한국 교회가 지니고 있는 강점을 살려서 교회와 성도가 힘을 다해 중국 교회와 성도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한다. 한국 교회 안에서 헌신자를 발굴하여 후원하고 격려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져야 하고, 훈련생은 훈련받는 과정부터가 선교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선교사의 주요 임무는 현지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이지만, 한국인으로서 중국선교에 참여하려면 언어와 중국문화라는 큰 장벽을 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중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조력자로서 돕는 역할이 강조된다. 신학 교육

도 중요하고 교회 사역의 경험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중국 사회를 이해하고 중국인의 사고방식에 접근하려는 의지로 훈련된 사역자가 중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선교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바로 <중국선교사훈련원>의 목표이다.

중국선교사훈련원(서울 중구 정동 25번지)
전화: (02) 318-3956 팩스: (02) 773-6278

취재·글/ 이민선 · 본지 편집기자

중국선교 훈련단체 ②

생활에 업매이지 않는 군사들의 요새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구체화된 섬김의 장에서

중국어문선교회는 '中國語文으로 섬김'이라는 취지를 구체화하려는 목적으로, '92년 6월부터 언어의 전문성을 살리고 중국 상황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교육 과정을 개설코자 준비하기에 이르렀다. 마침 '92년 8월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한·중 수교는 이 사역에 더 큰 힘을 불어넣어 주었다.

그리하여 이 해 9월, 드디어 <중국선교훈련원>의 닻이 올려졌다.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생활에업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딤후 2:4) 라는 말씀은

모토로, 실제 선교지에서 겪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사역의 효율을 배가시킨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선교 훈련원은, 지난 4년 동안 60여 명의 훈련생을 배출하였다.

언어의 부담을 훈련으로 극복하고

6개월의 훈련 기간 동안 일반 대학 중문과 3학년 1학기까지 정도의 강의가 이루어진다. 어쩌면 이것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초 단계에 불과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언어를 전혀 배우지 않고 현지에 파송된 사역자들이 언어연수를 시작할 경우 1년~1년 반 이상 소비하는 시간을 6개월로 단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전체적인 훈련은 3학기로 나뉘어지는데, 선교중국어 학습을 집중으로 하는 국내에서의 15주간(1, 2학기) 훈련이 끝나면, 9주간의 현지 적응 훈련으로 들어간다. 현지의 대학과 연결하여 언어연수를 함과 동시에 중국의 문화, 생활감각을 익히는 것이다.

1학기에는 중국어 초급을, 2학기에는 초급 과정을 반복하면서 본격적인 선교 중국어를 배우게 된다. 특히 외대 중문과 초대교수를 지낸 김지일 장로의 중국어성경 강독 시간은 마치 옛날 서당에서 하던 공부를 방불케 한다. 83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열정으로 가르치는 김 장로의 열심에 훈련생들은 감동한다.

2학기에 진행되는 청력(聽力) 훈련은 훈련생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과목이다. 현지에서 이뤄지는 3학기 수업도 주로 회화와 청력훈련에 초점을 맞춘다. 이 때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국어로만 진행되는 수업에 대한 부담감과 거부감이 심해서 수업시 자주 빠지는 현상도 종종 나타난다고 한다. 여기에서, 만약 이러한 훈련없이 무작정 선교사로 현지에 파송될 경우, 언어를 통해 받는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시행착오가 얼마나 심할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어선교훈련원>은 이러한 현지에서의 훈련을 통해 훈련생들이 어려움을 함께



풀며 서로를 세워주고 동시에, 자신의 영성을 키울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중국, 중국을 알기 위해

매주 중국학, 중국선교 전문가들의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중국문화와 중국선교 상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강사진은 전·현직 중문과 교수 및 선교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이 어떤 나라인가를 알기 위한 정치, 역사, 문화, 사상 뿐 아니라 중국 교회 이해를 위한 종교정책, 선교방법론 등 다양한 주제별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지에서 잠시 귀국한 선교사들을 초청, 현장사역의 생생한 경험을 나누는 특별강의도 있다.

훈련원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중국고대사상」을 강의해 온 서울대 중문과 김학주 교수와「중국역사」강의를 맡은 이화여대 전인영 교수 등은, 젊은 평신도에서 나이 지긋한 목사님까지 다양한 연령층에 이르는 훈련생들을 대하자니 대학에서 강의할 때보다 긴장되긴 하지만 참으로 진지하게 수업에 임하는 훈련생들의 태도를 볼 땐 색다른 기쁨을 맛본다고 한다.

훈련의 몫을 감당할 자

<중국어선교훈련원>은 1년에 두 차례(1월과 6

월) 훈련생을 모집하며,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 매기마다 10여 명 안팎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다. 교회나 교단 선교부 및 선교단체가 위탁하는 장·단기 선교사, 중국선교에 부름받은 예비 선교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소정의 양식과 서약서,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하여 접수한 후 면접을 한다. 특별한 면접 기준이 있다면 6개월 동안의 훈련에 우선 순위를 두고 최선을 다해 전념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목회 사역과 훈련,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할 경우라면 아직 훈련받을 기회가 아니라고 본다.

사역의 동역자로 신뢰하는 공동체

이 훈련을 마친 훈련생들은 대부분 소속 교회나 교단 및 각 단체를 통해 선교사로 파송되며, 중국어문선교회에서 따로 훈련생들을 파송, 관리하지는 않는다. 후속 관리라 한다면 서로 동역자를 찾을 때 적임자를 연결해주고 계속적으로 선교현지의 필요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이들로 하여금 현지 통신원 등 여러 방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케 한다.

곳곳으로 흩어진 초창기 훈련생들 중에는 현지 대학에서 언어연수를 마치고 이미 사역을 시작한 이들도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은 동북삼성을 제외한 전 지역, 한국인들이 거의 없는 내륙 깊숙한 곳까지 진출해 있다. 현지 사역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교체할만한 사람을 찾기 힘든 지역에 가 있긴 하지만, 이곳에서 함께 배우며 서로 신뢰할만한 관계를 맺은 훈련원 동기들은 현지에서도 보이지 않게 서로에게 큰 위로와 도움이 되고 있다 한다.

사역지의 필요를 위해 준비

“일반적인 선교훈련을 받았더라도 대상 지역이 중국으로 정해졌다면, 반드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을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 곳에서 선교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적인 소양훈련에 그친 결과, 현지에 파송받은

이후 사역지에서 절실한 필요를 느껴 다시 한국에 나와 이러 저러한 훈련을 받으려는 모습들을 볼 때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중국선교훈련원> 담당자의 말이다.

그렇다. 훈련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지도자는 없다. 특히 믿음으로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임무를 받은 자들은 더욱 그러하리라 본다. 자신의 몸을 쳐 복종케 할 자들이 훈련으로 다듬어진 주님의 도구가 되어 중국 교회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을 뿐 아니라 중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중국선교훈련원(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02) 594-8038, 535-4255 팩스: 02) 599-2786

취재: 글/ 이민선 · 본지 편집자

중국선교 훈련단체 ③

**우리도
전문인 선교사가
될 수 있다**
한국전문인선교훈련원
(GPTI)

전세계적으로 정규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는 나라는 119개국이며 이러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은 38억에 이른다. 이러한 지역에서 창의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전문 직업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파송해야 할 필요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아직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11억 이상 되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미전도 국가이다.

평신도로서 선교 헌신자들, 특히 젊은이들로 하여금 구체적인 선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돕는 훈련단체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한국전문인선교훈련원(GPTI)이다. 다음은 GPTI에서 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태연 목사와의 일문일답이다.

일반인에게는 아직까지 생소한 전문인 선교사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전문인 선교사란 자신의 기술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타문화권에 접근하여 살면서 현지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데 최우선을 두며, 가능한 곳에서는 교회를 세우고 전교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증거자’입니다.

GPTI의 설립 동기를 말씀해주십시오

한국해외선교회(GMF)에 소속된 기관으로, 1991년 개원하여 현재 8기와 9기생들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 비자로는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전문인 비자를 통해서 나가,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문인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전인적인 면에서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 설립 동기입니다.

훈련과정과 모집요강을 말씀해주십시오

자격은 대학(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나 경력의 소유자이며, 전도 및 제자훈련이 된 가운데 전문인 선교사로 사역하려는 자입니다. 곧 선교지에 나가려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제출서류는 입학원서, 담임목사 추천서, 참고인 의견서이고 훈련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8시까지 이루어집니다. 주중에도 여러 간사들과의 계속적인 연락을 통해 삶을 나누고 교제합니다.

철야, 리트릿으로 매월 1회 영성훈련의 시간을 갖고, 한 달에 한 번 기도회를 갖습니다. 그리고 3학기 마지막 과정으로 3주 동안 공동체 훈련을 통해 서로의 삶을 나누는데, 이 부분이 본 훈련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훈련생 대부분이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출퇴

근을 하면서 저녁에 함께 공동체 프로그램 시간을 갖습니다.

여름방학 기간인 7, 8월 중에는 창의적 접근지역을 택하여 비전트립을 갖습니다. 또한 훈련받는 1년 동안 한 나라를 선정하여 사역의 가능성과 전략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훈련받는 중 개인사역과 팀사역 계획서를 제출함으로 앞으로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성경학교 과정은 성경의 맥을 잡을 수 있는 ‘월명턴 성경공부’라는 교재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각자 스스로 선교지 언어를 배우도록 하며, 인성, 개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전인격적인 훈련을 돕고 있습니다. 매번 주제에 따라 가장 전문적이고 인정받는 분을 초청하여 강의를 하는데, 대부분의 강사들이 전문인 선교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헌신된 분들입니다.

GPTI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십시오

특히 선교에 헌신되고 준비된 평신도들이 훈련에 임하기 때문에 분위기가 살아있습니다. 그야말로 살아있는 유기체의 모임이라고나 할까요. 누구나 자발적으로 섬기는 모습입니다. 여러 부류의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만 그 속에 순수함과 조화를 이루고 있죠. 저희 훈련원은 단순히 강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간 보고서를 통해 개인의 삶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삶 속에서 나눔이 바로 생동하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교육은 강의를 듣는 공식 수업과 그룹도의 등 비공식 수업을 비롯하여 간사와 훈련생들 간의 모임과 상담, 전도보고를 통한 생활 가운데의 훈련 등 비형식적 교육이 모두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전도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선교훈련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거죠. 이것이 우리 훈련원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설립 5년째라면 그동안 어려운 점이 많았을 텐데 이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현재 약 250여 명의 훈련생들이 해외, 국내에서 각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다양하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문인 선교사'라는 개념이 뿌리내리는 단계라 개교회의 이해와 후원이 전무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일반 선교사는 '선교사'로 인정하지만, 전문인 선교사라 하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성도들, 심지어 목사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인 선교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 뿐만 아니라 이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생들도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전문인 선교사로서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말씀해주세요

현재 선교 결심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중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미전도국가인 중국에도 이제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공산주의 체제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현재 중국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직종을 어느 정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전문인 선교사로 가는 방법은 중국 기업이나 기관, 혹은 국내의 중국 진출회사나 기관 등에 고용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니면 소규모 사업을 직접 경

영하거나, 크리스천 실업인이 회사나 공장을 설립하여 전문인 선교사와 팀을 구성하거나, 최소한 전문인 직업훈련을 받은 목회자와 팀을 구성하여 일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선교지 어디서나 문화적 적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언어습득도 필요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국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 타 선교단체와 연결하여 공동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GPTI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같은 직종을 가진 훈련생들이 모여 팀을 이뤄, 국내 농촌지역에도 교회가 필요하다면 가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 등의 방향으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전문인선교훈련원 출신 훈련생들이 나가서 전문인 선교단체를 설립하기도 하고, 또 현재 이런 단체의 멤버들이 훈련을 받으러 오기도 합니다. 이미 대전에 국제과학기술자선교회가 설립되었고 앞으로 엔지니어링선교회가 발족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대전 대덕장로교회에서 전문인 선교훈련이 시작됩니다. 계속적으로 이 곳뿐 아니라 중부권, 남부권 등 지방에도 전문인선교훈련원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의 길은 많이 있다. 그리고 많은 선교사들이 이런 저런 모습으로 선교사역에 임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변화무쌍한 시대의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또 하나의 복음전파의 길을 알려주셨다. 꼭 평신도가 아니어도 된다. 훌륭하고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직업이 아니어도 좋다. 직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열정과 헌신만 있다면 우리도 선교사가 될 수 있다.

한국전문인선교훈련원(서울 강남우체국 사서함 1052호)
전화: (02) 537-2043, 594-3438 팩스: (02) 595-7809

취재·글/ 김은희 ·본지 편집기자

今天是中元節

오늘은 중원절이다

중국에는 매년 음력 7월에 귀신들이 세상을 떠돌아 다니며 못다한 원한을 풀려고 한다는 미신이 있다. 이 원혼들을 달래기 위해 모든 장사꾼들은 음력 7월 15일에 집 앞에 귀신들에게 상을 차려 복을 빈다. 이 날이 바로 중원절(中元節)이다.

또한 대만은 우상숭배와 미신이 심한 곳이다. 타이베이(臺北)의 유명한 사찰 중에 신텐궁(行天宮)이라는 큰 절이 있는데, 중원절이 되면 절(拜拜:빠이빠이)하러 가는 인파가 몰려 든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여 귀신을 향해 절하거나 평안을 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귀신들이 해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甲: 今天是中元節, 你要不要跟我去行天宮拜拜?

Jìntiān shì Zhōngyuánjié, nǐ yào bú yào gēn wǒ qù Xíngtiāngōng bàibài?
오늘은 중원절인데 나하고 절에 가서 빠이빠이 안할래?

乙: 我信耶穌, 不用去拜拜。

Wǒ xìn Yēsū, bú yòng qù bàibài.
난 예수님을 믿어서 절에 가지 않아.

甲: 農曆七月是鬼月, 你不怕鬼嗎?

Nónglì qī yuè shì guǐyuè, nǐ bú pà guǐ ma?
음력 7월은 귀신의 달인데, 넌 귀신이 무섭지도 않니?

乙: 信耶穌的人, 不必怕鬼。

Xìn Yēsū de rén, bú bì pà guǐ.
예수 믿는 사람은 귀신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어.

甲: 爲甚麼?

Wèi shén me?
왜 그렇지?

乙: 因爲耶穌的寶血, 我們成爲神的兒女。所以鬼絕對不能害我。

Yīnwèi Yēsū de bǎoxiě, wǒmen chéngwéi shén de érǚ suǒyǐ guǐ juéduì bù néng hài wǒ.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그래서 귀신은 절대로 나를 해치지 못해.

中元節(zhōngyuánjié): 음력 7월 15일, 백중날이며 곧 귀신의 절기(鬼節)이다.

行天宮(xíngtiāngōng): 타이베이에 있는 유명한 절 이름.

拜拜(bàibài): 불교 신도들이 향을 들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을 칭함.

農曆(nónglì): 음력(陰曆).

鬼月(guǐyuè): 귀신의 달. 음력 7월을 말한다.

차이나/ 본지 편집자

따마잔교회 부흥의 비밀

메이쥙즈(梅增知)

광저우(廣州) 따마잔(大馬站)교회와 린셴가오(林獻羔) 목사의 이야기는 이미 해외에 자주 보도된 바 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은 그들이 환경적인 압력을 받으면서 어떻게 신앙으로 집회 및 봉사를 계속해올 수 있었는가 하는 것들이다.

이번에 친지 방문차 중국에 들렀을 때 광저우에서 며칠 묵으면서, 이 기회를 이용하여 하루 날을 잡아 따마잔교회 집회에 참석하고 린 목사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다. 나는 예전부터 줄곧, 따마잔처럼 천여 명이 몇 부 예배로 나뉘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교회에서 목회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린 목사에게 가르침을 얻고 싶었다. 또한 린 목사 개인의 생활에 대해서도 무척 궁금했다.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실패하는 것은 모두 그 개인생활에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따마잔의 동역자들

따마잔교회에는 집사는 없고 8명의 전임사역자(린 목사 포함)와 여러 명의 자원봉사자가 있었다.

그날 오전 방문했을 때, 3층에서 각각 원고를 베끼고 타자를 치고, 교정하고, 인쇄하고, 제본을 정리하고, 설비를 수리하는 등 바쁜 모습이었다. 린 목사는 긴 탁자 한 편에 앉아 이 모든 일을 점검하고 있었다.

자원봉사자들 중에는 매일 와서 도와주는 이도 있다. 린 목사를 제외한 7명의 전임사역자들은 각각 다른 책임을 맡고 있다. 매달 한 번씩 설교를 하는 사람, 청년부 담당 사역자, 심방을 맡은 두 자매, 이외에도 각각 잡일과 주방 일을 책임지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 듣자하니 매일 최소한 열 명에서 스무 명 가량이 이곳에서 식사를 하며, 집회가 끝나고 함께 식사하는 사람은 더 많다고 한다.

교회 설비 수리를 맡은 한 형제가 있었다. 천여 명이 참가하는 집회 때 쓰이는 낡은 의자들도 모두 이 형제가 계속적으로 수리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또 한 명의 자원봉사자 형제는 전기 수리공인데, 그는 매 집회 전에 음향 및 T.V채널 조정 등을 맡아 집회의 순조로운 진

행을 돕고 있었다.

진정한 가정교회

점심시간이 되자 심방갔던 두 자매가 돌아왔다. 그들은 매주 월요일에는 린 목사도 반드시 심방에 동참한다고 말했다. 나는 린 목사에게 “월요일은 쉬는 날이 아닌가요?”라고 물었다. 그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매우 뜻밖의 대답이었다.

따마잔교회는 평일에는 린 목사, 목수 형제, 잡일 맡은 형제 이

가정과 교회는 하나인 것이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특별히 자기만을 위해 먹을 것을 준비한 적이 없고, 매 끼니를 형제 자매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그저 허기를 면할 수 있으면 족히 여겼다. 그날 그들과 함께 식사하게 되어 나는 매우 기뻐다.

보잘 것 없는 작은 침대

식사 후 나는 린 목사의 침대를 보기 원했다. 침실은 2층 뒤편의 작은 방이었다. 집회 때는 이 방도

적 삶을 개선해 나갈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리라. 그러나 그에겐 마치 사생활에 대한 욕구가 전혀 없는 듯했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생활만이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삶인 것이다.

해외에서 온 성도들이 린 목사를 방문할 때마다 그는 늘 손님들을 3층으로 데리고 가 임시로 쓰고있는 설교대의 긴 책상 앞에서 함께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항상 겸손하게 손님을 그의 원편에 서도록 한다. 알고보니 그 위



예배당에 가득한 따마잔교회 성도들. 따마잔교회 린센가오 목사

렇게 3명만 함께 생활하고 있다. 가족이 없는 린 목사는 이 형제 자매들을 친족으로 여기고 있었다. 사역자들이 자신의 모든 정력을 교회 봉사에 쏟으면서 개인생활까지도 완전히 헌신하고 교회생활에 융합시킨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가정교회였다. 린 목사에게

장소의 일부분으로 사용되어, 그의 작은 침대에 사람들이 가득 앉곤 한다. 작은 침대와 어지러져 있는 침구, 몇 가지 간단한 가구들을 보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숙연해짐을 느꼈다. 여기가 바로 해외 교회에 널리 알려진 린 목사의 방인 것이다. 결코 그에게 자신의 개인

치는 빌리 그레함 목사와 함께 사진 찍을 때 섰던 곳이라고 한다.

그의 낯고 허름한 작은 침대는 내게 잊지 못할 깊은 인상을 남겨 주었다. 그것은 나에게 큰 본보기와 가르침이 되었다.

梅增知/ 중국 사역자
번역/ 정희정 · 자원봉사자

중국의 통일문제

양안(兩岸)의 군사적 위기와 관련하여

백기인

중국-대만 문제의 발단과 원인

중국과 대만은 영토와 인구의 대비에서 100:1이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대표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말미암아 실리를 중시하는 국제관계의 미묘한 흐름이 교차하고 있는 지역이다.

1949년 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면서 적어도 1960년대 말까지 '대만해협'을 사이에 두고 공산당과 국민당 양 정부는 서로 '중국의 대표성'을 주장하면서 대립하여 왔다. 1970년대에 접어들어 중국에 의한 UN에서의 대만 대표권 박탈, 미국과 일본의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인정, 그리고 점차적인 대만의 외교적 고립으로 인하여 중국과 대만은 통일 문제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대등한 위치에 서 있지 못하게 되었다. 더욱이 1990년대에 와서는 중국이 공공연하게 의도적으로 무력통일의 가능성을 반복·시사하여 왔으며, 대만 역시 '대륙수복' 혹은 '대만독립'의 입장을 강력하게 견지하여 왔다.

1995년에 와서 중국과 대만의 입장은, 1월 30일 춘절을 맞이하여 발표된 장쩌민(江澤民)의 '江八點(대만에 대한 통일정책)'의 제안과 더불어 2월 21일 대만 행정원장 쟈전(連戰)과 4월 8일 리덩후이(李登輝) 총통의 명의로 '李六條'의 대안이 제시되면서 서로 강경

하게 대립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 총통의 6월 7일 방미를 통해서 양국 간에는 더욱 미묘한 갈등이 야기되었다. 8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양국이 군사훈련으로 맞서기에 이르렀고 마침내 중국은 대만 인근을 공격목표로 실제적인 위협을 가하는 수준의 훈련까지 감행하였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되면서 군사적 위기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원인은 무엇일까?

중국의 지역전략 변화

냉전체제가 종식된 현재, 1990년대 아·태지역 질서는 한반도 문제 등 냉전의 잔재 지속, 따오위타이(釣魚臺) 열도와 북방 4개 도서(島嶼) 문제 등 영토문제 미해결 및 국가간 이익 확보를 위한 경쟁 등으로 긴장과 갈등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강대국간의 대규모 전쟁 발발 가능성이 감소되고 있으나, 지역분쟁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그것은 지역내 세력균형이 자국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소련 붕괴 이후 미·러를 중심으로 한 양극체제가 와해되고 미·일·중을 주축으로 하는 삼극체제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지역전략을 해양력의 강화에 두고 있다. 1992년 7월 진지웨이(秦基偉) 당시 국방부장이 "중국 해양전략의

원대한 목표는 해양을 다스리고 이용하는 것"이라고 천명하였는가 하면, 1992년 3월 28일 덩샤오핑이 중남해 삼군의 지휘관과 회동하면서 이른바 '탁고(託孤)'라는 후계자 문제에서도 선명하게 밝혀졌다. 그래서 장쩌민 주위에 해권파의 대표인물인 리우화청(劉華清)과 공산당 초대 대(對)대만작전계획부장 장젠(張震)에게 군사위원회 임무를 맡기면서 장쩌민 보좌에 배치하였던 것이다.

해상 권익의 확보를 전략적 목표로 하는 해방군의 주요한 전장은 대만과 남지나해이다. 1992년 10월, 장쩌민은 중국공산당 14대에서 이후 군대의 사명을 "조국통일, 영토보전, 해양권익의 옹호에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전략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만과의 긴장국면을 완화하기 위해서 최근 몇 년 간 군사훈련 장소의 선정에서 대만과 인접한 지역을 피해왔다. 그러나 1994년 이후 군사훈련은 대부분 대만과 인접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다. 훈련장소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 또한 새로운 의미를 지니며, 이것은 중국의 전략적 경향을 직시할 수 있는 뚜렷한 변화이다.

이같이 중국의 해양전략으로 말미암아 인근 남중국해의 영토 및 자원을 둘러싼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오랜 분쟁이 직접적인 분쟁의 위기로 치닫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필리핀과의 군사적 충돌은 그 단적인 경우이다. 문제는 중국만이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공중 재급유 능력과 해상지원 능력 및 수륙양용 전쟁능력 등을 통하여 이러한 사태에 대처할 고도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중국은 전략적으로 그들의 역할을 지역 내에서 확장하려고 하면서 대만에 대한 입장 또한 강경노선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열강과의 관계에서 주도권 확보

중국의 세계 전략은 미국이나 일본과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중국이 점차적인 개방경제의 성숙단계로 접어들면서 미국

아·태지역의 국제질서가 양극체제에서 미·일·중에 의한 삼극체제로 변화되고 있는 점은, 중국으로 하여금 외교적 활동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과의 관계는 악화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지적 재산권 문제로 인한 양국간의 무역분쟁은 일시적으로 타결되었으나, 사실상 중국 당국이 양국간 타결된 질충사항을 전 인민들에게 준수하도록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중국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자격을 획득하는데 있어 미국측이 우호적인 입장을 표명하 게끔 설득하는데 실패하였다.

중국이, 미국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대중국 반체제 인사였던 해리우(Harry Wu)를 납치함으로써 제기된 인권문제 또한 양국간의 관계를 심각한 국면으로 몰아왔다. 이러한 와중에서 작년 5월 대만 총통의 사적인 방미(訪美)에 입국비자를 허가하지 않았던 미 행정부가 종전의 입장을 바꿈으로써 중국은 미국과 격렬하게 대응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대내 정치·경제적 문제로 인해 대외문제에 대하여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러시아는 미국과 평화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대외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정책을 추종하는 입장에 있을 뿐이다.

반면, 아·태지역에서 일본과 중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일본은 신장된 경제력을 바탕으로 역내에서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과 세계적 동반자 관계를 구축할 것임을 약속함으로써 국제문제에 대한 옹분의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렇듯 아·태지역의 국제질서가 양극체제에서 미·일·중에 의한 삼극체제로 변화되고 있는 점은, 중국으로 하여금 외교적 활동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중국의 미·일 정책에 변화를 요구

하는 요인은 중국에게 도전이기도 하다. 이에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미국이나 일본 등 열강의 영향을 배제하고 자신이 역내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현재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개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도 경제력 등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군사력을 증강하여 남사군도와 따오위 열도 등에 대한 영유권을 확보하고, 홍콩과 대만에 대한 주권을 회복하며, 역내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국가재정 적자에도 불구하고 근자에 와서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군 장비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군사력 증강을 도모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장쩌민의 군권 장악의 현실적 효과

장쩌민은 덩샤오핑 사후에 있어 중국의 실질적인 최고 통치권자로서 그의 권력기반을 강화하려는 대대적인 작업에 착수하였다.

그는 1993년 말부터 인민해방군 고급장교들에 대한 새로운 대규모 인사이동을 단행하였다. 천안문사태 이후 군부 내 세 차례에 걸친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양상쿤(楊尚昆), 양바이빙(楊白冰)이 주도하여 장은 근본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 '14대' 기간 동안 장과 일부 군원로들의 연합에 의해 양자장(楊家將)이 제거되고, 이어서 건국 이후 최대 규모의 군 인사이동을 통해서 양 일파가 제거되었다.

1994년에는 장이 '청년화, 전문화'의 기치 아래 일부 군부 내 두터운 인맥을 형성한 원로들을 연령제한을 이유로 해임시켰다. 그 가운데는 66세의 선양(瀋陽)군구 정치위원 쑹커다(宋克達), 67세의 난징(南京)군구 정치위원 리우안위엔(劉安元)과 총후군부 부부장 리룬(李倫)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더불어 인민의 지지를 고려하여, 1989년에 천안문사태를 진압하고 진급한 일부 군 장성들은 중요직위에서 물러나게 되었던 것이다.

덩은 장쩌민으로 하여금 온 힘을 다하여 군대를 움켜잡으라고 당부했다. 덩의 의도는 군

대를 진정시켜야만 대국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장은 덩의 당부에 따라 군사위원회 주서직을 맡은 이래 삼총부와 칠대군구(七大軍區)의 고급 장성들과의 접촉을 강화하였다. 동시에 군대 내의 인사를 주도하고 1993년에 군급 이상 장성 100여 명의 인사를 단행하여 21세기를 향한 소장파(少壯派) 장성을 양성하였다. 최근 2년 간 장의 주도하에 칠대군구의 사령관과 정치위원을 교체시키면서 장의 군대 내 위엄과 영향력은 더욱 강화되었다. 군대 내의 이러한 인사조정은 사실상 덩의 지시 하에 진행된 것으로 당연히 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장은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서 여러 차례 관련 장성들을 접견하여 '장핵심(江核心)'의 권력공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공산당 14대에서는 44명의 장군 가운데서 중앙위원회에 진출한 중앙위원 총수 23%를 차지하는 군 인사들이 대만과의 전쟁 경험이 있는 요인이라는 점은, 장의 군사권 장악은 물론이고 대만정책의 방향과 관련하여 주목된다. 그들은 대만에 대한 임진태세의 강화를 강력하게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국의 통일정책과 그 전개

1980년대부터 중국은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서 "일국양제론(一國兩制論: 한 국가 두 체제)"을 주장하고 있다. 잘 알려지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 방안은 중국과 영국 간의 홍콩 문제 협상과정을 거치면서 홍콩문제뿐 아니라 대만문제에까지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모델로 간주되었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양성상호작용(良性相互作用)'을 슬로건으로 내걸면서, "대만독립에 대해 반대하고, 평화통일을 전제로 하여 일국양제를 실현한다. 분열에 대하여 무력행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만 측은 "쌍방이 적의를 배제하고, 대만정권을 실제로 인정하며, 공산당이 무력행사를 포기할 것을 전제로, 대륙은

대만이 주권국가로서 UN에 가입하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단계에서 중국과 대만이 대화를 할 경우에는 통일문제를 제외한 문제, 즉 문화교류나 경제협력 등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위에서 잠깐 제시한 바와 같이, 중국은 1988년 이후 현재 공식적인 통일정책을 “일국양제”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덩샤오핑이 1984년 12월 19일 영국의 대처 수상과 가졌던 대담에서 거론한 바 있고, 이미 1981년에 발표되었던 대(對)대만정책 및 예젠잉(葉劍英)의 ‘9개 방침’에 근거하고 있었다. 이렇듯 일국양제론은 중국의 대만정책과 중국-영국 간의 홍콩문제 협상을 둘러싼 과정을 배경으로하여 전개되었던 것이다.

1981년 9월 제안된 “통일정책 9개 방침”은 이에 앞서 1979년 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명의로 발표되었던 “대만동포에게 고함(告臺灣同胞書)”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통일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가시화되었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1981년 5월 15일 베이징을 방문한 일본국책연구회 대표단과의 회견을 통해서 덩샤오핑이 공표한 “조국통일 6개 원칙”에서였다.

①대만의 현정권 인정 ②대만인의 생활수준 인정 ③대만에 대한 외국투자 보호 ④대만의 군사력 유지 보장 ⑤대만 지방정부의 인사결정권 인정 ⑥대만의 대외관계 유지 보장

이른바 “국공(國共)의 3차합작 실행”이라는 ‘대등한 회담’을 명분으로 제의되었던 예젠잉의 ‘9개 방침’은 다음과 같다.

①중국 공산당과 국민당의 대등한 담판과 쌍방의 대표파견 후 의견교환 ②우편교류, 통상·왕래·친척방문·여행실시, 학술문화·체육교류의 협의 ③대만은 특별행정구로서 자치권 보유 및 군대 보유 인정 ④대만의 현행 사회와 경제제도는 불변, 생활방식이나 외국과의 경제·문화관계도 불변, 사유재산과 기업소유권의 합법적 계승권과 외국의 투자도 침해받지 않음 ⑤대만 당국과 대표인사들은

중국은 1988년 이후 현재 공식적인 통일정책을 “일국양제”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국가관리에 참여 ⑥대만의 지방재정은 중앙정부에서 지원 ⑦대만인의 본토거주권을 인정, 자유왕래 보장 ⑧대만 상공업계 인사의 본토 투자와 영리활동 보장 ⑨조국통일은 모든 사람의 책임이며 대만의 각 민족·인사·민중단체들의 건의와 의논을 환영한다.

이같은 선언 이후, 중국은 1982년 12월 개정된 신헌법 제 31조에 “국가는 필요에 따라 특별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그들의 제안이 법적인 뒷받침을 갖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대만 측은 이를 일축하였고, 오히려 이 제안은 영국과 중국간의 홍콩 반환 협상과정에 적용되었다.

영국과 중국간의 교섭은 1982년 9월 대처 수상의 방문으로 시작, 1983년 7월 실무급회담으로부터 1984년 9월 6일까지 22회의 협상을 거친 후 9월 26일 합의서가 조인되었다. 여기에서 ‘일국양제’라는 용어가 외교문서에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다. 중국과 영국간의 회담과정에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덩샤오핑이 1983년 대홍콩 정책의 원칙을 ‘20자방침’으로 제시한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①1997년 홍콩의 주권을 회복하고(收回主權), ②홍콩 특별행정구를 설치하되 자치독립은 불가하며(成立特區), ③중앙의 통일적 지도하에 홍콩 주민이 홍콩을 다스리고(港人治港), ④경제제도는 앞으로 50년간 불변이고, 자유항·금융센터·법제도 불변이며(制度不變), ⑤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되도록 한다(保持繁榮)

이 원칙은 중-영간 회담의 기본 방향이 되었고, 1984년 9월 “영국·중국간 공동성명”으로 완성되었다. 이 성명은 다음과 같은 8가지의 조항으로 압축된다.

①홍콩은 중국 중앙정부에 직속되는 특별행정구가 되며, 외교·국방 이외의 분야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유한다. ②홍콩특구에는 독자적인 행정·입법·사법권이 부여되며 현존 사법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③홍콩 정부는 현지 주민으로 구성되며, 행정부의 수반은 선거 혹은 협의에 의해 홍콩에서 선출하고 중국이 임명한다. ④현행의 사회·경제 제도 및 생활양식은 그대로 존속하며, 사상·언론·집회·파업·종교·인신의 자유는 법률로 보장되고 개인의 소유권·재산상속권·외국 자본은 법률의 보장을 받는다. ⑤홍콩은 자유항, 국제금융 중심지로서의 지위와 독립된 관세구역을 유지하며, 홍콩달러의 통용이 보장된다. ⑥홍콩은 독립재정을 수립, 집행하며 중국은 홍콩에서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⑦홍콩은 “홍콩 차이나”란 이름으로 세계 각국 및 국제조직과 상호호혜의 경제·문화관계를 수립하며 필요한 협정(여행증명서 발급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⑧홍콩 자체의 치안은 홍콩에서 책임진다.

정부가 되고 있으며, 홍콩은 특별행정구로서 자본주의 경제체도를 당분간 유지하는 정치적, 경제적 자치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의할 점은 덩샤오핑이 홍콩문제 해결과정에서 “일국양제론”을 중국 통일문제로 확대시켜 나갈 것을 1984년 6월 홍콩 상공인(商工人) 방문단과의 대담에서 천명하면서, 홍콩문제와 대대만정책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한편, 조국통일을 위한 ‘통일전선(統一戰線)’의 기치를 내걸었다는 사실이다. 바꾸어 말하면 평화통일에 대한 전략적 의미에서 “일국양제론”이 거론되었던 셈이다.

사실 대만 측에서는 이러한 판단하에 예젠잉의 “9개 방침” 제안 이후 다음과 같이 일축하였다. 첫째, 중국은 하나이며 자유중국이 정통 정부이고 ‘하나의 중국’을 대표하며, 공산독재에 신음하는 본토를 구출할 사명을 지닌다. 둘째, 대만은 삼민주의(三民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는 만큼 통일합작 제의에 앞서 중국은 공산주의를 포기해야 한다. 셋째, 과거 두 차례에 걸친 국공합작의 경험에서 볼

때 당시의 제의도 위장평화 공세였다.

이후 중국 측의 통일제안이 거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은 기본적으로 1980년 쌍십절에 발표된 장카이시(張介石) 총통의 삼불원칙(三不原則), 즉 국공불접촉(國共不接觸), 불담판(不談判), 불타협(不妥協)과 삼민주의에 입각한 반공복국(反共復國)만이 중국의 통일안임을 고수하여 왔다.

1995년에 와서 양국의 이러한 입장은 첨예하게 대립적인 국면으로 치달았다. 이것은 1



대만의 군사기지

이와 같은 조항에 따르면, 홍콩 문제에 있어서 중국 정권이 중국을 대표하는 배타적 주권

월 31일 춘절(春節)을 맞이하여 발표한 이른바 “장쩌민의 여덟 가지 제안(江八點)”이라고 부르고 있는 신(新)대만정책을 통해서 드러났다. 이 내용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①‘하나의 중국’ 원칙 견지 ②대만의 ‘두 개의 중국’을 조장하는 책략에 반대 ③중·대만의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정당·단체대표간 회담 개최 ④중국의 무력사용 대상은 중국통일을 방해하는 외세 ⑤중·대만 간 직접 경제교류 추진 ⑥중화문화의 우수한 전통 계승·발전 ⑦대만동포와의 연계 강화 ⑧중국·대만 정상간 중국 내(대만 포함) 회담 개최

요컨대 대만의 분리독립 경향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통일 이후의 대만인의 불안감 해소, 그리고 양안교류의 확대에 관한 제안이다. 장쩌민은 대만독립에 반대하면서 대만문제는 그 해결책이 평화적이든 비평화적이든 내정(內政)일 뿐,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불허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필요시에 무력사용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강의 여덟 가지 제안”은 대만 측의 분석에 의하면, 고도의 기만이며 유인작전의 기교로 평가된다. 비록 중국 측이 새로운 평화적 제안이라고 선전하고 있지만, 그것은 결코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대만정책이라는 것이다. 혹자는 중국이 완전한 의미에서 평화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므로 오히려 경계하여야 하며, 만일의 경우에 무력적 공격이 행사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고 본다. 결국 장의 제안은 전쟁도 평화도 아닌 두 가지의 전략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좀 더 세밀하게 이 원칙을 본다면, ‘먼저는 예의, 나중에는 무력(先禮後兵)’이나 혹은 ‘먼저는 대화, 나중에는 타격(先談後打)’이라는 전략·전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호는 결국 손자병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최상이다(攻心爲上)’라는 전법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장(江)의 제안을 대만 측에서 최후 통첩식의 포고라고 해석하는 것도 무리

장의 제안은 ‘대만의 독자적인 행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분할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가 아니다. 장의 제안은 ‘대만의 독자적인 행동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분할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아울러 대만의 독립을 조장하는 어떠한 언론과 행동도 모두 결단코 반대한다는 태도가 확고하다. 결국 중국은 ‘분열분치(分裂分治)’라든지 혹은 ‘단계적인 두 개의 중국’ 등에 대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아 반대하고 있으며, 최후에는 무력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과 태도를 원칙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중국 측의 제안에 대하여, 대만 측에서는 리덩후이의 6개 조항을 제시하였다.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중국의 ‘일국양제’ 방식을 부정하고 ‘일국양치(一國兩治, 분열분치(分裂分治))’의 현실적인 기초 위에 국가적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②중화문화의 기초 위에서 쌍방의 각종 영역 안에서 교류를 강화하여야 한다. ③대륙을 배후지로 해서 대만경제의 발전을 추진하고 대만의 기술과 경제경험을 제공하며, 대륙농업의 개선에 협조하며 대만의 대륙 투자와 무역을 강화한다. ④양안은 일체의 분쟁을 평화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며 아울러 중국은 대만에 대한 적대상태의 종료를 선포해야 한다(대만은 이미 1991년 대륙에 대한 적대상태의 종료를 선포했다). ⑤1997년 이후 대만은 계속적으로 홍콩과 마카오에 대한 정상적인 교류를 지속할 것이며, 쌍방은 마땅히 공동으로 홍콩과 마카오의 번영과 안정, 그리고 이 지역의 민주화를 촉진한다.

이렇게 볼 때, 대만은 쌍방의 대등한 정치

지위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발전적, 신축적인 제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리덩후이의 전략은 평화적인 입장을 유지하되, 실무적인 측면에서 양안의 관계개선을 위한 노력에 집중된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리(李)-장(江) 고위회담’을 열어서 양안의 적대상태 해소와 ‘삼통(三通: 通郵・通航・通商)의 전면적 실시 등을 의제로 삼아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고위급 회담이 ‘협상을 위한 협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쌍방의 대등한 지위 및 국가의 존엄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아울러 주장하고 있다.

리덩후이의 주장에서는 양안관계의 평등성에 대한 지적이 주목된다. 정치적으로 중국이 부정하고 있는 ‘두 개의 중국’이나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一中一臺)’을 전제로 국제참여에 있어서 동등한 관계를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대만의 입장이 비록 ‘한 나라 두 정부(一國兩府)’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외형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리덩후이의 방안은 대만의 중국에 대한 적의 해소, 상호신뢰의 배양, 공통의 염원증가 등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평화공존, 평화합작, 평화공영, 그리고 호보호리(互補互利)적 원칙하에서 상호존중의 형제수족의 정의와 양안의 전면적인 교류의 추진, 중국통일을 위한 하나의 건실한 기초를 마련하려는 입장이라고 하겠다.

이상에서 1980년부터 최근까지의 양안을 둘러싼 통일정책의 대강을 살펴보았다. 양자는 줄곧 정치적인 대결의 국면과 중국의 개방정책이 맞물리는 선상에서 상호 경제 및 문화·학술상 교류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양안의 관계는 더욱 강경한 대결구도를 보이고 있으며 통일방안에 있어서도 그 간격이 뚜렷하게 보인다. 최근의 방안을 둘러싼 양안(兩岸)의 통일문제를 보는 시각은 결국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양안의 지위에 관한 문제이다. 중국은 중양 대 지방이라는 ‘부자관계(父子關係),

즉 중국은 중양, 대만은 특구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반해 대만은 양안이 대등한 ‘형제관계’라고 생각한다.

둘째, 무력사용의 문제이다. 장(江)은 8가지 제안에서, 대만에 대한 분리독립이나 이를 부추기는 외부의 간섭에 대해 무력사용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대만은 대만과 팽호도 및 금문도 등 대만 일체의 지역에 대한 중국의 무력사용의 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셋째, 국제참여의 문제이다. 장쩌민은 여전히 대외적으로는 대만이 국제기구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한다. 리덩후이는 양안의 평등한 국제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의 대만침공 가능성

중국과 대만이 상호 갈등의 관계로 치닫고 있는 동안 중국 측은 대만에 대해 휴전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같은 군사적 제안은 사실상 아직도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가 군사적 충돌의 연장 내지는 재개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상태임을 말해준다. 말하자면 잠정적인 ‘정전(停戰)’의 요구였지만, 이미 작년 6월 리덩후이의 코넬대학 초청으로 이루어진 미국방문의 필두로 이어진 대만의 행정원장 쟈만의 유럽 3개국 방문 등으로 중국은 대만정부에 대한 군사적인 위협을 훈련과 실전의 단계로 접근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리덩후이의 미국방문을, 대만독립을 성취하기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활동공간 확대라고 해석한 중국은, 작년 7, 8월 동해에서 두 차례의 유도탄 폭격훈련, 10월 청다오(靑島)에서의 해군훈련, 11월 푸젠(福建)성에서 상륙훈련의 실시 등으로 대만을 위협했으며, 올해 들어와서는 이미 대만을 주 공격목표로 한 미사일 발사와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양안에 대처하고 있는 군사력은 양적으로 중국이 월등한 것이 사실이지만, 결코 질적인 측면에서 대만이 뒤지지 않고 있다. 중국은 전투지원과 이에 상응하는 보급(병참)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만의 전자

전(電了戰) 능력은 근 10년 동안 크게 발전하여 중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인 능력으로만 볼 때도, 중국이 대만에 대하여 전면적인 전쟁을 수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현재로서 중국의 군사적인 능력상에서 결코 모험적인 대만 공략이란 실현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발, 신속, 기만, 위협, 국부적 봉쇄, 심리전, 상륙작전에 의한 교란' 등을 전략전술상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맺음말

앞에서 살펴본 군사적 능력뿐만 아니라 그 밖에 대외관계, 대만과 기존의 경제적 협력을 통한 성장의 포기, 국제적 외교압력 등을 고려할 때 양안사태의 전면적 충돌로의 발전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방호력이 뛰어난 지역인 팽호도나 금문도를 제외한 인근 도서에 대한 점령이나, 국부적인 무력적 시위 및 제한된 공격을 결코 배제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거시적인 차원에서 중국에 유익한 선택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거의 명백하다. 따라서 중국의 대만에 대한 어떠한 군사적 조치도 그것은 하나의 위협과 국면전환을 위한 외교적 수단에 국한될 것이 분명하다.

물론 현재로서는 평화통일의 가능성도 희박하다. 지금 대륙이나 대만 양측 모두 통일할 것인가 아니면 독립할 것인가 하는 태도의 표명이 날로 긴박해지고 있다. 대만에서는 1993년을 기점으로 2대 정당(국민당, 민진당)을 주축으로 적극적인 대만 독립운동과 UN 가입에 대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의 공연한 선전포고란 매우 어렵다. 그런데 중국이 시사하는 평화적 통일의 방침이란 통일을 원하는 장징궈(蔣經國)에 대한 것이지, 대만독립을 도모하고 있는 현 리덩후이에 대한 것은 아니다. 더군다나 공산당 14대에서는 44명의 장군이 중앙위원회에 진출하여 중앙위원 총수의 23%

중국의 최근 강경노선은 결국 그들의 국제적 위상의 확고한 유지와 경제적 성장, 그리고 대만과의 관계에서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를 점하였다. 대만과의 관계에서 전쟁을 경험한 바 있는 이들이 중요한 포스트에 배치되었다는 점은, 공산당 군지휘부에 있어서 대만에 대한 지휘 시스템의 임진태세가 날로 증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1993년 하반기에는 해군 해병여단과 공수부대가 급격하게 확충되었는데, 사실 그같은 상황은 과거에 없었던 일이다. 그리고 해상전과 육상전의 훈련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군사적 움직임은 공산당이 무력에 의한 통일에 비중을 두고, 평화통일을 부차적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표출한 것이라 여겨진다.

이렇게 본다면 중국의 최근 강경노선은 결국 그들의 국제적 위상의 확고한 유지와 경제적 성장, 그리고 대만과의 관계에서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일련의 조치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의 존재는 중국의 미국, 혹은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서 매개변수로 자리매김된다.

더군다나 중국이 대내적으로 정치권력의 이행에 있어서 현재 중국군에게 대두하고 있는 임금의 현실화, 장비의 현대화, 국방비의 증액 등의 도전으로부터도 장쩌민은 완전하게 군을 장악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다. 실제로 정치적 과도기에 중국에서 군구의 동향은 잠정적인 파벌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시해야 할 부분이며, 장(江) 역시 그의 정치권력의 공고화를 위해서도 군권장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경찰과 도둑이 한 집안

현재 중국에는 ‘헤이다오(黑道)’라는 암흑가의 범죄조직과 ‘바이다오(白道)’라는 관료, 경찰이 결탁한 범죄가 비일비재하다. 범죄조직은 분명 사회를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지금 중국에서 이들은 공무원들에게 째깍한 부수입을 제공해주는 근원이 되고 있다.

상하이방(上海幫)의 우두머리 처(車)씨는 30대의 젊은 청년이다. 그는 상하이 각 범죄조직의 세력 범위를 분배, 구획하고 관련 공안의 동태를 조직원들에게 제공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거둬들인다. 한편 공안(公安)들은 처씨와 같은 범죄조직의 우두머리를 이용해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받거나, 이들의 뒤를 봐주고 돈을 챙긴다. 이런 방식으로 범죄조직과 관료, 경찰은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공생하고 있다.

“경찰과 도둑이 한 집안(警匪一家)”이라는 현상은 중국에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범죄조직은 이제 관료, 경찰의 세력을 등에 업고 중국 제2의 권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범죄조직의 범죄행각

‘흑사회(黑社會)’란 중국의 범죄조직을 통칭하는 말이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밀수, 매춘, 무기밀매, 청부살인 등 돈되는 일이면 무엇이든 한다. 그들은 상가지대를 독점하고 상인들에게 ‘보호비’를 거둔다. 거리에 매춘부들을 풀어 외지에서 온 여행객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다. 자연히 돈이 많은 여행객들은 그들의 표적이 된다. 또한 단기 체류하는 외국 사업가들의 대부분이 범죄조직의 영향권 안에 있다.

이러한 범죄조직의 범죄행각은 최근 광저우(廣州)의 일부 자영업자들이 피해사례를 공안국에 신고함으로써 서서히 그 실상이 밝혀지고 있다. 이들은 도시를 중심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합법적인 사회와 정상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불의한 경찰

정부관리와 기업가가 한 통속이 되는 ‘정경유착’은 어느 사회나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이지만, 경찰과 도둑이 한 통속이 되는 일은 매우 드물다. 세살박이 아이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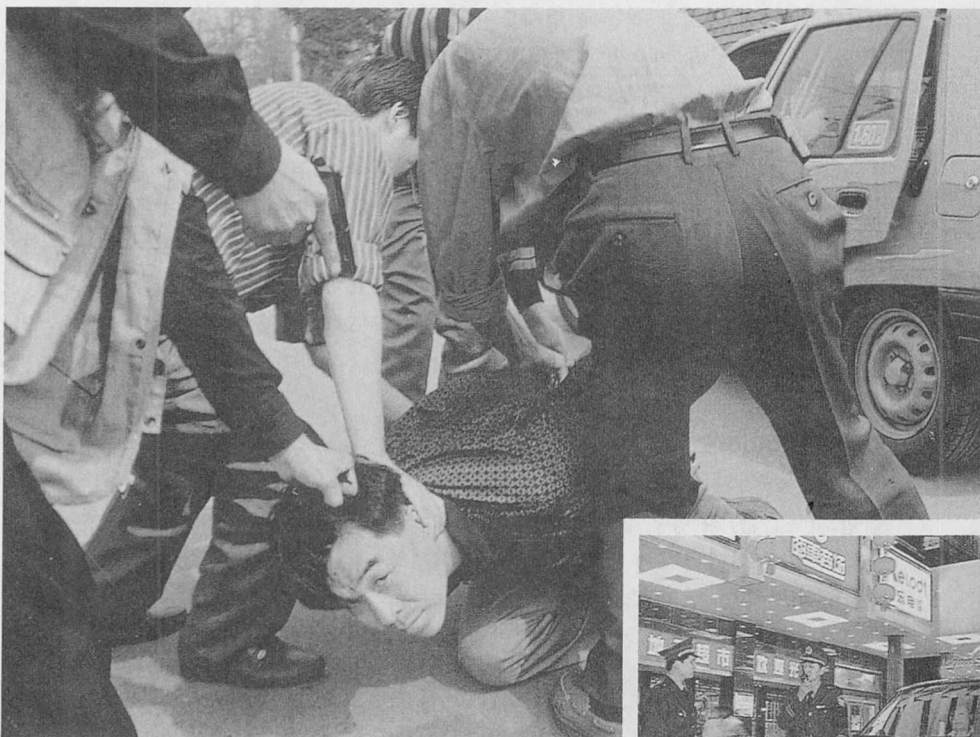
경찰은 악당을 잡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선 경찰이 강도, 도둑을 검직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경찰’은 비단 경찰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관료, 군인, 법관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4명의 경찰이 도박판을 덮쳐 도박범들을 연행하고 카드와 판돈을 몰수했다. 밤이 으스스해지자 이 4명의 경찰은 조용한 장소를 물색해 도박판을 벌인다. 이것은 그야말로 “경찰과 도둑이 한 집안”임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장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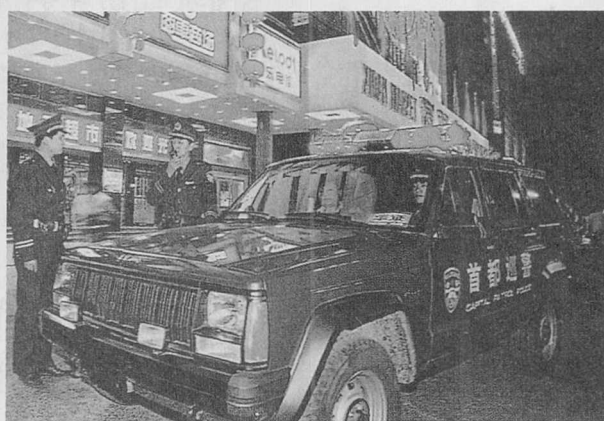
퇴폐 가라오케의 뒷배경은 공안국장

「상하이완바오(上海晚報)」 기자 세 명은 퇴폐 가라오케 업소를 취재하던 중 뜻밖에 그 뒷배경이 공안국장임을 발견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 큰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 장쩌민(江澤民)은 “나는 상하이 공안부대를 신임한다”고 일축해 버렸고, 결국 기자들은 정치적 박해를 당했다.

“사회의 안정을 위해 군과 공안의 위엄을 해쳐서는 안된다. 모든 언론은 군과 공안과 사법 부문의 어두운 일면을 기사화해서는 안된다”는 기본 방침 아래, 중국 당국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도 쉬쉬하고 있다.



수배범을 검거하는 경찰. 그러나 정말 위급할 때 경찰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시의 밤거리를 순찰하는 경찰. 얼마전 장쩌민은 경찰과 범죄조직의 연계(警黑一家)에 대노하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억류한 '병사(病死)'

'93년 5월 산시(陝西)성 안강(安康)현 가정교회의 성도 5명이 공안에게 구타를 당했고, 그 중 라이만평(賴曼平)이라는 스물두 살의 청년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공안 부검보고서의 사인(死因)란에는 '병사'로 기록되었다. 그 후 공안은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오히려 90명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체포했다.

해양 순찰대는 현대판 해적

국제해운국은 중국 해양 순찰함이 홍콩 해역에서 상선(商船)들을 억류하고 돈을 갈취한다는 제보를 받았다. 중국 외교부는 이에 대해 전혀 근거없는 일이라 잡아뗐지만, 상선을 억류한 사실에 대해서는 업무상 착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국제해운국의 조사에 의하면 중국 영해를 거쳐간 상선의 75% 이상이 중국 해양 순찰함에 억류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밀수 방지를 구실로 상선을 억류하고 돈을 갈취하는 이들은 그야말로 현대판 해적이다.

범죄조직도 애국적일 수 있다?

1984년 영중(英中)회담 직전에 덩샤오핑(鄧小平)은, "범죄조직 중에도 애국자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 마오쩌둥(毛澤東)도 제1차 내전시기에 '통일전선'의 일환으로 깡패들을 흡수해 전투력을 증강하고자 했다.

요즘 중국의 지도자급 인사들은 해외 나들이 때 범죄조직의 보위를 받는다. 중국의 범죄조직들은 사회질서와 안녕을 해치든, 선량한 백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관없이 중국 당국에 협조적이고 유익을 끼친다면 대대적인 환영을 받는다.

물론 개중에는 온전히 손발을 씻고 정당한 방법으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무리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여전히 '검은 바다'에 몸담고 있으면서 관리들과 불법적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탐관오리들이 판을 치는 사회적 상황에서 '애국적 범죄조직'이라는 평가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홍콩의 트라이어드

마피아, 야쿠자와 함께 세계 3대 범죄조직의 하나로 꼽히는 홍콩의 '삼합회(三合會)'의 향후 진로에 대해 세계 각국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홍콩의 중국 반환이 가까워지자 삼합회도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합회는 수만 명의 조직원과 막강한 자금력으로 홍콩과 동남아의 '어두운 구석'을 지배하고 있다. 삼합회는 영어로는 '트라이어드(Triad)'라 하며 삼합회의 '三'은 '천·지·인(天地人)'을 의미한다. 삼합회는 1664년 만주족이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청을 건국하자 반청복명(反淸復明)을 목적으로 결성된 비밀 결사조직으로, 중국의 국부 쑨원(孫文)도 삼합회의 회원이었다. 또 국공내전 당시 장카이스(張介石)는 삼합회를 동원해 공산당과 싸웠고, 중국이 공산화되자 이 조직은 대거 홍콩과 대만으로 건너갔다. 이후 삼합회는 정치적 성격이 거의 소멸된 범죄조직으로 변모했다.

현재 홍콩에는 14K그룹, 유니이트 뱀부 등 50여 개의 삼합회 조직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마약거래, 밀수, 도박, 매춘, 청부살인 등 각종 범죄에 관련되어 있다.





'60년대 이후 주로 유홍업, 카지노, 경마사업에 진출, 합법화에 성공한 삼합회는 홍콩 반환을 앞두고 순조로운 홍콩 이양과 삼합회의 막강한 자금력을 탐내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묵인하에 중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관료, 경찰, 범죄조직의 경제범죄 커넥션

중국 런민(人民)대학 출판부가 출판한 「중국당대 사회범죄 조감(1989)」은 특권층과 범죄조직의 담합을 서술, 분석하고 있다. 이 책에 의하면 중국 특권계층은 금전과 권력으로 양분, 이원화되고 있으며 금전과 권력의 교류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이 부패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기율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82년부터 '89년까지 4년 동안 전국 당원 간부의 위법 사례는 약 46만여 건으로 거의가 부정부패 관련 범죄였다. 또한 지난 '95년 한 해 동안의 경제범죄는 '94년보다 38.8%나 증가한 8만 3천6백85건으로, 이 가운데 횡령, 공공유용이 전체의 76.4%를 차지했다.

‘상첸칸(向錢看)’이라는 시대적 조류가 사회의 감독자 입장인 정부 관원들의 이성까지 마비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들의 배후에는 늘 ‘검은 친위대’가 있다. 썩은 물이 고인 곳에는 벌레가 끓기 마련이듯이 부패한 권력가들과 범죄조직은 자연스럽게 관련을 맺게 된다.

범죄조직은 그들 나름대로 방패가 될 배경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불법적인 사업의 전개를 위해 ‘여러 방면’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여러 방면이란 공안, 세관, 국세청, 정부부문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밀수집단과 정부 관원, 공안의 결탁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관료와 범죄조직의 결탁은 경제범죄의 증가와 함께 살인, 강도 등 흉악범죄의 발생 건수를 증가시키고 있다. 중국의 관료와 경찰, 범죄조직이 깊숙이 연계된 경제범죄 커넥션이 중국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는 것이다.

“낙엽이 한 잎 지면 가을이 왔음을 알 수 있다”는 중국 속담처럼, 하나씩 드러나는 관료, 경찰, 범죄조직의 범죄는 “경찰과 도둑이 한 집안”인 현상이 중국 사회의 사방에서 일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참고자료

「爲黑社會掌腰目的何在」(爭鳴, 93. 5)

「警匪一家 現象」(爭鳴, 94. 2)

북방저널(96. 4, 대륙에 번진 ‘黑道’, ‘白道’)

조선일보(94. 4. 15), 동아일보 (96. 2. 2)

설교단 조직, 농촌교회 순회

말씀을 들려달라는 농촌교회 신도들의 열화와 같은 요구에 부응해 저장(浙江)성 후저우(湖州)시 기독교 협회는 농촌 순회설교단을 조직, 농촌 신도들의 갈급함을 해소해주고 있다. 지금까지 37차에 걸친 순회설교 여행을 하였고 만여 명의 신도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다. 특별히 수많은 청년 성도들이 그들의 설교를 듣기 위해 그들의 순회일정을 그대로 따라다니기도 하여 순회설교단의 활동이 목회자가 부족한 중국의 현실에서 아주 유효한 복음전파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다.

평신도 사역자 훈련 활발

지린(吉林)성 지린시 기독교 협회는 전도인 부족현상을 타파하고자 작년에 평신도 훈련반을 개설하였다. 3학기 과정의 훈련반은 1학기(1개월)를 학습한 후, 고향 교회로 돌아가 3개월간 실습을 하고 다시 돌아와 학습하는 등의 방법으로 1년간 진행되었다. 훈련반 교육은 설교와 기도 능력에 중점을 두었다. 123명이 정식으로 과정을 마쳤으며, 이외에도 처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도자들 중에서 40여 명 정도가 청강생으로 참가하였다.

화이빈교회, 교회당 찾아

허난(河南)성 화이빈(淮濱) 교회당은 1949년 이후 줄곧 지역 물자조달청으로 사용되었었다. 이 지역의 간부들이 종교정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관계로 1980년대에도 계속 교회로 환수되지 못했으며, 신도들이 여러 번 이에

대해 진정서를 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작년 말 현 정부와 당 위원회가 개입하여 교회당이 마침내 신도들에게로 되돌아 왔다.

교회 내 여성사업 강화 촉구

중국 기독교협회 여성위원회 회장 왕취젠(王菊珍)은 중국 교회 내 여성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그녀는 중국 교회 성도중 약 오백만 이상을 여성이 차지하고 있어 “여성의 강화는 곧 교회의 개발”을 의미한다고 했다.

왕취젠은 여성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범 성(省) 차원의 기독교협회가 여성선교위원회를 세워야 하며, 여성교육에 관해서는 ‘성경읽기반’이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성경읽기반은 문맹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여성들의 신앙의 기본 이해에도 많은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왕은 또한 현지 교회와 성 기독교협회가 더 많은 여성에게 지도력을 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시아교회협의회 중국에서 역사적인 첫 모임

아시아교회협의회(CCA)가 지난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중국기독교협회와 공동으로 ‘아시아인의 눈으로 성경읽기’라는 주제하에 난징(南京)에서 청년 신학자협의회를 가졌다. CCA 청년국장은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으로 중국 기독교협회 소속의 젊은 신학자 10여명과 해외의 젊은 신학자 25명, 특히 대만장로교회에서 3명의 신학자들이 참가하여 이 모임의 의의를 더욱 높였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 주요한 주제의 하나는 다양한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협의회에서는 중국 교회의 신앙고백, 복음과 문화에 대한 아시아인의 입장 등이 발표되었는데 발표된 제목들을 보면 “가난한 이들의 눈을 통한 성경 읽기”, “여성의 눈으로 본 성경 읽기”, “신학적 상황으로서의 아시아의 현상” 등이었다.

장쑤성 등록활동 순조로이 끝내

종교활동에 관한 등록활동이 성도들, 교회 그리고 정부관리 모두에게 비교적 만족스럽게 진행되고 있다고 종교국의 기독교 담당자 샤광이(沙廣義)가 밝혔다. 장쑤(江蘇)성은 1993년 기독교 성도수가 800,000명에서 1995년에는 890,000명으로 증가하였고 이들의 3/4은 성 북부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장쑤성은 일부 이단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아주 정상적으로 성장 발전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고 샤 처장은 밝혔다. 샤 처장은 등록활동을 가능한 순조로이 진행하기 위하여 성 통일전선부, 민정국 그리고 경찰과 협조하여 특별등록 사무실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등록활동을 개시하는 지역마다 찾아가서 지역 텔레비전과 신문 등을 통해 불필요한 공포감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불법 종교시설물 철거 캠페인

저장성 정부는 합법적인 종교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법적으로 세워진 종교 시설물 즉 묘지, 사찰, 교회 등에 대한 철거

캠페인을 벌였다. 3월에 시작되어 4월에 끝난 이 활동은 주로 비합법적 묘지건설에 방향을 맞추고 있으며 종교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여겨질 만한 근거는 아직 찾아볼 수가 없다고 저장성 기독교협회 총간사인 덩푸춘(鄧福春) 목사가 밝혔다. 캠페인의 진정한 의도는 관광상품으로 제조된 교회나 사찰을 철거하기 위한 것이다.

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 주로 교사들과 사업가 등 30여명 이상의 교인들이 한 달에 두 번씩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또 아프리카 기독교학생 예배가 1980년 초반부터 시작되었는데, 최근까지 대학교 강의실을 전전하며 예배를 드리다가 난징신학교 회의실을 예배장소로 승인받아 이미 일 년 이상 모임을 해오고 있다. 지난 부활절에는 양측 목회자

(徽)성 당산(湯山)현의 서북쪽 교동이 폐쇄되고 외진 황하강 옆에 위치하고 있다. 고정적인 예배장소가 마련된 후 성도들의 노력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던 상황이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되었다. 몇몇의 자원해서 섬기는 성도들이 양육사역을 담당하고 영성을 키워 설교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또한 이 지역에 위치한 농촌교회의 활동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심방을 하여 계속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비록 '영영교(靈靈教)', '상주주(常受主)', '빌립왕(被立王)' 등 이단교의 유희도 있었지만, 이곳은 어떠한 이단조직도 발을 들여 놓지 못했다. 올해 1월 5일 열린 제5기 부흥회에서 뜻밖의 많은 효과를 거두었다.

기독교 점점 부흥 발전

쓰촨성 동부에 위치한 안웨(安岳)현의 기독교는 이미 10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뒤에 좌파 노선의 방해로 교회가 문을 닫고 혼란상태가 끝난 뒤에도 '복음당'에 의해 훼손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게 되었지만 성도들은 가정에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섬겨왔다. 그러나 형제자매들은 실망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 성도가 많이 증가했고 사회에 여러 가지 봉사를 하여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작년 7월 안웨현 기독교는 정식으로 종교활동을 회복하여 각 지역 형제자매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天風」 96. 5

번역·정리/김은희·본지 편집기자



성만찬을 거행하는 중국 교회 모습

성장하는 난징 외국인 예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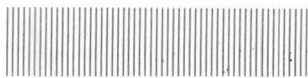
중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인 예배가 중국 여러 도시에 개설되어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난징(南京) 외국인 예배 모임은 1986년 시내 중심가에 있는 성 바울 예배당에

3명이 공동으로 집례한 가운데 난징신학교 학생들과 성만찬을 거행하기도 하였다.

「중국교회」 96, 5/6

자원봉사자 활동으로 이단 억제

리우러우(劉樓)교회는 안후이(安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

허드슨 테일러

1859년 그해 초에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이번 일은 이전과 아주 다른 경험이었는데 그 의미는 대단히 중요한 것이었다.

나의 사랑스런 아내가 병이 들어 회복될 가망이 없을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모든 방법을 시도해보았지만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 치료를 맡은 파이커 의사도 속수무책일 따름이었다.

아내의 생명이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 같았을 때, 나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셨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주님의 뜻 가운데 아내는 건강을 되찾았다.

당시 선교사들의 기도회는 보통 오후에 열리곤 했다. 아내가 투병 중에 있을 때, 그들에게 아내를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고 그들은 열심히 중보기도 하였다. 바로 그 때, 내 머리 속에 아직까지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치료



법이 떠올랐다. 즉시 달려가 파이커와 상의하여 그 치료법을 아내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만 했다. 그 시간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두 볼과 눈이 움푹 패인 아내의 초췌한 모습은 정말로 죽어가는 사람 같았다. 내가 파이커에게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목숨을 지탱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다.

파이커 의사의 집은 우리 집에서 2리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그

집으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디딜 때마다 왜 그리 멀게만 느껴지던지. 가는 길에 난 필사적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바로 그 때 능력이 충만한 주님의 말씀이 내 맘 가운데 들리기 시작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네가 나를 높이리라.”

하나님께 간구한 결과 난 즉시 믿음의 능력을 얻었고,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해졌다. 이제 길이 멀게 느껴지지도 않았다. 파이커는 내가 제의한 방법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병세가 크게 호전되어 있었다. 파리하고 초췌하던 얼굴은 이미 편안하고 고요히 잠든 얼굴로 바뀌어 있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랑하는 아내를 잃지 않도록 하셨다. 그러나 나는 이

사건을 통해 파이커에게 특별한 동정과 슬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같은 해 가을, 그의 아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파이커는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엄마를 잃은 아들 딸들을 글래스고우(Glasgow)로 돌려보내야만 했다. 그래서 우리는 닝뽀 복음병원의 사역을 위해 임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이 병원은 지금까지 파이커 의사 혼자 책임져 왔었는데, 이런 상황이 닥치자 그는 내게 이 병원의 책임을 맡아 줄 것을 부탁하면서, 최소한 집에서 진찰만이라도 맡아 주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린 지 며칠 후, 집에서 진찰을 계속할 뿐 아니라 병원 일도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뢰할 뿐이었다.

그 동안의 병원 경비는 파이커 의사가 현지에 사는 외국인들을 치료하고 얻는 진찰비에서 충당해왔다. 이제 그가 떠나면 이 수입은 중단될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무릇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라”

또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던가? 이 모든 약속으로 인해 우린 이미 충분히 승리할 수 있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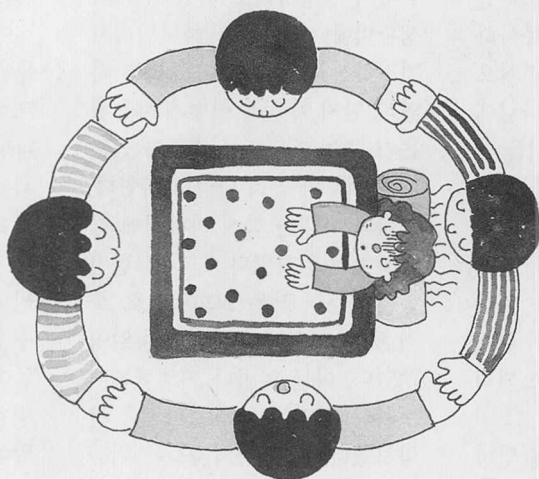
병원을 책임지기로 결정하기 일주일 전만 해도 내가 이런 선택을 하리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식구와 동기들은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그러나 이때 주님은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병원 경비도 준비하시는 중이었다.

병원은 대체로 입원 환자가 50

명이 넘기 일쑤이고 매일 찾아오는 외래 환자도 적지 않았다. 보통 30개의 침대가 무료 환자와 그들의 간호를 맡은 일꾼들에게 분배되었다. 이 밖에도 아편 환자들을 위해 30개 가량의 침대를 남겨두었다. 그들은 아편중독을 치료하는 동안만큼은 입원비용을 내야 했다.

입원 환자에게는 모든 것을 무료로 제공하였다. 진찰 시에 필요한 약품값까지 합치면 매일 이들을 위해 지불되는 경비는 실로 엄청난 액수이다. 게다가 일꾼들에게 급료까지 지불해야 했다.

파이커 의사가 병원 관리를 나에게 일임하였을 때, 그가 남긴 돈은 한 달 급료와 기타 약간의 지출만 할 수 있을 정도였다. 이후의 경비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가운데 내가 맡게 된 것이다. 일꾼들에게 급료를 지불한다고 보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중국인 일꾼들을 모두 내보낸 후, 이런 사정을 우리 작은 교회의 성도들에게 알렸다. 그 중 몇몇 성도들이 봉사하러 왔다. 그들은 나와 함께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것을 기다렸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남은 돈도 점점 없어졌다.

곧 공지에 물리게 될 즈음, 나는 영국에서 보내 온 한 친구의 편지를 받았다. 거기에 50파운드 짜리 수표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그 친구는 편지에, 최근 부친상을 당하여 유산의 일부를 받게 되었는데, 이 유산을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지 않고 주님의 귀한 사역에 쓰기

로 결정했다고 썼다. 50파운드를 어떤 사역에 써야 할지는 내가 잘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였다. 나의 생활비에 써도 좋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사역에 써도 좋다고 하였다. 단지 이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또다른 필요가 있는지의 여부만 알려 달라고 하였다.

나와 아내는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다. 그리고 현지 동역자들을 작은 교회당으로 불러 모아 이 편지를 번역하여 읽어 주었다. 다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현지 동역자들은 기쁨으로 병원에 돌아가 환자들에게 신실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였다. 아울러 그들에게 이

렇게 질문을 던졌다.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렇게 당신을 도운 적이 있습니까?”

이번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통해 환자들과 일꾼들 모두 영적으로 큰 복을 받았다. 이로부터 하나님은 이 병원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셨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필요한 생활비와 기타 선교사역도 풍성하게 지원해 주셨다. 9개월 후 내가 건강이 좋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병원 사역의 직분을 내려놓아야 했을 때, 우리 수중에 남은 병원 유지비는 우리가 막 이 일을 맡아서 시작할 때와 비교할 수 없이 충분했다.

주님은 재정적인 면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을 뿐 아니라,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시고 치료해 주셨다.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환자가 뜻밖에 회복되고, 매우 힘들고 위험한 수술도 성공하였다. 가난에 시달려 온 한 사람이 환경과 설비가 매우 열악한 가운데서 두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았는데, 건강이 놀랍게도 빨리 회복되어 두 주도 안되어 상처가 모두 아물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보다 더 영원한 복을 내려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믿음과 기도로 구주를 찾은 그들은, 영혼을 고치시는 위대한 의사 예수 그리스도의 큰 능력을 체험하였다. 9개월 동안 병원에서 16명이 세례를 받았고, 닝보에 있는 각 교회에 등록된 사람은 30여 명이나 되었다.

이로써 1860년부터 우리들은 각 방면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였다. 그러나 시간과 일손이 지극히 부족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 한동안 일손이 부족한 것이 가장 절박한 문제였다. 1월에 우리들은 주님께, 전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이 지역 중국을 위해 추수할 더 많은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구하였다. 1860년 1월 16일, 나는 영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편지를 써서 심중의 갈급한 소망을 전하였다.

“당신들이 아는 성실하고 충성스런 청년 중에 중국에 와서 주님을 섬기며, 생활의 필요 외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중국인들을 섬기기 원하는 이 어디 없습니까? 아! 그런 사람 4~5명만 와서 우리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을

까요? 그들이 오면 대략 6개월 후엔 중국어로 전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우리는 그들의 생활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다. 파이커 의사가 떠난 후, 병원 관리 책임과 또 기타 전도사역으로 인한 과로로 인해 나의 몸과 심령은 많이 지쳤고 건강도 급속도로 쇠약해졌다. 한동안 영국에 다녀오는 일이 심각하게 고려해 보아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 문제는 결코 쉽게 결정할 수 없었다. 현재 확장되고 있는 교회와 복음사역은 모두 우리들이 떠나지 말 것을 요구했고, 우리 역시 주님을 진정 사랑하는 중국의 형제자매들을 떠나는 것이 안타까웠다. 최근 세워진 교회에는 매주 30~40명의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증가되었다. 사람들로 가득한 집회, 열심과 간절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신도들...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광경은 그야말로 희망에 가득차 있었다.

그러다가 드디어 난 여러 번 쓰러져 완전히 탈진 상태에 이르렀다. 회복을 위해 고향에 돌아가 비교적 쾌적한 영국 날씨 속에서 잠시라도 쉬어야만 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 것이 당시로선 대단히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후에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를 드러내는 놀라운 기회가 되었다. 그분은 본래 ‘자신의 뜻에 따라 만유를 운행하시는 분’임을 증거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전과 다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비를 공급하여 주셨고, 오

히려 경비가 충분하여 한 중국인 형제와 동행할 수도 있었다. 그를 통해 우리는 통역과 기타 문서 사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영국의 크리스천들이 중국에 와서 전도하는 동역자가 되도록 영국에서 중국어를 가르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전도의 동역자를 예비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었다. 수개월 전 이미 그들을 위해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렸기 때문이다.

중국을 떠나기 전 우리는 영국에 있는 친구 베가(Mr. W. T. Berger)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그 동안 멀리 타국에 있는 우리들을 주 안에서 끊임없이 격려하고 지원해 준 형제이다. 우리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는 한 젊은 중국인 형제와 동행합니다. 그가 문서 방면의 사역을 돕고, 아울러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와 함께 중국에 가기를 희망하는 젊은 형제들에게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 가운데 우리들은 중국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우리가 고향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저장(浙江)성에서 일할 최소한 5명의 동역자를 불러주시도록...

다음 호에 계속

하늘을 나는 종달새

링허(靈鶴)



나는 나면서부터 일생을 침대에
서 보내야 할 운명이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건강한
두뇌를 주셔서 생각할 수 있고 말
할 수 있게 하셨다. 또 건강한 두
손을 주셔서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도 있다. 비록 학교 교육은 받지
못했지만 복음방송을 들으며 혼
자 공부하여, 한어병음(漢語拼音
-중국어 발음의 알파벳 표기: 역
자주) 자모를 다 익혔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게 되었다. 나는 이
제 한어병음을 다 외워 쓸 수 있
다. 또한 노래를 작곡하여 하나
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
나에게 생겼다.

근심과 환난 가운데 태어나다.

나는 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
다. 부모님은 아이를 3명 낳은 후
에 다시 낳지 않을 생각으로 여러
차례 인공유산을 했다. 그러나 그

후에 아버지의 권유로 어머니는
또 아이를 가졌고 기형아인 나와
내 동생을 낳게 되었다.

우리 두 사람은 다른 사람의 보
살핌이 필요했다. 동생은 일어나
앉아 있을 수 있는 정도여서 나보
다는 조금 나왔지만, 나는 계속 침
대에 누워 있어야만 했다.

나와 동생의 신체적인 장애는
우리 가족을 매우 어렵게 했다. 그
러나 어머니는 신앙이 있었던 까
닭에 우리를 돌보는 것을 힘들어
하지 않았고, 우리들이 하나님
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믿고 있었
다. 그러나 아버지는 우리를 귀찮
은 존재로 여기고 항상 우리에게,
“너희들 언제 하늘나라에 갈 거
냐?”고 묻곤 하였다. 어떤 때는 나
도 화가 나 “내가 언제 죽든지 상
관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저보다
먼저 같지 않아요!” 하고 대든 적
도 있다.

부모님은 우리의 신체적인 장
애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셨다. 어머니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셨지만, 아버지는 우
리를 비롯한 모든 환경을 너무나

힘들어 숨조차 쉴 수 없는 생활의 짐과 부담으로 생각했다. 나는 신앙이 있고 없는 것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삶의 태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몸의 질병은 내가 인생에 대해 더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 어렸을 때는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머니가 말씀해 주시는 천국이 곁으로 보기에 무척 아름다울 거라고만 생각했다.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태도였다. 그러나 어머니는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고 말해주셨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내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참 하나님’으로 나타나주셨다.

둘맹이도 고개를 끄덕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견뎌 올 수 있었다. 어머니가 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지도 이미 11년이 되었다. 그런데 성질이 급하고 거친 아버지는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며, 어머니를 몹시 경멸하였다. 심지어 때리기까지 하였다.

어머니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같이 싸우고, 아버지를 힘으로 못 이겨낼 때는 꼬집기도 하였다. 그러나 신앙을 갖게 된 후로는 아버지가 때릴 때면 그냥 웃어넘겨 버렸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예수님 믿는 것을 고집했기 때문에, 내 기억으로는 부모님들이 사흘이 멀다 하고 싸웠던

것 같다. 나는 아버지만 안 계시면 우리 집은 천국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만 집에 돌아오면 우리 집은 지옥으로 변했다.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 번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심하게 다투었는데,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며 성경을 발로 짓밟았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말로 혼내주셨다!

얼마 후 아버지가 다니고 있는 공장 옥실의 수도꼭지가 고장이었다. 한 아이가 “아저씨, 수도꼭지가 고장났어요. 가까이 가지 마세요. 물이 뜨거워 데일거예요.”라고 말하였다. 아버지는 “그까짓 것 관찰아!”라고 했는데,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와 왼쪽 상반신과 오른팔 및 손을 데었다. 그는 몹시 괴로워하며 집으로 돌아왔고, 우리 식구들은 하나님이 정말 그를 혼내시는 것 같아 마음 속으로 고소하다고 생각했다.

또 한번은 아버지 휴가 때 부모님이 다투었다. 아버지는 분풀이로 성경을 찢었다. 이튿날 아버지가 출근한 후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했고, 성경을 한 장 한 장 붙여 원래의 상태로 만들었다. 이 사건 이후에도 아버지의 거친 성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는 공장에서 갑자기 쓰러져 일어나질 못하였다. 처음에는 방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후에 병원에서 진찰한 결과 위암이라는 것을 알았다. 아버지는 평소애 매우 건강하던 사람이었는데 갑작스레 이렇게 큰 병에 걸린 것이다.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하자 어머니는 그를 위해 금식기도를 시작했다. 병이 고침 받아야 할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하였다. 아버지가 입원하러 떠날 때 우리에게 한 달 후에 돌아오겠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러나 그때 가신 뒤로 다시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병원에서 그는 수술을 받았지만 한 시간만에 끝났다. 의사가 암이 이미 말기가 된 것을 발견하고 수술을 그만둔 것이다. 의사는 암세포가 위(胃) 뒤쪽에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었는데, 허리 부분까지 번지고 있어 뿌리를 제거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만약 다른 사람 같았으면 고통을 참지 못했을 텐데, 아버지는 의지력이 매우 강해 지금 이 상태까지 와서야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의사는 말하였다. 앞으로 2개월 정도 살 수 있다고 하였다.

그때서야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스리셨다는 걸 느끼셨나 보다. 밤중에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죄를 사해 주시기를 기도하였다. 그는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였고 나와 동생에게, 그의 공장 동료들에게도 용서를 구하였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였다. 이전에 자신만만했던 아버지가 지금에 와서 자기의 결점을 깨닫고 죄를 인정하며 회개한 것이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가능했다.

후에 아버지는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병이 악화되었지만, 누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만 들으면 엄지 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좋다는 뜻을 나타내었고, 예수를 믿지 않



는다면 작은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위암으로 아버지는 3개월 동안 매우 고통스럽게 보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원래 그렇게 건강하던 아버지였는데 죽음 직전 그의 몸은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그리고 기름이 다 말라버린 것처럼 아주 야위었다. 그의 내장은 전부 썩었고 눈은 폭 꺼졌으며 고통으로 매일 매일 울부짖었다. 의사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아버지는 죽기 전에 예수님이 동행하심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천국에 갔다.

집이 바뀌는 어려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집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으나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가 된 우리를 돌보셨다.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하나

님께서 주신 것이다. 8년 전, 아버지가 일하던 단위(單位: 중국에서는 국가에서 배정해 준 직장을 단위라 한다-역자 주)에서 기사(engineer) 아파트를 지으려고 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무렵 공장에서는 우리들을 위해 집 한 채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였고, 집이 다 지어지자 약속대로 집 한 채를 주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이가 자기 집이 비가 오면 물이 새는 등 좋지 않음에 불만을 느끼고 우리 집을 넘보기 시작했다. 그는 단위 책임자에게, 우리들은 기사가 아닌 노동자에 불과한데 왜 기사 아파트에 들어가 사냐면서 자기 집과 우리 집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어머니는 열쇠 3개를 단위 책임자에게 주었다. 단위 책임자가 우리에게 집을 바꾸라고 했을 때 어머니는 매우

화가 났지만 열쇠는 이미 반납해 버린 뒤였다.

그 집이 아직 완전히 지어지기 전 한 젊은이가 도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가 갈 때 어머니는 그에게 열쇠를 달라고 했다. 그는 윗사람이 절대로 열쇠를 어머니에게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하며 주지 않았다. 이에 어머니는 “내가 먼저 집을 보고 나서 문을 다시 잠그겠다”고 말하였다.

도배공이 가고 난 뒤 어머니는 나는 듯이 집으로 돌아와 언니에게 이사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한 시간도 못되어 이사는 끝이 났다. 그러나 공장 안의 사람들은 이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고, 만약 우리들이 계속해서 살면 웃음거리로 만들어 놓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그러나 이웃들은 전부 힘을 합해 우리를 도와주었고, 우리에게 절대 양보하지 말라고 하

였다. 이렇게 해서 결국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을 지킬 수 있었다. 그렇게 되기까지 어머니와 우리가 겪어야 했던 서러움과 절망감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심으로 평안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이다.

믿음의 노래

나는 자주 복음방송을 들었던 까닭에 어려서부터 음악을 매우 좋아했다. 혼자서 흥얼흥얼하며 노래하였고, 악보를 읽는 데 재능이 있었는지 금방 노래를 배워 부를 수도 있었다. 아마 하나님이 나를 무척 사랑하시나 보다. 나는 감동 받아 영감이 떠오를 때면 악보에 음표를 잡고 작곡을 하여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비록 나의 몸은 불구지만 하나님이 자신을 증거하라고 나를 이렇게 만드신 것 같다. 하나님은 내가 기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대하기를 바라셨다. 또한 그분은 내게 하나님을 믿는 자상한 어머니를 주셨고, 성경의 진리를 보여주셔서 내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복음을 전하는 그 큰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더욱이 낮은 사람들만 보면 먼저 두려워하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2년 전에 신기하게도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의 소식과 성경의 진리를 조리있게 전하는 꿈을 꾸었다. 꿈에서 깨고 난 뒤, 어머니에게 그 꿈을 말하였다. 어머니는 “아마 하나님이 너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증거를 보여 주신

꿈일 게다” 라고 말해주셨다. 이후 얼마의 시간이 지난 뒤 나는 정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한 가정 모임에서 사람들과의 사귀를 통해,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였다. 식도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적도 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성경학원’, ‘방송 교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을 받았고, 집에서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서 확실히 발견할 수 있을까?’ 생각하곤 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은 후에 로마서에서 이런 구절을 발견하였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보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다. 그는 결코 우리와 그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기다렸다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다. 아무 조건 없는 사랑, 바로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다.

이제 나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의 일상 생활의 경험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작곡의 재료가 된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며 나의 영원한 주님이시다.

<中國與福音> 제9기에서 발췌
번역 / 김은희·본지 편집기자

전 생

미전도 종족

‘족속’ 또는 ‘종족’이란, 민족이나 국가와는 다른 개념으로 언어와 문화와 사회적 동질성을 가진 일군의 사회집단을 말한다. ‘미전도종족’이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기독교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나 들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족속을 복음화할 교회가 없으며, 자기들의 말로 번역된 성경이 없는 종족들을 일컫는다. 이들의 인구수는 약 23억 명 정도이다.

학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세계의 종족은 약 26,000여 종족으로 추산되며, 이 중 15,000여 종족에게는 이미 복음이 들어갔고, 이들은 자체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 반면 전세계에 약 11,000여의 미전도 종족이 존재하는데 이들을 좀 더 세분하여 살펴보면 회교도가 3,700, 아프리카 부족들이 2,800, 힌두교가 1,800, 중국인이 900, 불교도가 900, 기타 900여 종족이다.

이들의 거주지는 10/40 창 지역에 대체로 밀집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창의적 접근 지역(전통적으로 선교사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극심한 가난과 기아, 빈곤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또한 이슬람, 불교, 힌두교, 공산주의 등이 지배하고 있어 영적으로는 사탄이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있는 어두운 지역이다.

제2편 중화민국 산둥성 선교시기

(1917~1924)

제2장 중화기독교회 교동노회 소속 선교시기(1920~1924)

중화민국 선교사 홍승한 목사 (Ⅲ)

1. 교동노회 홍승한 지방과 담당 교회들

1919년 11월 산둥, 교동 량 노회의 찬성, 허락으로 조선선교회 선교구역이 확장되면서 조직 교회 5처, 미조직 교회 6처, 복음당 6처, 학교 8처와 중국전도인 19명을 맡게 되었다.¹⁾ 조선선교회 선교지역이 넓어지면서 홍승한 목사는 박상순 목사와 같이 산둥노회에서 교동노회로 이명을 하게 된다. 홍목사는 교동노회 소속 7지역에 위치한 교회 및 복음당을 맡게 되었는데 일곱 곳에 중국인 장로가 5명 시무하고 있었으며 남전도인 5명, 여전도인 1명이 섬기고 있었다. 홍목사가 맡게 된 교회중에 장관채, 조격장, 주모 교회는 1920년 6월에 교동노회에서 인수한 교회로 장로와 집사, 전도인을 둔 교회였다.²⁾

홍목사는 1920년 초부터 담당하게 된 일곱 곳에서 오래 활동치 아니하였으며 그가 맡았던 교회와 지방이 1921년 9월부터는 박상순 목사의 지방으로 변경되었다. 이제 홍승한 목사가 단기간 맡았던 교회와 지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겠다.

1) 산둥 래양 서남편 선교지방과 교회들

가. 조격장(趙格庄)

래양 서편에 위치한 조격장교회는 장로 1명, 집사 2명, 남전도인 1명을 둔 교회로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으며 세례교인이 45명에 교인 총수가 60명으로 평균 40여 명이 출석하는 교회였다. 홍목사가 조격장교회를 인수받은 해인 1920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평균 연보액이 한 푼도 없는 교회로 되어 있다. 교인 60여명에 장로, 집사까지 둔 교회가 연보하는 일을 게을리 하였던 것이다.

조격장에는 남학교가 1처 있었는데 남자 교원 한 명이 15명의 남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었다. 조격장에 있는 남학교는 선교회 소속 학교로 보여진다.

홍목사가 맡았던 조격장교회는 1921년 9월부터는 박상순 목사 지방으로 편입되었고 조직 교회중 한 교회로 발전하게 되었다.³⁾

나. 장관채(張官寨)

래양 서편에 위치한 장관채교회는 예배당 1처와 예배처소 1처가 있는 교회로 장로 2명과 집사 2명 그리고 여전도



김교철

중국선교연구협회 상임총무, 연구원, 선교사, 대한예수교장로회 부개동교회 영어 및 중국어 예배 담당교역자, 기독교대한감리회 선린교회 중국인 토요집회 담당자, 인천 외국인근로자 선교협의회 운영위원장.

1)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 제 9회회록, (1920), pp. 34~35. 이하 "총회록"이라 약칭함.

2) 박상순, "산둥선교의 과거와 현재", 신학지남, 제17권 제6호, (1935. 11), p. 340., 총회록, 제9회, (1920), p. 49.

3) 총회록, 제11회, (1922), p. 95., 총회록, 제9회, (1920), pp. 49~51.

인 1명에 세례교인 포함 95명, 교인총수 100명, 평균 65명이 출석하는 교회였다. 조격장교회보다도 큰 교회였으나 역시 매주 평균 연보액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연보할 줄 모르는 교회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장관채에도 선교회 관리하에 있는 남학교가 1처 있었는데 남자 교원1명에 남학생 18명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 소규모의 학교로 초등교육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⁴⁾

장관채교회 역시 1921년 9월부터 박상순 목사 지방으로 편입되었고 장로가 2명에서 4명으로 증가되었다. 장관채교회는 본래 교인의 집을 빌려서 예배당으로 사용하던 교회로 정식 예배당이 없는 교회로 지냈으나 1922년 봄에 장로 왕서산 씨가 수백원 가치되는 기지와 가옥 3칸을 연보하게 되자 모든 교인이 감동을 받고 열심히 연보하여 예배당 5칸을 자력으로 건축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⁵⁾

연보할 줄 모르던 교회가 자력으로 예배당을 건축하게 된 것은 의미있고 특별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알렌 클락(곽안련) 선교사는 그의 글에, 1920년 이전에 중국 교회가 자담하여 예배당을 건축한 일이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즉 조선선교회가 인수받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는 미국전도국이 만원을 들여 지은 것이고 중국 교회가 자담하여 지은 적은 없었다고 기록하였다.⁶⁾ 장관채교회는 예배당을 자력으로 건축하였고 1923년도 보고서에 의하면 권찰 5인을 택하여 교인을 돌보며 권하여 교회를 살피게 하였던 것이다.⁷⁾

다. 담명장(譚明庄)

담명장에는 복음당 1처에 남전도인 1명과 집사 1명, 세례교인 6명이 전부였다. 예배에 참석하는 인원은 평균 7명에 역시 연보는 안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개척단계에 있는 지방교회로 보여진다.

담명장에도 남학교가 1처 있었고 남교원 1명에 남학생 28명이 있었다. 담명장은 교회보다는 학교가 더 활발하여 교회용비가 2원이었으나 학교용비는 85원으로 나타나 있다. 담명장에 관한 보고가 1920년도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삭제되어 있는데 자세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⁸⁾

라. 원상(院上)

래양 서편에 위치한 원상에는 남전도인 1명에 세례교인 3명, 교인은 모두 6명에 평균 4명이 출석하는 개척 단계의 미약한 곳이었다. 예배 처소조차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연보에 대한 기록도 전무하다. 원상은 홍승한 목사가 담임하다가 1921년 9월부터는 박상순 목사 담임 지방으로 바뀌었다.⁹⁾

마. 주모(朱毛)

래양 서편에 위치한 주모교회는 타 교회보다 비교적 규모있는 교회로 장로 2명에 집사 2명 남전도인 1명이 교회

를 섬기고 있었으며, 세례인 및 교인 포함 29명에 평균 회집 수는 20명인 교회였다.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으나 1920년도 통계에 연보를 드리는 교회라는 증거가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¹⁰⁾

주모교회 역시 1921년 9월부터는 박상순 목사 지방으로 편입되었는데 본래 평안치 못하던 교회였으나 조선선교회로 온 후 하나님의 권능으로 평화케 되었다고 한다.¹¹⁾

바. 고현(古峴)

홍승한 선교사가 남전도인 1명과 같이 고현에서 전도하기 시작하여 복음당을 설립하였고 당시 교인은 2명으로 보고되어 있다. 고현도 1921년 9월부터는 박상순 목사 선교지방으로 편입되었으며 부흥하기 시작하였다.¹²⁾

사. 려격장(呂格庄)

려격장에는 집사 1명, 남전도인 1명에 1920년 3명이 세례를 받아 세례인이 15명, 평균 12명이 회집하였고 예배당이 있는 교회였다. 남학교도 1처에 교원 1명, 학교용비로 55원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홍승한 목사 담당 지방이었으나 1920년 보고 이후에는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그 이유는 알 수가 없다.¹³⁾

1920년 교동노회(膠東老會)에서 인수한 교회 중 3교회 외에는 개척 단계에 있는 지방 교회들이었고 새로 교회를 조직하면서 조선 선교사들은 주일연보법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다.¹⁴⁾

1921년도 보고에 의하면 홍승한 선교사 담당 지방 교인 총수는 266명에 평균 회집수는 168명으로 나타나 있다. 홍승한 목사는 중국인 장로 6명과 집사 7명, 남전도인 5명, 여전도인 1명과 동역하였고 1921년도에 19명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 홍승한 목사가 담당한 지방에서 일하던 중국인 전도인들의 월봉은 각 교회가 자담한 것이 아니라 조선선교회가 지불하였다.¹⁵⁾ 홍승한 목사는 현지 전도인들에게 월봉을 지불하는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지불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다.

5) 총회록, 제11회, (1922), p. 93, 95.

6) 곽안련, “장로교회사전회집”, (평양: 기신사, 1935), p. 104.

7) 총회록, 제12회, (1923), p. 88. 조선교회의 권찰제도를 중국 교회로 이식하였는지에 관하여 좀 더 살펴 볼 필요가 있겠다.

8) 총회록, 제9회, (1920), pp. 49~51.

9) IBID.

10) IBID.

11) 총회록, 제11회, (1922), p. 93.

12) 산동선교보고, 기독교신보, 1925년 8월 19일자.

13) 총회록, 제9회, (1920), pp. 49~51.

14) IBID., p. 37.

15) 총회록, 제10회, (1921), pp. 29~30.

4) 총회록, 제9회, (1920), pp. 49~51.

여러 지방을 순회하며 선교 사역에 참여하던 홍승한 목사는 1921년 4월에 남중국 선교상황을 시찰하기 위하여 남경 등 여러 곳을 방문하게 된다.¹⁶⁾ 홍승한 목사는 1개월간 남지대처 교회를 순회하며 서양 목사의 선교 방침과 중국 교회 형편을 관찰하였고 남경에서 “남지대포도단회”가 모일 때에 래양 선교 형편과 조선 교회 형편을 보고함으로 피차에 큰 감동을 얻게 되었다. 또한 성서공회와 교섭한 결과 매년 전도지와 전도서책 중에 몇 종류는 필요한대로 값없이 얻게 되었고 조선 교회가 중국 선교 시작한 것을 전 중국에 알리게 되었다고 한다.¹⁷⁾

홍승한 목사가 남중국 여러 곳을 시찰하고 선교임지 래양으로 온 후 그 해 11월에 본국에서 산동선교 시찰단원 이자익, 변린서, 마로덕 목사가 선교지를 방문하게 된다.¹⁸⁾ 당시에 홍목사는 중국인 가옥을 매입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며 시찰단원을 안내하여 래양성내에 있는 공자(孔子)의 사당(祀堂)을 구경토록 하기도 하였다.¹⁹⁾

1921년 11월 10일부터 래양성 예배당에서 산동노회(山東老會)와 교동노회(膠東老會)가 합동하여 회집하게 되었다. 양 노회 회원 80여 명과 방정인 합하여 100여 명이 모인 노회에 총회전도국 시찰단원 3명도 참석하였는데 조선선교회와 관련된 중요한 결의사항의 하나는 즉묵지역을 조선선교회 선교지방으로 허락한 것이었다.²⁰⁾ 조선선교회의 새로운 선교지방으로 허락된 즉묵성(即墨城)은 당시 인구 140만 명이 거주하는 광대한 지역이었다.²¹⁾

선교지역이 확장되면서 홍승한 목사의 선교지방이 변경되었는데 래양 서남편 지방의 사역이 대부분 박상순 목사에게 인계되고 그는 래양 상거 180리 되는 즉묵성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2) 즉묵 선교지 확장과 담당 교회들

즉묵성이 새로이 조선선교회의 선교지방으로 편입되면서 즉묵선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조선선교사로 개척의 첫 임무를 맡게 된 선교사가 바로 홍승한 목사였다. 홍목사는 가족을 래양성에 두고 1922년 봄부터 즉묵성에 거주하면서 근방 교인을 모아 시내로 다니며 열심히 전도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개척전도 사역으로 인하여 1922년 가을 경에는 매주일 평균 수삼십 명이 모여 예배드리게 되었다.

홍승한 목사가 새롭게 선교를 시작한 즉묵 일대와 이전 사역지 래양 서남편은 토비(土匪)가 창궐하여 중국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어수선하고 어려운 지역이었다.²²⁾ 선교사 역시 이러한 위협을 혼자서 모면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다. 그러한 어려운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홍승한 목사는 새로운 선교임지에서 전도활동에 힘을 다하기 시작하였다.

홍승한 목사가 즉묵에서 담당하였던 지방과 교회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즉묵

홍목사는 즉묵 개척전도 사역시에 중국인 남전도인과 근방 교인을 합하여 전도를 시작하였다. 1923년에는 남전도 1명, 여전도 1명, 교인 도합 45명에 평균 32명이 복음당에 회집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²³⁾

홍승한 목사는 1922년 봄부터 즉묵에 거주하면서 전도를 시작하던 중 선교사 사택 건축에도 힘을 쓰게 되었고, 1922년 7월 사택이 완공되면서 7월 25일 온 가족이 즉묵으로 이사하게 되었다.²⁴⁾ 선교사 사택 건축비는 본국 교회가 부담하였고 사택 완공과 함께 온 가족이 이주케 되었다. 즉묵에서 홍목사와 같이 사역하게 될 신임 선교사 이대영 목사는 1922년 6월 가족과 함께 래양에 도착하여 여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홍승한 목사 가족이 즉묵으로 이사한 후 9월경에 토비 수백 명이 즉묵성을 함락하려고 관병(官兵)과 6시간이나 교전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부근 일대에 크게 놀란 피난민들 다수가 홍승한 목사 사택에 들어와 구원을 청한 일도 있었다. 홍승한 목사는 피난민들을 실내에 수용하고 여러 가지로 위로하며 복음을 전한 결과 전도상 유익케 되었다고 한다.²⁵⁾ 홍목사가 즉묵일대를 중심으로 수 개월간 특별히 개인전도에 힘을 쓴 결과 새로 믿게 된 중국인들이 많아졌는데 그 중에는 유명한 신사도 있었다.²⁶⁾

홍승한 목사가 초석을 놓기 시작한 즉묵교회는 1924년 9월부터 1925년 8월까지 박상순 목사가 대리로 맡았다가 이대영 목사가 맡게 되었다.

나. 박자(泊子)

홍승한 목사가 맡게 된 두 번째 지방 교회는 즉묵원 왕촌도(王村島)에 위치한 박자교회였다. 박상순 목사는 그의 글에 박자교회가 이전에 교동노회 관할이었으나 1920년 6월, 조선선교회가 인수하여 정식 목양에 착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²⁷⁾ 왕촌도라는 지역명과 그 지역을 처음

16) 이관숙, “중국기독교사”, p. 283에 홍승한 목사가 중국장로회 총회에 참석하여 총회석상에서 조선 교회 선교사들의 활동 상황을 자세히 보고하였다고 기록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하였다. 이관숙, “중국기독교사”, (서울:쿰란출판사, 1995), p. 283.
 17) 박안련, “장로교회사전회집”, p. 116에도 잘못 기록하였다.

17) 총회록, 제10회, (1921), p. 26.

18) 박상순, OP. CIT., p. 340.

19) 馬路德, “조선예수교장로교회 중국 선교사업 시찰사항”, 신학지남, 제4권 제3호, (1922), p. 497.

20) IBID., p. 500.

21) 방효원, “中華民國山東萊陽宣教消息”, 神學指南, 제5권 제1호, (1923), p. 354.

22) 총회록, 제11회, (1922), pp. 93~94.

23) 총회록, 제12회, (1923), pp. 90~92.

24) 총회록, 제11회, (1922), p. 91.

25) 총회록, 제12회, (1923), p. 84.

26) IBID., p. 87.

으로 담당한 선교사는 박상순 선교사로 1920년 보고에 의하면 남전도인 1명에 평균 2명이 회집하는 지방이었다.²⁸⁾ 박상순 지방에서 1921년 9월경부터는 홍승한 지방에 박자교회라는 이름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22년 보고에 남전도인 1명, 교인 포함 19명에 평균 12명이 회집하며 예배당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왕촌도 박자교회 교인들은 특별히 해적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였다. 여러 해적들이 침략(侵掠)하는 고로 교인들과 지역민들이 염려로 지내는 형편이었다.²⁹⁾ 왕촌도 박자교회는 1923년에 남전도인 1명에 교인 포함 28명이었고 선교기관할 학교 1처에 남아 교원 1명씩 그리고 남학생 15명과 여학생 13명이 수학하고 있었다.

왕촌도 박자촌에 순경관(巡警官) 송제성(崇際盛)씨는 박자촌으로 온 후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였고 전도와 학교 사업에 열심하여 교회에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 송제성 씨는 친히 순경을 데리고 와서 주일예배와 삼일기도회에 출석하기도 하였고 선생을 청하여 순경대에게 도리를 듣게도 하였다. 또한 그의 부인을 교회학교에서 교수로 돕게 하여 그 근경에 아름다운 이름과 증거가 나타나 전도 사업에 큰 도움을 가져다 주었다.³⁰⁾

박자교회는 1924년경 교인 포함 38명에 평균 30명이 회집하는 교회로 서서히 성장하였고 선교사 관할 하에 중국인 남전도 1명이 수고하고 있었다. 1924년 보고에 학교에 관한 기록이 삭제되어 있다. 1924년 9월경부터 박상순 목사가 홍승한 대리로 박자교회를 맡았다가 역시 이대영 목사가 담당하게 되었다.

다. 궁가장(宮家庄)³¹⁾

홍승한 목사가 목양케 된 세 번째 교회는 궁가장교회였다. 궁가장교회는 조직 교회로 미북장로교 선교사들의 선교 노력 결과 세워진 교회로 여겨진다. 1920년도에 박상순 목사가 맡게 될 당시 중국인 장로 1명에 집사 2명, 남녀 전도인 각각 1명에 세례교인 포함 80명인 비교적 큰 교회였다. 평균 출석자는 60명이었으나 연보를 드리지 아니하는 교회로 보고되어 있다. 남학교도 3곳 설립되어 있고 남교원 3명에 52명의 남학생들이 있었다.³²⁾

1921년 9월경부터 홍승한 목사가 맡게 되었고 1922년 보고에 장로가 3명으로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고 집사도 4명으로 증가되었다. 1922년에 교인 포함 94명에 평균 67명이 출석하였으나 평균 연보액은 50원이었다.³³⁾ 연보할 줄 모르는 교인들 특히 세례교인이 81명임에도 연보를 아니하여 전도인 2명의 봉급을 지불할 수 없었을 것이고 선교사, 즉 외국 자본에 의지하는 온전치 못한 조직 교회였던 것이다.

궁가장교회도 홍승한 목사가 소환되자 박상순 목사가 대리로 시무하다가 이대영 목사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라. 혈방장(穴坊庄)³⁴⁾

혈방장 지방은 1920년도에 박상순 목사 지방으로 남전도인 1명에 교인 2명뿐이었다. 복음당을 건립하여 전도하던 중 1921년 9월경부터 홍승한 목사 지방으로 편입되었고 교인 7명에 5명이 평균 출석하였다.³⁵⁾ 그러나 1923년도에 이르러서도 교인이 증가치 아니하여 남전도인 1명에 교인은 전년도보다 감소하여 평균 3명 출석이 전부였다.³⁶⁾ 혈방장교회 즉 복음당 사역은 1923년 9월 이전에 중단한 것으로 보여진다. 1924년부터 교회 명단에서 삭제되어 없어지고 말았다. 혈방장은 선교를 시작하다가 중단한 지방이 되었다.

1921년 9월경부터 홍승한 목사가 맡게 된 교회는 이상에서 언급한 네 교회로 그 중에 장로있는 교회는 오직 궁가장교회 뿐이었다. 나머지 세 교회는 개척단계였으며 1923년경 혈방장 선교사역은 중단하게 되었다. 조선선교회는 1922년 겨울에 교동노회로부터 오산위(鰲山衛)지방을 인수하게 되었는데 인수받은 지역을 홍승한 목사가 담당케 되었다.³⁷⁾

마. 오산위(鰲山衛)

1922년 겨울 교동노회에서 오산위 지방을 조선선교회 관리하에 두도록 힘써 말함으로 부득이 인수하여 선교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한다. 교동노회로부터 인수받은 오산위교회를 홍승한 목사가 담당케 된 고로 1922년 9월부터 홍목사가 담당한 교회는 다섯 교회로 늘어나게 되었다.

오산위교회는 남전도인 1명이 동역하였는데 1년이 경과된 후 단 한 명만이 세례를 받게 되어 세례교인 포함 11명에 평균 19명이 출석하는 형편이었다. 복음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개척단계에 있던 지방 교회였다. 1923년 9월에서 1924년 8월까지의 오산위교회 통계에 의하면 세례인 포함 15명에 평균 15명이 회집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연보를 드리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³⁸⁾

1923년과 1924년 두 해 동안 약간명이 세례를 받았을

28) 총회록, 제9회, (1920), pp. 49~51.

29) 총회록, 제11회, (1922), p. 94.

30) 총회록, 제12회, (1923), p. 87.

31) 1922년 보고에만 宮家庄으로 기록되어 있다. 잘못 인쇄된 것으로 보인다.

32) 총회록, 제9회, (1920), pp. 49~51.

33) 총회록, 제11회, (1922), pp. 95~97.

34) 혈방장교회는 두 가지 이름으로 보고되어 있다. 제일 먼저 나타난 이름은 血防庄이고 그 다음에 穴坊庄으로 기록하였다.

35) 총회록, 제11회, (1922), pp. 95~97.

36) 총회록, 제12회, (1923), pp. 90~92.

37) IBID., pp. 89~90. 박상순 목사의 글 “산동선교의 과거와 현재”, p. 341에 오산위교회가 1926년 11월 조선선교구에 편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잘못 기록, 혹은 인쇄된 것으로 보인다.

38) 총회록, 제13회, (1924), pp. 81~83.

27) 박상순, OP. CIT., p. 340.

뿐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홍목사 지방이었던 오산위교회도 박상순 목사가 대리하다가 이대영 목사 선교 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바. 강산(姜山)

강산교회는 1920년도부터 박상순 목사가 담당한 지방 교회로 복음당 1처에 남전도인 1명이 수교하였고 1920년도에 교인 2명이 전부였다.³⁹⁾ 1922년에 교인이 8명, 1923년에 교인 10명에 회집 평균 7명이었다가 1923년 9월부터 홍승한 목사 지방 교회로 편입되었다. 홍승한 목사 지방으로 편입된 후 1924년도 보고에 의하면 교인은 오히려 감소하여 평균 5명이 회집할 뿐이었고 연보도 드리지 아니하는 교회였다.⁴⁰⁾ 강산 지방 교회는 홍목사가 본국으로 소환당한 해인 1924년에 폐지되고 선교 사업이 중지되고 말았다.

지금까지 홍승한 목사가 교동노회에 소속되어 담당한 지방 교회들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홍목사는 1920년 초부터 1921년 8월경까지 래양 서남편에 위치한 7개 지방 교회들을 맡아 중국 전도인들과 함께 돌보다가, 1921년 9월 이후부터는 즉묵, 박자, 궁가장, 혈방장, 오산위, 강산을 맡아 선교사역을 담당하였다. 궁가장 지방 교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개척 전도를 필요로 하는 지방 교회들이었으며 홍승한 목사는 중국전도인들과 개척선교를 하였다.

1922년 즉묵으로 그의 가족이 이주한 후 즉묵을 중심으로 주변 지방을 순회하며 개척선교사업을 벌였으나 지방 교회들은 크게 부흥된 것이 아니었다. 그의 담당 교회 통계를 통해서 선교사업의 어려움을 발견하게 된다. 그가 담당한 지방 교회 가운데 혈방장 지방 교회와 강산 지방 교회는 발전하지 못하고 중단, 폐지되고 말았다. 이 미 언급한대로 1924년 홍승한 목사가 본국으로 소환당하게 되자 그가 담당하였던 지방 교회들은 박상순 목사가 대리하다가 이대영 목사 선교지방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2. 즉묵선교회

1913년부터 중국 산둥에서 조선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을 시작하였으나 선교사회가 정식으로 조직된 것은 1919년 10월부터이며 산둥 래양 한 곳에만 있었다.

홍승한 목사는 1919년 10월부터 1922년 8월까지 조선 선교사회에서 서기의 직무를 맡아 수교하였고 1921년 11월 산둥·교동 두 노회가 동시에 래양에서 개척된 후 조선 선교지역으로 허락된 즉묵에서 선교사업을 시작하면서 기존의 조선선교회를 둘로 분리하였는데, 새로 조직된 즉묵선교회 회장 겸 회계의 직무를 맡게 되었다.⁴¹⁾ 기존 선교회를 둘로 나누어 하나는 “래양선교회”라 하였고 즉묵성 하남에 “즉묵선교회”를 두었으며 합하여 “총선교회”라 하였다. 두 지역에서 각각 선교사업을 진행하되 모든 사업을 총괄하여 본국에 보고하고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총선교회를 두었던 것이다.

즉묵선교회에는 홍승한, 이대영 목사가 소속이 되어 회장, 회계에 홍승한, 서기에 이대영으로 직무를 맡게 되었으며 즉묵선교회는 교동노회에 속한 래양현 약 3/5과 즉묵 현지 일대를 담당 관리하게 되었다.⁴²⁾ 래양과 즉묵 선교회는 1922년 9월 1일자로 분립되어 산둥 래양과 산둥 즉묵 두 곳에 선교기지를 두고 선교사업을 진행해 나가게 되었다. 홍승한 목사는 1922년부터 1924년까지 즉묵선교회 창설 멤버로, 그리고 교동노회 회원으로 중국인 교회개척 사업을 벌여나갔던 것이다. 홍승한 목사는 즉묵성 주재 선교사로 하남(河南)에 주재하면서 마적(馬賊)이 창궐한 지역에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선교 활동을 하였다. 즉묵성은 옛날 제(齊)의 고도였고 당시 상업의 중요지역이었다. 홍목사가 주재하기 시작한 1922년경 즉묵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는 2명 정도로 독일인이 선교하는 루터종파(路得宗派)교회가 있었으며 청도 주재 미국 선교사가 간혹 출입 선교하던 지역이었다.⁴³⁾

3. 선교사 자녀교육

홍승한 목사는 1917년 3명의 아들과 부인을 데리고 중국 산둥으로 건너갔으며 1918년 10월에 사남 석오(錫五)를 낳았고,⁴⁴⁾ 1922년 중국에서 또 득남하였으나⁴⁵⁾ 1923년 안식년으로 본국에 귀국하여 다섯째 아들이 본국에서 별세하게 되었다.⁴⁶⁾

홍목사의 삼남 석철(錫七)은 1916년생으로 1919년 1월에 설립된 선교사 아동학교에서 교원으로 임명된 박희복 씨의 지도를 받았을 것이나 1922년 4월부터 아동학교 교사로 일하게 된 조소임 씨에게서 배웠는데에 관하여서는 확실치 아니하다.

선교사 자녀 교사로 정식으로 청빙된 조소임 씨는 대구교회에서 홍승한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래양 선교사 자녀학교 교사로 일하기 시작하였는데, 홍목사가 죽어 7월에 즉묵으로 이주하였으므로 단기간 그녀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⁴⁷⁾

삼남 석철은 중국에서 성장한 고로 중국 학교에서 수업을 받게 되었다. 방효원 목사의 경우 소학교 연령기의 자녀들을 본국 조선으로 보내 교육을 받게 하였는데 홍

40) 총회록, 제13회, (1924), pp. 81~82.

41) 총회록, 제11회, (1922), pp. 91~92.

42) IBID.

43) 박상순, “산둥래양선교상황”, 기독교신보, 1922년 8월 23일자.

44) 총회록, 제8회, (1919), p. 32. 석오의 아내 이름은 최에 실이며 2남1녀를 두었다.

45) 총회록, 제11회, (1922), p. 91.

46) 총회록, 제12회, (1923), p. 85.

47) 조소임에 관하여서는 줄고, “중화민국 조선선교사 자녀교사 조소임 연구”를 참조할 것. 중국선교연구협회 제 11회 중국선교역사 세미나 연구발표물.

39) 총회록, 제9회, (1920), pp. 49~50.

승한 목사의 삼남 석철은 중국 학교에서 수업을 받았던 것이다.⁴⁸⁾

홍목사는 1924년 7월 17일에 산둥 즉묵에서 득남을 하게 된다.⁴⁹⁾ 홍목사의 장남 석은(錫恩)은 중국중학교에서 공부를 하였고,⁵⁰⁾ 1923년과 1924년도 보고에 의하면 청도에 미국인이 설립한 아메리카중학교 즉, 청도 미국인 학교에서 공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중국중학교에서 공부하고 청도에 설립된 미국인학교를 다녔던 것이다. 홍석은은 한국 선교사 자녀들 가운데 처음으로 서양인들이 설립한 학교를 다니게 되었다. 홍승한 목사는 그의 자녀교육문제에 있어서, 현지인학교와 외국인학교에 자녀들을 입학시켜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4. 안식년 제도

1917년 가을, 중국 산둥성으로 파견된 홍승한 목사와 그 가족은 산둥 레양에서 언어를 배우며 레양교회를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병행하였다. 이미 한자어를 많이 알고 있기는 하였으나 중국음을 익히고 사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되어졌다.

선교사로 파송되어 새로운 문화와 언어, 습관 등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정신적, 육체적, 영적인 면에 힘을 상실하게 되므로 휴식과 충전이 필요하다.

조선선교회는 선교사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안식년에 관한 조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시행코자 했다.

“宣教師는 毎 3箇年에 五個月式(來往時間은 除) 循次歸國하여 休息함을 得 宣教師가 歸國休息時에 俸給과 家族費는 受取할 수 잇스되 講說하기 위하야 巡行하는 旅費는 該教會에서 擔當할 것”⁵¹⁾

선교회 규칙 제12조에 따라 방호원 목사 가정과 홍승한 목사 가정이 같이 안식년을 당하였으나 방호원 목사가 먼저 안식년 휴가를 갖게 되었다. 조선선교회는 동일 지역에서 여러 조선선교사들이 선교 사역에 임하였으므로 한 가정이 안식년으로 일정 기간 귀국하여도 사역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 안식년 기간은 왕복 기간을 제하고 매 3년에 5개월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홍승한 목사는 6년째 되던 해인 1923년에야 안식년으로 귀국하게 되었다. 잘 알려진 바대로 안식년은 선교사의 회복과 지속적인 선교 사역을 위한 준비와 재충전, 사역 보고와 후원자 모집 등을 목적으로 하지만 홍승한 목사의 경우 6년만의 첫 안식년 휴가는 처음이자 마지막 휴가가 되고 말았다.

홍목사 가족이 산둥 레양에서 즉묵으로 이주하던 1922년 가을에 조선 선교사들의 안식년 규칙이 변경되도록 청원되었는데 3년에서 5년으로 청원되었고,⁵²⁾ 그 결과 선교사 안식년은 5년만에 5개월 휴식하는 것으로 안식기간이 결정되었다.⁵³⁾ 홍승한 목사는 1923년에 이르러서

야 안식년으로 귀국하게 되는데 1923년 4월 30일 이전에 귀국한 것으로 보인다.

홍 목사 가족이 귀국한 후인 1923년 4월 30일, 레양에서 어학 공부를 하던 이대영 목사 가족이 즉묵으로 이사하여 홍승한 목사 주택에 거주하게 되었다.⁵⁴⁾ 안식년으로 귀국한 홍승한 목사 가족들이 어디에 거하면서 안식년 기간을 보냈는지 알 수 없으나 홍목사는 여러 지방을 순회하며 선교 보고를 하였다. 1923년 6월 12일, 숙천읍(肅川邑)예배당에서 개최된 제4회 안주노회(安州老會)시에 초청되어 중국선교 상황에 대한 강연을 하였고⁵⁵⁾ 경북노회는 홍목사를 초청하여 경북노회 주회로 신정 예배당에서 환영회를 하기로 가결하기도 하였다.⁵⁶⁾

홍승한 목사가 안식년으로 본국에 있던 1923년도에 그가 중국선교사로 가기 직전 시무하였던 남성정교회는 자치파 리만집 문제로 혼란의 와중에 빠져 있었다. 남성정교회 포교 담임자로 되어 있는 리만집과 자치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성정교회설립자 홍승한의 명의로 총독부에 신청하여 리만집의 포교담임자 자격이 해제되었고 그 사실이 관보에 기재되자 교회 내에서 불량배들이 동원된 가운데 유혈극이 벌어지기도 하였다.⁵⁷⁾ 자신이 시무하던 교회에서 폭력과 질투, 시기, 고소 등이 난무하는 소식을 들어야 했던 홍승한 목사의 심정은 어떠하였을까.

홍목사는 1923년 9월 8일 신의주교회 예배당에서 회집된 제12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에 참석하였고 10일 저녁 8시 선교상황을 보고하게 되었다. 홍목사가 재미스럽게 선교상황을 보고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⁵⁸⁾ 제12회 총회에서 홍승한 목사가 선교상황을 재미스럽게 보고한 반면, 전도부장 리자익은 즉묵 선교사 2명 즉 홍승한, 이대영 목사를 소환하기로 결정했다는 보고를 하게 된다. 선교비가 예산대로 수입되지 아니한 고로 부채가 증가되었으며 따라서 즉묵 선교사 2인을 소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보고를 하자 총회는 일단 그 보고를 기각하고 현상대로 계속하도록 하였다. 총회의 결정에 의해 즉묵선교를 계속할 수 있게 되기는 하였으나 산둥 선교사회가 청구한 1924년도 예산 35,350원에 대하여 청구한대로 다는 허락지 못하게 되었다.⁵⁹⁾ 지출예산 중에 산둥선교 예

49) IBID. 홍승한 목사 묘비 뒷면에 석일(錫一)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50) 총회록, 제9회, (1920), p. 36.

51) 총회록, 제7회, (1918), p. 76.

52) 총회록, 제11회, (1922), p. 44, 75.

53) 총회록, 제15회, (1926), p. 60.

54) 총회록, 제12회, (1923), p. 85.

55) 백낙준, “조선예수교장로회 사기 하권”,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68), p. 373.

56) 경북노회 매십사회회록, (1923), p. 214.

57) IBID., p. 227.

58) 총회록, 제12회, (1923), p. 33.

48) 총회록, 제13회, (1924), p. 78.

산은 17,600원으로 조정이 되어 선교사들이 청구한 예산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였던 것이다.

즉묵선교사 소환 건에 대하여 총회는 중대한 문제인고로 전도부와 각 노회장과 지회계에게 맡겨 신중히 의논한 후에 보고케 하기로 동의가결하게 되었다.⁶⁰⁾ 홍승한 목사는 안식년으로 귀국하여 휴식과 보고를 하는 기간 중에 홍목사 자신과 그의 후배 선교사 이대영 목사의 소환 문제가 총회에 상정되었으며 기각, 보류되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어야만 하였다. 선교지 중국 산둥에서 수년을 보낸 뒤 40세가 넘어진 홍승한 목사는 이 새로운 상황 속에서 자신의 진로와 입장을 정리하고 있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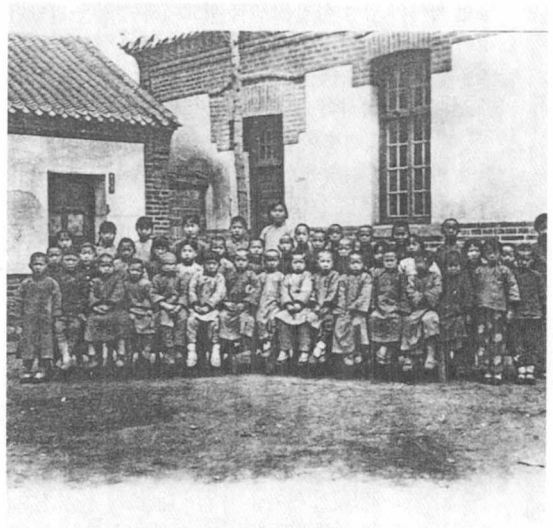
홍목사는 안식 기간중 대구부 동산성경학교 개학시에 참석하여 산동선교에 대한 현상과 경비 곤란으로 선교사를 소환하게 되는 사유를 말하게 되는데, 이에 자극을 받은 학생들은 대구 지역 3처 교회(남산정, 남성정, 신정) 도당회와 연합하여 1923년 12월 초에 “산동선교 후원회”를 발기하였으며 다시 그 회를 넓혀 염봉남 목사가 회장이 되어 적극 후원금을 모집하게 되었다.⁶¹⁾

홍승한 목사는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다시 그의 가족을 데리고 선교임지로 가게 되었는데 재정 부족 관계로 1924년 1월에야 임지에 도착하였다.⁶²⁾ 선교회 규정은 인식 기간을 5개월로 정하였으나 경비 관계로 그 기간을 초과하게 된 것이다. 홍승한 목사는 대략 1923년 초봄에 안식년으로 귀국하여 본국에 머물다가 1924년 1월에 산동 즉묵으로 다시 건너가게 되었다.

5. 애도학교(愛道學校) 설립(1922년)

즉묵선교의 개척자인 홍승한 목사는 1922년 7월 즉묵으로 이사한 후에 교회 개척 전도사업과 아울러 학교교육을 위하여 학교를 설립하고 “애도학교”라고 이름하였다. 1922년 9월에 설립된 애도학교 교장은 홍승한 목사였고 교원으로 왕서진(王瑞眞)양이 임명되었다.⁶³⁾ 애도학교는 소학교 과정으로 중국 어린이들을 모집하여 교육을 시켜 나갔고 홍승한 목사는 설립 초기에 수교하다가 1924년 본국 총회의 선교 경비 축소를 인하여 귀국케 되었으므로 이대영 목사가 맡아 일보게 되었다.⁶⁴⁾ 즉묵 애도학교는 선교부에 소속된 학교로 매년 약간 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면서 계속 유지하였으나 1938년 보고에 의하면 시국관계(중일전쟁)로 개학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는 기록에 남아있는 바 없다.⁶⁵⁾

1917년 10월부터 중국 산둥성에서 선교사로 선교 활동을 시작하였던 홍승한 목사는 1924년 가을 총회 이후에 결국 선교지 중국 산둥을 떠나게 된다. 3년간의 어학 공부와 문화 적응, 교회 개척 사업과 교육 사업의 기초를 놓아 가며 본격적으로 선교사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즈음에 본국 총회로부터 소환을 당하게 된 것이다.



즉묵 애도소학교 학생 사진-1930년대

중국 선교사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여 좋은 자격을 구비했다고 여길만한 때에 소환을 당하였으니 선교지 상황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었다.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선교사 한 가정을 선교지에 보내어 본격적인 선교사역을 착수할만한 때에 소환을 하였으니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아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

6. 본국 총회의 소환과 귀국

홍승한 목사가 선교사직을 그만두고 귀국케 된 이유는 선교비의 부족으로 인하여 선교경비를 축소하였기 때문이다. 1924년 9월 함흥읍 신창리 예배당에서 개최된 제13회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외지전도부장 차재명 목사는 다음과 같은 청원을 하게 되는데 그대로 동의가결이 되었다.

“즉묵선교사 홍승한 리대영 량시를 소환하여 주시기를 청원하옵고 이일에 대하여 교동로회와 대회에 편지할 거를 총회장 명의로 하겠사오며”⁶⁶⁾

홍승한 목사는 위의 청원내용이 가결되어 소환이 확정되었으나 이대영 목사는 어느 선교사가 금 300원을 연보함으로 2달간 소환을 연기하게 되었다.⁶⁷⁾ 이대영 목사는

60) IBID., p. 27.

61) 기독교신보, 1924년 1월 2일자. 1월 23일자.

62) 총회록, 제13회, (1924), p. 12, 78.

63) 박상순, “산동선교의 과거와 현재”, p. 340.

64) 기독교신보, 1926년 11월 10일자. 애도학교에 관하여서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

65) 총회록, 제27회, (1938), p. 18.

66) 총회록, 제13회, (1924), p. 14.

59) IBID., p. 20, 22.

소환이 연기되면서 상황을 보던 중 선교비가 모급되어 복직되었으나 홍승한 목사는 선교사직을 결국 마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총회는 즉묵 선교사 홍승한 목사의 소환에 대하여 나중이라도 누구든지 재정을 도와서 전도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경우가 된다면 그 일은 외지전도부에 맡겨서 처리하기로 동의가결하였다.⁶⁸⁾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와 중국 산둥 조선선교회가 선교 지역을 확장하느라고 노력한 것은 귀한 일이었으나, 선교지 확장에 따른 중국인 교회 인수와 중국전도인들 봉급 보조금의 급증 등의 예산증가를 견디어내지 못하고 선교사를 소환해야만 하는 결정에 이르게 되었다. 1920년대에 조선 경제의 피폐와 홍수 등 재난이 겹쳐서⁶⁹⁾ 어려움을 겪는 상황 가운데 선교비의 모금이 사실상 저조하게 되었던 것 역시 선교사 소환의 큰 원인이 되었다. 본국의 사정과 선교지의 무리한 확장 등이 원인이 되어 선교사를 소환하게 된 것이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들이 떠나야만 하는 여러 가지 사유 가운데 홍승한 목사는 선교 후원의 어려움 때문에 선교지를 떠나게 된 선교사가 되었다.

홍승한 목사는 총회 결정에 따라 선교사직을 마감하고 귀국하였으며 그가 소속되어 있던 중국 교동노회에서 평북노회로 이명을 하였다.⁷⁰⁾ 홍승한 목사는 중국 선교사로 1917년부터 1924년까지 활동을 하였으며 귀국하여 목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 총회의 선택을 받아 순종하여 대구 교회의 중직을 사임하고 중국으로 건너간 그는 다시 총회의 결정에 순종하여 귀국의 길을 택하게 된 것이다. 1917년부터 선교사로 활동하였던 홍승한 목사는 총회의 소환 결정에 어떠한 생각들을 하였을까?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것이다. 중국선교를 위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었던 귀한 사역자가 소환되었다는 사실에 이미 다 지나간 과거사이러만 아쉽기만 하다. 중국선교사직 마감과 함께 그의 소속이 다시 바뀌어 평북노회로 옮겨지게 되었다.

제3편 생애의 후반기(1925-1958.2)

제1장 평북노회 소속 목회시기

평북 의주군에서 출생하여 한학을 공부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 평북 철산 지역에서 조사활동을 하던 홍승한은, 평양에 있던 신학교를 졸업한 후에 강도사를 거쳐 경북 지역의 모교회라 할 수 있는 대구교회(구 남성정교회, 현 대구제일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다가 중국 선교사가 되어 중국 산둥성 래양과 즉묵에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선교 재정 부족 문제로 총회가 소환을 결정하면서 그는 평북노회로 그의 소속을 옮겨지게 되었다.

평북노회에 적을 두게 된 홍승한 목사가 귀국하여 시무하게 된 교회와 활동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 어렵다.⁷¹⁾ 선천남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평북노회로 이명한 홍승한 목사에 관한 언급은 1928년도에 평북노회 상황 보고에 짧게 나타나 있다.

1928년도에 홍승한 목사는 ‘철산읍교회’ 목사로 위임이 되었다.⁷²⁾ 홍승한 목사는 철산읍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면서 총회 활동에도 참여하여 교계 사업에 관여하게 된다. 1929년 제18회 총회에 평북노회 목사 총대로 참석하여 활동하였고 신학교육부 부원의 한사람으로 중국 선교사였던 김영훈 목사⁷³⁾와도 같이 신학교육사업에 참여하였다.⁷⁴⁾

홍승한 목사는 평북노회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인물이자 널리 알려져 있는 목사로 1931년경 그는 평북노회의 노회장으로 평북지역 교회활동에 폭넓게 관여하고 있었다. 당시 그의 주소는 철산군 철산면(鐵山面) 동부동(東部洞)이었고 그와 같이 활동한 노회원 가운데 홍택기, 정상인, 조시한, 장규명 목사 등은 잘 알려져 있는 인물들이었으며 선교사 가운데 함가륜(咸嘉倫), 로세영(盧世永) 목사 등이 그와 가깝게 동역하였던 인물들이다.⁷⁵⁾ 홍승한 목사가 노회장이던 당시 평북노회내에 105개의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으며 선교사 2명과 30명의 목사들이 교역에 임하고 있었다.⁷⁶⁾ 홍목사는 총회에서 종교교육부원으로, 공친위원으로, 연합공의회 총대위원으로 다 방면에서 활동을 하였다.⁷⁷⁾ 홍승한 목사는 조선예수교장로회에서 파견한 총대로 1931년부터 명칭이 바뀐 ‘조선기독교 연합공의회’에서도 활발히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1932년에 연합공의회 부회장의 직무를 맡기도 하였다.⁷⁸⁾ 그가 부회장이던 당시 연합공의회 회원은 15단체 68명으로 연합사업에 중요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참여한 것이다. 그의 나이 50대 초반에 평북노회장으로, 그리고 총회사업과 한국 교회 연합사업 등에 폭넓은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홍승한 목사에 관하여 1933년 이후 활동을 알려주는 문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에 관련된 연구를 지속하기에 어려움이 많다. 방지일 목사는 그의 책 “복음역사백년”에서 의산노회가 홍승한 목

68) IBID., p. 47.

69) 총회록, 제12회, (1923), p. 100. 각 노회 상황보고 가운데 홍수로 인한 피해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다.

70) 총회록, 제14회, (1925), p. 46.

71) 기독교대백과사전(기독교문사)에는 그가 귀환하여 선천 남교회 목사로 부임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72) 총회록, 제17회, (1928), p. 89. 철산읍교회 초기 역사에 관해서는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1928), p. 41 이하를 참고하라.

73) 총회록, 제18회, (1929), p. 53.

74) 총회록, 제20회, (1931), pp. 2~3.

75) IBID., p. 82.

76) IBID., pp. 57~59.

77)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기독교의 역사Ⅱ”, (서울: 기독교문사, 1991), p. 70. 연합공의회에 관하여서는 pp. 64~71을 참조하라. 총회록, 제22회, (1933), p. 63.

67) IBID., p. 15.

사를 중국 북경에 파송하여 북경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위해 파송전도케 하였다고 기록하였으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형편이다.⁷⁸⁾

홍승한 목사는 철산읍교회 목회 시절에 막내딸을 얻게 되었는데 “혜숙”이라 이름하였다.⁷⁹⁾ 혜숙은 1930년 2월에 출생하였으며 1996년 현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1930년대 초 홍승한 목사 가족사진

제2장 노년 시기

홍승한 목사는 1940~41년경 회갑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지냈으며 1945년 해방 후에 월남하였다고 한다. 평북노회사에 의하면 그는 부산에서 피난 생활중 별세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자세한 내용 역시 잘 알 수가 없다.⁸⁰⁾ 홍승한 목사 이름이 기록에 나타난 것은 1953년도 경기도회 교역자 명부 가운데 무임목사란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⁸¹⁾ 1957년도 회원명부에 역시 무임목사로 기록되어 있다.⁸²⁾ 홍승한 목사는 1955년 4월 서울 영락교회에서 거행된 이대영 선교사 근속 30주년 기념 및 가족환영예배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다.⁸³⁾

홍승한 목사는 그의 일생동안 두 권의 서적을 기록하여 남겼는데 바로 구약과 신약설교사전이 그것이다. 해방전 시기에 신구약설교사전을 저술한 것으로 봐서 그의 성경지식이 어떠하였는가를 가늠할 수 있겠다. 그가 저술한 신구약설교사전은 단순히 그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장별로 나누고 다시 대지를 구분하여 조목조목 설명을 해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는 구약설교사전 서문에서 구약성경을 경홀히 여기는 신학자들에 대하여 섭섭함을 드러내어 기록하였다.

홍승한 목사는 신약설교사전을 먼저 출판하였는데 신약전편을 한 절도 빼놓지 아니하고 일천오백여 설교대소

지를 구분하여 일목요연하게 기록하였으며, 목회자들을 주대상으로 하여 저술하였다. 신약설교사전은 1935년에 광고되어 판매되고 있던 것으로 보아 1935년경 저술된 것으로 보인다.

구약설교사전은 1936년도에 신앙잡지 “계사씨”사에서 발행하려고 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말았다. 신약설교사전의 판매가 양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신약설교사전도 재판하려고 했으며 구약설교사전도 출판하려 했으나 일제가 허락지 아니하여 부득불 만주 봉천(奉天-지금의 심양)에서 출판하려고 어떤 친구에게 보내었다가 불행히 분실당하고 말았다.

홍승한 목사는 구약설교사전 원고를 분실한 후 다시 저술하여 후일에 오인명(吳仁明)장로의 조력으로 출판하게 되었다.⁸⁴⁾ 신약설교사전도 다시 출판하게 되었는데 초판 3천권이 불과 1년만에 품절되어 다시 출판하려다 못하고 1955년에 국문으로 출판하였으며 1956년에 또 재판을 발행하였다.

그의 나이 75세이던 1955년 신약설교사전이 새롭게 출판되었던 것이다. 홍승한 목사의 설교사전은 대인기를 누렸던 것으로 보인다. 홍목사의 설교사전은 “설교집 중에 참 설교집이다”라고 서울총무로교회 조봉하(趙逢夏)목사는 기록하였다.⁸⁵⁾

그의 설교집에 그가 말년에 거했던 것으로 보이는 주소가 나타나 있다. 바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송인동 313의 11번지이다. 아마도 그는 부산 피난 시절을 보낸 후 상경하여 서울에서 지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같다. 홍승한 목사는 1958년 2월 1일 만77세의 나이로 부르심을 받았다. 현재 그의 묘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사능리 산1번지 7단지 8호에 위치해 있다.

초기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었던 홍승한 목사는 이제 우리 곁에 없으나 그에게서 여러모로 배울 점이 많이 있으며 한국 교회 목회자로, 중국 선교사로, 성경학자로 그가 남긴 교훈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홍승한 목사의 생애에 있어서 후반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관련해서는 자세한 문헌이 없는고로 깊이 있게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쉽기는 하나 후일에 좋은 자료가 발굴되면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79) 방지일, “만준 할아버지 직계손명부”, (수정판), p. 21.

80) 최석승, “평북노회사”, (서울: 기독교문사, 1979), p. 238.

81) 박찬목, “경기도회 100회지”, (서울: 청암출판사, 1973), p. 92.

82) IBID., p. 101.

83)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제40회 회록, (1955), p. 322.

84) 홍승한, “구약설교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1976), 서문에서.

85) 홍승한, “신약설교사전”, (서울: 기문사, 1956), 서문에서.

78) 방지일, “복음역사반백년”, (광주: 반도문화사, 1986), p. 69.

결론

홍승한 목사를 중심으로 하여 중화민국 산둥성 래양과 즉묵에서 시행된 조선예수교장로회 파송 선교사들의 활동에 관하여 살펴보았고, 중국선교사로 1917년부터 1924년까지 사역한 홍승한 목사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그의 활동과 업적에 대하여서도 살펴보았다.

홍승한 목사는 한국 땅에 개신교가 전래되던 초창기에 예수교 신앙을 받아들였으며, 청년기에 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기독교 신앙이 철산 지역에 확산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는 조사활동을 통하여 평북 지역에서 활동하던 서구 선교사들을 가까이서 대할 수 있었고 신학공부를 하면서 신앙과 신학의 기반을 다지게 되었다.

당시 교회 지도자로 활동을 하게 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 두 부류를 살펴보면 하나는 선교부의 조수까지 되었던 그룹의 지도자, 다른 하나는 교회학교와 대학 졸업자들이었다.⁸⁶⁾ 홍승한 목사는 첫번째 과정을 거친 인물로 5년의 신학과정을 마친 후에 강도사를 거쳐 목사임직을 받았다.

대구교회의 위임목사 시절 후에 중화민국 선교사로 선택을 받게 되었는데 그는 상회의 선택에 순종하여 선교사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당시 총회에서 중국에 선교사를 파견기 위해 자격자를 선별하려고 노력했다는 점과 교회 개척을 목표로 하여 선교사를 파송하려 했기에 목회 경험이 있는 유력한 목사를 선택하여 목적에 부합되도록 한 점 등은 귀한 일이었다. 선교사를 선택, 파송하되 바른 신앙과 신학적 소양을 갖춘 인물을 선택하여 파송하여야 함을 배우게 된다.

홍승한 목사는 조선예수교장로회가 목적하던 타문화권 전도와 교회개척사업에 적합한 인물이었으며 선교사역 분야에 맞는 훈련과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타문화권 선교사로서의 소정의 교육과 훈련들을 받지 못하고 나간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중국선교사로 활동하였으나 그는 개척전도 활동에 많은 수고를 다 하였고 동료 선교사들과 연합하여 팀사역을 실시하였으며 중국교회 일원으로 중국인들과 연합하였던 것이다.

홍승한 목사는 고국에 있는지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하던 기간에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한 인물로 기록해야 할 것이다. 단지 조선 교회의 형편이 너무 어렵게 되어 소환을 당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던 상황들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는 있다 하겠다. 당시 조선선교사들은 힘에 지나도록 선교지 확장을 위해 노력하였고 조선선교회로서는 선교경험이 전무하던 시기에 미북장로교 선교지역과 전도인들을 인수받아 상당액의 선교비를 현지인 월봉보조로 지불하였다. 연약한 중국 교회와 전도사업에 대해 중국인 전도인들에게 월봉을 지원해 준

것이 무슨 그리 큰 문제가 되었는가 하겠으나 토착교회 설립과 자립에 오히려 거침돌이 되는 요인이었고 현지인 봉급지불 예산은 세우되 선교사로 계속 일할 준비를 마친 선교사 홍승한 목사는 소환되고 말았던 것이다.

홍승한 목사는 상회의 결정에 순종한 인물로 그의 충성심을 발견할 수 있으며 수많은 조선의 목회자들을 위하여 성경을 깊이 연구하여 신구약성경사전을 저술한 성경학자로 기억해야 하겠다. 홍승한 목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넓은 시야를 가지고 조직과 행정에 남다른 역량을 보여준 인물이었다. 말씀전파와 교회개척, 목양, 교회행정과 연합사역에 그의 힘을 다하였으며 초기 한국 교회 인물 가운데 본국 교회와 중국 교회 두 곳에서 주의 사역에 전념한 인물이 되었다. 중국 선교사로 선택되어 계속적으로 중국교회에 필요한 인물로 활동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 아쉽기는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 부르심에 충성했다는 점에서 귀한 분이 되는 인물이라 하겠다.

오늘날 중국선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고 헌신하려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은 매우 감사한 일이며 귀한 현상이라 하겠다. 하지만 일시적인 기분으로,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을런지에 대한 분명한 준비와 이해도 없이 중국선교에 뛰어들다면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중국은 할일이 많은 민족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한 나라이다.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려 하는 한국 교회나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사들은 단시일에 무슨 결과를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과 조급한 마음으로 임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중국 민족 복음화에 대한 분명한 사명과 구체적인 준비없이 임한다면 오래가지 못하고 중도에 멈추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중국 민족 복음화와 중국 교회에 진정 도움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을 파송하여야 하겠고 그러한 인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간구하면서 이 글을 마치려 한다.

정정: 지난 호(96년 5/6월호) 세미나 지상중계 「초기 한국 교회의 중국 산둥선교 역사」(동일한 필자의 글), 54쪽 10행 “소환되었으나 이대영 선교사는 복직되고 홍승한 선교사는 1924년 결국 선교지에서 소환, 선교사직을 사임하게 되었다.”가 편집자의 실수로 누락되었습니다. 필자 김교철 선교사님과 독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86) H.G. 언더우드, “한국개신교수용사”, 李光麟 역 (서울: 일조각, 1993), p. 94.

시국 대처

방지일

교회

행정적으로 일제의 세력하에서 소위 '중화기독교단(中華基督教團)'이 생기고 그 지회가 조직되었다. 그 산하에 교회가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이 밤과 낮의 치안이 다른 상황이라, 자칫 잘못하면 양쪽에서 모두 서로를 이용하거나 또 쉽게 서로를 정죄하기도 하였다.

나 자신은 확고하게 전도자로서의 입장을 가진 고로 문제없이 나갈 수 있었으나, 관할 교회를 지도함에는 난처함이 적지 않았다. 교회 행정도 두 가지로 병행해야 했다. 소위 어용 교단은 내가 몸담을 수 없는 고로 다른 교파나 다른 분들이 하는 것을 볼 뿐, 내 관할 교회에 오는 행정 조치도 신앙에 위배되지 않는 것만 순응하면서 나갔다.

그러나 본시 우리 노회대회 조직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 이곳

에 대한 행정은 일인(日人)의 관리 구역에서 행사할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지역이 더 많은 고로 그대로 행사해야 했다. 전도자의 입장인지라 정치·군사면에서 지나친 간섭을 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여기선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했다.

미국 선교사들과 관련된 많은 교회들도 힘 닿는 대로 많이 도울 수 있었다. 나 개인적으로는 일본인들에게 일본 국적을 가진 것을 지적했다. 피할 길은 없었다. 중국 사람들은 관민을 막론하고 모두 나를 믿어 주었다. 내가 당시 그 어려운 시국에서 능히 교회 행정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이다. 중국 교계와 중국 관민들에게 신용을 얻었다는 이 점이 일인들의 주목거리가 되었지만, 나의 선교 활동에는 큰 힘이 되었던 것이다.

그 후 각 요지에 있는 교회 실정



을 시각적으로 파악하여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었다. 국경 아닌 국경이 밤낮으로 바뀌는 가운데 잦은 사고도 발생하였다. 일군에 억압되는 일, 중국 관헌에게 의심받는 일, 물자 소통 등의 문제가 종종 생겼다.

중국 측에서 나를 믿어 주니 그들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었고, 일군(日軍)과 관계된 일도 교인의 순수성을 보증하여 풀어 주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이 이중 삼중으로 터지는 것이 도무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전운(戰雲)은 나날이 일본에 불리해졌다. 물자는 나날이 줄어들기만 하니 생활의 곤란이 막심하였다. 주로 연료와 식물의 결핍이 대단히 심했는데, 중국인들에게는 배급조차 나오지 않는 반면 일인에게는 석탄도, 쌀도 모두 배급되었다.

중국에서 생산되는 석탄도 중국인에게 입수되지 않으니, 내가 살 수 있는 대로 사서 나눠 쓰는 등 가능한 길을 여는 것이 큰 일이었다. 먹을 양식 또한 배급만으로는 부족하였다. 시장에서 사자니

한없이 비싸서 중국인에게는 큰 곤란이었다. 부식은 더 말할 나위도 없었다. 중국 사람끼리 유통되는 것은 그러저럭 구할 수 있었지만, 수송이나 생산이 모두 일군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물자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였다.

중국인들의 이런 면의 곤란을 해결해 주는 데 난 적지 않은 힘을 썼다.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선 그들의 이러저러한 필수품을 팔아 주어야 한다고 일인 측에 교섭하여 곤란을 면케 한 적도 있었다.

때로는 무서운 죄목으로 걸려드는 일도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피의자의 과거, 현재의 일을 맞추어 실증을 제시하여 풀어 주기도 하였다. 저들이 못하는 일을 나는 할 수 있었다.

이보다 더 곤란했던 일은 우리 동포들이 일군을 따라 대거 들어오는데, 정당한 사업이나 큰 포부를 지닌 사람도 없지는 아니하였으나, 대부분의 동포들은 본국의 각박해지는 시국 하에 의식이 문제되어 온 이들이라 할 일, 못할 일의 분간을 못했다.

낮 뜨거운 일도 많았다. 어떤 동포는 일본말로 제대로 할 줄 모르

면서, 일군의 통역으로 일한답시고 최일선에 가서 그들을 이롭게 한 일도 없지 않았다. 중국 목사들 중에 어떤 이가 노골적으로, 너희 조선 사람들이 일본인보다 더 좋지 않다는 말을 던질 때는 나도 할 말이 없었다. 이런 예는 일일이다 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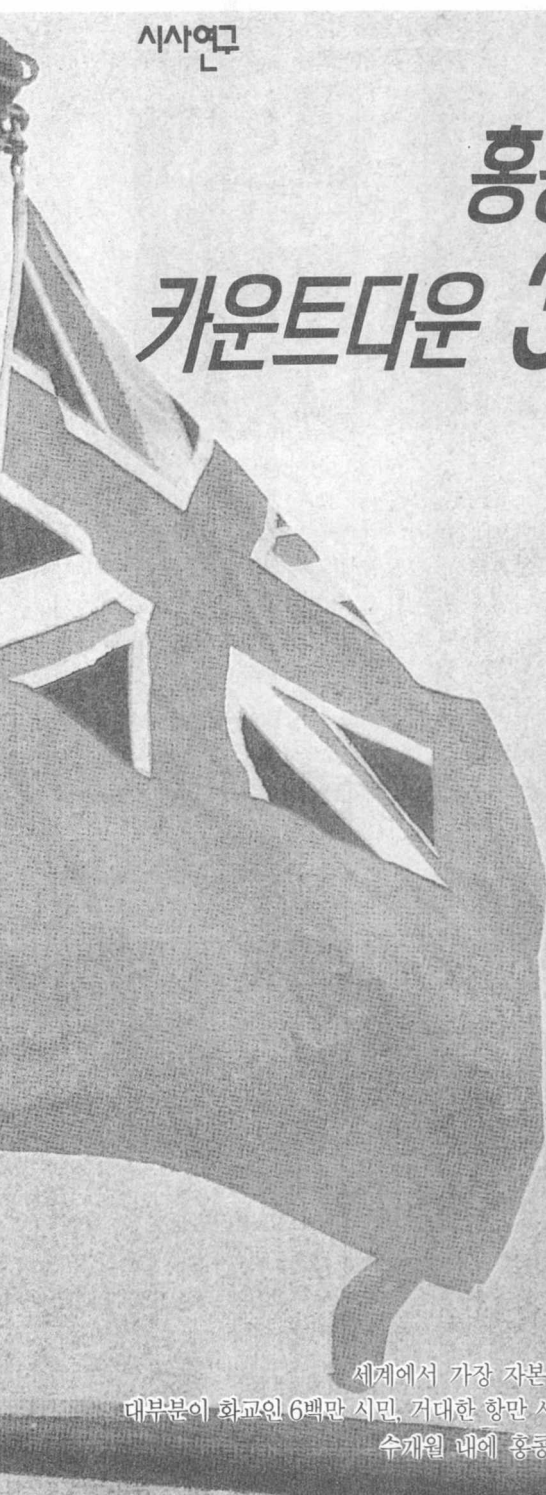
중국에 들어온 동포 중에 귀한 신앙인들이 와서 함께 살게 된 일도 있다. 본국에서 신사 참배 강요를 피해 온 이들이었다. 이들은 중국에 와서 정정당당히 살면서 중국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과 생활의 덕을 끼쳤다.

사실 정치를 모르기도 하지만, 난 늘 임버릇처럼 성직자는 정치에 절대로 관여하지 않아야 순수하게 성역(聖役)을 감당할 수 있다는 소신을 갖고 살았다. 그러나 그 당시 일제 치하에서 시국에 대처해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둘씩 문제를 풀어 나가게 하심을 회고하면 감격스러울 뿐이다.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모든 어려움을 피하게 하셨다.

<福音歷史半百年> 중에서

방지일/ 목사, 중국어문선교회 고문,
전 중국 산동성 선교사

홍콩 반환 카운트다운 365일



이제 일년 후인 1997년 6월 30일 자정 이후,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인 경제도시 홍콩의 본적이 런던에서 베이징으로 바뀐다.
대부분이 화교인 6백만 시민, 거대한 항만 시설, 외환보유고 520억불이 넘는 홍콩이 중국 통치로 아양되던,
수개월 내에 홍콩에서 영어보다는 광둥어나 표준어 사용이 크게 확대될 것이다.
반환 이후 홍콩은 중국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결코 만만하게 주무르지 못할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서 떠날들이 질 것인가,
아니면 사회주의 중국 한파로 인해 동사(凍死)하고 말 것인가?
그리고 또한 중국 정부는 홍콩 교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시사연구』에서 반환 1년을 앞둔 홍콩의 현재와 미래를 진담에 보았다.

불투명한 미래, 흔들리는 홍콩인들

중산층 70% 도피용 여권 소지

홍콩 반환이 내년으로 다가옴에 따라 사회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 특히 홍콩인들은 신분상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예민한 반응이다. 영국과 중국 사이에서 지금보다는 훨씬 복잡해질 그들의 신분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최근 대다수 홍콩인들의 국적과 거류권이 서로 다른 신분으로 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홍콩인 10명중 2명은 외국 여권을 갖고 있다. 작년도 입법국 선거에 출마한 후보 중에도 외국 여권 소지자가 34%나 됐다. 그러나 이걸 어디까지나 통계에 불과하다. '돈 있고 배웠다 싶은 홍콩인 중 열에 일곱은 외국 여권을 갖고 있다'는 게 시중의 정설이다. 이들에게 외국 여권은 '97년 이후에 대비한 일종의 '보험'이다.

홍콩에서 외국 여권이 인기상품이 된 것은 중국과 영국이 홍콩 장래 문제에 관한 협의를 한 이후와, 지난 '89년 중국의 「천안문사태」 이후이다. 각국 영사관은 중국의 유혈 진압에 놀란 홍콩인들의 여권 신청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후 중산층들은 무더기로 홍콩을 탈출했다. 이미 신청자들 가운데는 거금을 지불하고 외국 여권을 사들인 사람도 상당수다. 몇 개월 전의 조사에 의하면 홍콩 거류민의 약 12%가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으며 그 수효는 총 70만에 달한다고 한다. 과거 10년 동안 외국으로 이민을 떠난 홍콩인이 다시 홍콩으로 돌아온 것도 전체 인구의 약 12%나 된다. 외국 여권을 소지하고 홍콩으로 돌아온 홍콩

인들은 자신의 국적 및 거류 신분을 처리하는데 꽤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범죄와 마약 그리고 빈곤층의 확대

사회 전반의 각종 누수 현상도 홍콩의 심리적인 공황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경찰의 부패이다. '95년 말 살인, 강간, 마약 밀매 등으로 정식 처분된 경찰이 76명이라고 홍콩 경찰은 발표했다. 내부 요주의 인물로 점찍힌 사람도 136명이다. 최근에는 홍콩 경찰관 1백여 명이 돈벌이를 위해 남창으로 일해 온 사실이 밝혀지는 등 경찰관들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황이다. 경찰 간부들 사이에선 '97년 이전에 한몫 벌고 그만두자는 심리가 팽배해 있다는 게 정설. 이들도 나름대로 보험을 준비하는 셈이다.

홍콩 청소년들 사이에선 마약이 극성이다. 지난해 청소년 관련 마약사범은 1천4백여 건이나 되었다. 아편전쟁 이후 한 세기 반만에 홍콩을 덮치고 있는 마약 바람은 정부의 단속에도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일반 시민들도 10명중 6명꼴로 각종 범죄에 의한 피해를 당했다. 민간기업 중 사기당한 경험이 있는 회사도 10개 중 3개꼴로 늘었다. 이들은 앞으로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보다 위험한 계층은 월수입 1백만 원(한화)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이들은 전체 고용 인구의 절반인 1백46만 명을 헤아린다. 이들에겐 홍콩 반환을 생각할 겨를도 여유도 없다. 이들은 "중국이 들어선다고 생활이 지금보다 더 나빠지기가 하겠느냐"며 코웃음을 친다.



홍콩의 저소득층은 사실상 반환에 대해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 홍콩 중심가 길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걸인



홍콩인들은 중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 신임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있다. 6·4 천안문시위를 기념하여 추도식으로 모인 홍콩 시민들.

자살하는 홍콩 주부들

대륙을 찾는 홍콩 상인들의 발걸음이 분주해지면서 최근 홍콩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현지처 문제이다. 홍콩 실업인들이 무역 문제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 현지에 본토 여성과 새살림을 차리는 것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하는 홍콩 실업인의 50% 이상이 이런 비도덕적 애정행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현상의 이유는 홍콩 남자들의 이중적인 도덕의식과 더불어, 많은 중국 여성들이 돈과 세련미를 갖춘 홍콩 남자들에게 맥을 못 चु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개방화 정책으로 차차 자본주의의 돈맛을 알아가는 중국 여성들이 돈과 꿈의 도시 홍콩으로 갈 수 있는 티켓을 줄 수 있는 홍콩 남자들에게 매달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홍콩 사회에서 이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이 엄연히 홍콩에 부인을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현지처의 존재를 알고 이를 비판한 나머지 자살하는 홍콩 부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등 가정불화가 심각하다. 이 문제 역시 홍콩 반환과 함께 나타나는 어두운 그림자라 할 수 있다.

사회 전반에 흐르는 불안감

다양한 현상들 가운데 지금 홍콩 사회에 흐르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은 바로 집단적 불안감이다. 많은 홍콩인들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우울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어느 면에서 이번 홍콩 반환은 중국의 입장에서 식민지라는 굴욕의 역사를 청산, 국가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홍콩인들의 경우에도 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로부터 완벽한 해방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는 홍콩인들의 표정은 밝지 않다. 밝기는커녕 불안과 초조, 그리고 도피로 이어지고 있다. 어느 면에서는 탐탁지 않게 받아들이는 입장인 것이다. 여기에서 현재 홍콩 사회의 불안과 딜레마가 시작된다.

아이러니컬 하지만 홍콩은 영국의 통치에 의해서 자유와 게임의 법칙이 정착하였고, 자유경쟁이 홍콩의 대명사가 되었다. 그러나 많은 홍콩 사람들은 이런 자유로운 사회체제가 사회주의 국가를 표방하고 있는 중국 방식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크다. 두렵고 불안하면 떠나면 그만이지만 모두가 떠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돈과 권력이 없으

면 그것도 힘든 일이다.

상담실이 붐비는 것도 이들의 불안감을 상징한다. 홍콩 사마리탄(자살위기 전화)의 상담 사례나 종합 통계가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다. 이 단체의 책임자인 로즈마리 여사에 의하면 최근 들어 상담실을 찾는 내담자나 전화상담자가 더욱 늘고 있다고 한다. 실제 이곳에는 1993년 4월부터 '94년 3월까지 17,575건의 전화상담이 있었는데, 이는 1일 평균 48건의 상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성별로 구분하면 남자가 전체의 37%이고 여자가 28%이다. 민족별로는 중국계가 61%로 가장 많고, 기타 아시아계가 16%, 유럽인이 23%에 달해 중국 반환에 따른 홍콩인들의 불안감을 표시하고 있다. 연령별로 구분하면 22세에서 44세까지 사회에서 한창 활동하고 있는 청장년층이 가장 많은 전체의 61%, 15세에서 24세까지 청소년층이 33%를 차지, 사회체제 변화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이들의 불안감이 얼마나 심한지 보여주고 있다.

상담에 대해 원인별로 구별하면, 사회환경의 변화로 달라지는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이 가장 많아 전체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에 고독과 우울증이 28%, 교육이나 학업, 직장문제가 8%, 정신병이 9%를 차지하고 있다.

로즈마리 여사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느 면에서 홍콩 사회는 지금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사람들을 우울증에 시달리게 하며 나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들기도 한다. 우리 상담실에는 직업이나 새로운 체제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의 고통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된다는 것이다. 희망적인 이야기도 들리지만 이런 불안증후군은 홍콩이 반환되고 어느 정도 확실한 구도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지금 홍콩 사회에는 위기감과 희망이 교차하고 있다. 그러나 역사의 초침은 막을 수 없으

며 홍콩은 서서히 중국화될 것이다. 동일한 전통과 언어, 그리고 역사의 공유 및 혈연적 연결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작용도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다. 홍콩인들 또한 시간이 갈수록 막연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홍콩의 중국인이 아닌, 중국 속의 홍콩인으로 살아갈 궁리를 마련하기 위한 현실적인 고민에 더욱 몰두하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세상사람들』 96. 2

『북방저널』 95. 12/ 96. 3

『조선일보』 95. 9. 21



경제특구 재고, 홍콩은 끝났다

광둥성과 홍콩을 견제하라

“광둥(廣東)성은 지역주의를 제창, 중앙에 대해 앞에서는 복종하고 뒤에서는 배반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광둥은 덩샤오핑 동지의 깃발을 들고서 그의 사상에 배반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당중앙이 작년 7~8월에 베이다이하(北戴河)에서 개최한 공작회의에서 특구폐지 문제가 거론되었다. 특히 홍콩에 인접해 있다

는 지리적 이점과 덩샤오핑의 적극적인 지원을 힘입어 대성공을 이룬 선천(沈川)을 비롯한 광둥성은 중앙에 있어 눈엣가시 같은 존재로 부각되었다. 특구와 중서부 내륙 간에 경제발전 격차가 너무 벌어져 빈부격차가 심해졌고, 특구에서 부패가 만연하고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따라서 지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지방에 이양된 권력을 회수, 각 지방의 투자와 이익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은 이에 내륙 중서부 지방의 광둥성에 대한 반발을 선동하고 그것을 이용하여 광둥의 움직임을 봉쇄하려 하고 있다. 최근 광둥성에 대해 산시(山西)성은 석탄을, 장시(江西)성은 쌀을, 쓰촨(四川)성은 돼지고기를 각각 공급하지 않았으며 일부 성은 광둥성 제품의 구입을 중지하고 있다. 이것도 중앙의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중앙의 광둥 견제, 특구 폐지에는 또다른 목적이 있다. 그것은 홍콩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역으로 상하이(上海)를 강화시켜 상하이를 '제2의 홍콩'으로 하기 위함이다. 중앙은 '홍콩의 역할은 끝났다' 혹은 '홍콩의 기능을 더이상 중요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콩은 중국의 관문으로서 서방측, 동남아시아, 대만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홍콩을 통해 중국에 자금, 사람, 물건이 흘러들어 왔다. 그러나 지금처럼만 개혁 개방이 진행된다면 더이상 홍콩을 창구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97년에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 금융·무역·운수센터로서의 홍콩의 기능이 상하이로 옮겨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홍콩을 황금알인 채로 두면, 광둥성과 홍콩이 혼연일체가 되어 경제력을 배경으로 반(反) 중앙 색채를 한층 강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앙으로서의 상하이를 황금알로 키워 그 맛을 직접 보고 싶은 것이다. 여기에서 홍콩은 살리지도 죽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존재하게 하고 상하이를 '제2의 홍콩'으로 만들려 하

는 중앙의 본심을 읽을 수 있다.

지난 여름 베이다이하 회의에서는 "97년 홍콩 반환 시에는 홍콩의 기능이 혼란해져 그에 따라 국내 경제가 타격을 받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상하이를 홍콩에 대신하는 금융, 무역 센터 도시로 건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만의 경제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두터운 경제 기반을 가진 상하이의 능력을 보다 강화하여 제2의 홍콩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는 국무원 보고서가 제출되었다. 이 보고서는 "때문에 금세기 말까지 상하이에 수천 억 달러의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하고 회의가 "기본적으로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역사적 사명은 끝났다.

홍콩 체제는 중국식 자본주의 체제로 빠르게 변모해 가고 있다. 중국이 홍콩, 더 나아가 중국 전체의 바람직한 모습으로 상정하고 있는 탄탄하고 유연한 경제기반을 갖춰감에 따라 변화는 한층 가속화될 것이다.

이전에만 해도 본토에서 볼 때 홍콩은 일종의 신비로운 존재였다. '97년이 되면 중국이 홍콩을 흡수하기보다 홍콩이 중국을 흡수하리라는 말이 항간에 나돌기도 했다. 그러나 홍콩은 이른바 '중국의 귀감', '중국의 본보기'라는 옛 매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이제는 기업 위주의 밀어붙이기식 홍콩형 경제개발에서 눈을 떼고 보수적인 내륙지방, 상하이와 양쯔강 유역의 중공업 지대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선천 등 특구에 대한 우대정책은 폐지하려 하면서 한편으로 상하이에는 우대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이것을 보더라도 중앙이 홍콩, 선천의 발전을 봉쇄하고, 상하이를 중국의 새로운 최대의 대외창구로 만들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 덩샤오핑의 권력 복귀와 함께 등장한 선천 경제특구, 그리고 덩샤오핑이 '84년에 반환 약속을 받아 낸 홍콩은 이제 덩의 죽음을 앞두고 그 역사적 사명을 끝내려 하고 있다.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반환 1년을 앞둔 홍콩 교회의 전망

이병일

이미 아는 대로 홍콩은 1842년 아편전쟁의 결과 영국의 식민지가 된 후, 1985년 영국과 중국의 홍콩 반환 협정에 따라 1997년 7월 1일 중국으로 넘어간다. 반환 협정에 따른 '기본법(基本法)'에는 향후 50년 간 홍콩은 특별 행정구로서 현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된 바 있으나, 현지에 사는 홍콩인들 치고 이 합의가 그대로 지켜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 없다. 한 마디로 홍콩의 미래는 상당한 변수를 갖고 있기에 불안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필경 역사의 파도 속에 한 시대를 보내야 하는 홍콩 주민들은 이 새로운 도전 앞에서, 한편 나름대로의 대책 마련에 고심하기도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필자가 홍콩에 입국했을 때(1988)만 해도 별다른 동요를 느끼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하루 하루 다르게 현지인들의 동요를 피부로 느끼며 살고 있다.

최근에 본 교회에 출석하는 교우 중 한 가

정(남편은 홍콩인, 부인은 한국인)도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싱가포르로 이주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이 가정의 경우 영주권 획득 후에는 다시 홍콩으로 돌아와 살기를 원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곳을 아주 등질 계획도 갖고 있다고 한다. 사실 이 같은 현지인들이 상당수 있는 바, 최근 이민을 신청한 수는 20만을 상회하고 있다.

전반적인 홍콩의 불안은 신앙적 차원에서 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교회의 삼자원칙(自治, 自養, 自傳)을 기본으로 하는 중국 정부가 홍콩의 주권을 인수한 후, 특별행정구라 해서 이 기본 정책을 쉽게 포기할 것이라 생각하는 홍콩 교회는 거의 없다고 본다. 추측하건대 홍콩의 교회들을 서서히 삼자의 원칙으로 묶으려고 할 것이며 또한 간섭할 것이 분명하다.

이미 보도된 바도 있지만 불과 수개월 전, '97년 9월 홍콩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던 루터교 세계대회의 개최를 연기(사실상 취소)하라고 하여 교회들이 바짝 긴장한 일도 있었다. 루터교단은 물론 세계 교회들의 강력한

반발로 인하여 대회 개최가 예정대로 허락되기는 했으나, 실제 그 때 가서 대회 분위기를 방해하는 돌발적인 일들이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홍콩 교회들은 어떠한가? 벌써 교회는 나름대로의 생존을 위해 중국 삼자교회와 협력하기 시작했다. 이미 까울룽(九龍) 도심지 한복판에 위치한 교회 건물에는 애덕기금회(愛德基金會: Amity Foundation-중국 교회가 외국의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설립한 공식기관) 간판이 걸려 있다.

현재 필자가 인지하고 있는 홍콩 교회는 양극적인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교회를 책임지고 나가야 할 젊은 사역자들이 이 불안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해외로 떠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잘 아는 젊은 목사 한 분도 그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가 두 교회로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가 하면 다른 한 편으로, 홍콩 교회로는 매우 드물게 새벽기도회로 모이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그 수는 많지 않지만 이런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며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런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역사의 전환기 앞에서 전진궁공하는 홍콩의 교회들을 이끌어 나가게 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

이런 현지 교회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편 한인 교회의 전망에 대해서도 일말의 불안감을 감출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필자가 담임하고 있는 홍콩제일교회를 한 예로 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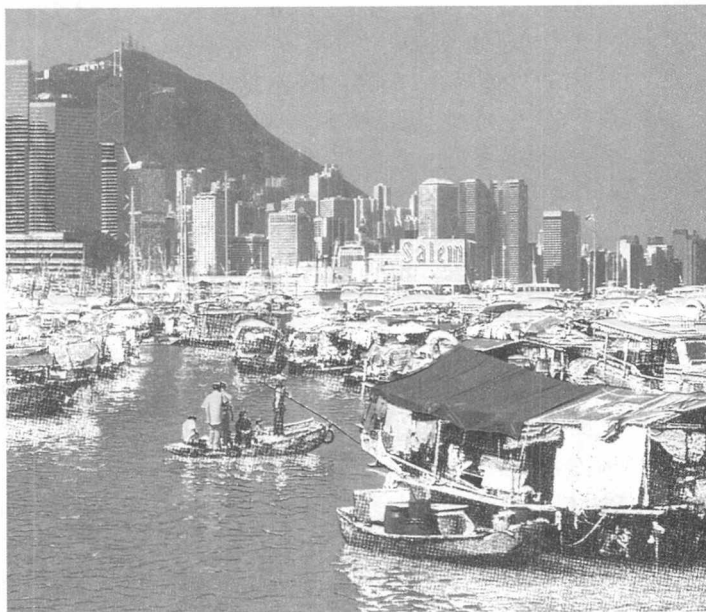
현지에서는 교회들도 법에 의하여 유한공사(有限公社)로 등록을 하여 세무서로부터 비영리 성격인 공공성 자선단체(Charitable Institution)로 인정을 받았다. 몇 년을 지내오면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바로 1개월 전 세무서로부터 수입과 지출에 대한 보고와 더불어, 자선단체로서의 대사회적 기부 행위나 공공사업에 기여한 사실들에 대해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본 교회로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러한 사실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러한 사실을 그대로 보고할 경우, 대부분 선교적 차원에서 행한 교회의 사업들이 저들의 판단으로 합당하게 여겨지겠는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어떻게 보면 이미 현지에 있는 외국인 교회들에 대한 사찰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97년 이후 현지에 있는 한인 교회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압력은 분명히 있으리라 본다. 가령 교회에서 교역자의 수급을 위해 비자 신청을 했을 경우 영국 정부처럼 수월하게 비자를 내줄까도 의문이다. 또한 교회의 대사회적 기여도가 낮은 경우를 빙자한 교회 건물(본 교회의 경우 300여 평의 대지에 단독 건물임) 개방 압력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제 홍콩의 한인 교회들도 안일하게 한국인만을 위한 만남의 장소 정도의 수준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이 격동의 시대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홍콩의 한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며, 한인 교회 역시 이 민족을 위해 꼭 필요한 교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저들



이 역지로 개방을 강요하기 전에 교회가 먼저 이 사회를 위해 나서야 한다.

본 교회는 이런 일들을 생각하며 초창기부터 매년 홍콩의 불우 노인들과 지체부자유자들을 위한 위로회를 개최해왔다. 지난 5월에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홍콩에서는 모친절·부친절이라 한다) 교회 근처에 있는 ‘노인의 집(유료 양로원)’을 방문하여 300여 명의 노인들에게 선물을 나눠주며 전도하기도 했다. 앞으로는 본 교회 시설을 지역사회를 위해 최대한 개방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실로도 개방할 예정이며, 주중에는 맞벌이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탁아소를 운영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한편 중국선교를 위해 홍콩을 경유하는 선교 동역자들을 위한 선교관

(Guest House)을 이미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특히 중국 서남지역(광둥, 윈난, 광시)에 선교센터를 운영하면서, 이곳에 대해 선교적 열정을 가진 사역자들과 협력할 것을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다.

홍콩의 '97년 7월 이후에 대해 우리는 염려할 뿐이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이 때를 당신의 호기(好機)로 이용하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이미 개방된 중국 안에 불기 시작한 성령의 뜨거운 입김을 체험한 신앙인이라면 결코 대륙 남단의 작은 땅 홍콩의 미래를 걱정스럽게만 바라보지는 않을 것이다.

이병일/ 홍콩제일교회 담임목사

중국의 성도들이 영의 양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에 자주 가신다고요? 중국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신다고요?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로 오십시오.

중국인을 위한 전도소재자와 양육·훈련교재가 있습니다.

여행, 단기선교, 비즈니스 등으로 중국을 방문하시려는 분들이 갖고 가는 이 책은,

중국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기쁨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국내 중국인 근로자선교를 담당하고 있는 교회나 개인도 환영합니다.

담당/ 중국어문선교회 CCL 협력부 차이나 간사(근무시간: 오전 9시~오후 5시)

오시기 전에 꼭 전화를 주십시오.

☎ 02)594-8038

풍부한 물산, 다양한 민족

쓰촨(四川) · 구이저우(貴州) · 윈난(雲南)

일반적으로 쓰촨, 구이저우, 윈난, 시짱(西藏)자치구를 포함하여 서남지구라 한다. 여기서는 편의상 3개 성만 다루고 시짱은 변방지역을 할 때 다루기로 하겠다. 서남지구는 중국의 중앙에 위치하며 대체로 고원과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자원과 인구가 많아 상당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지만, 내륙 지역 대부분의 농촌은 여전히 매우 가난하다. 특히 이 지역에는 30여 개의 소수민족이 밀집하여 살고 있다.

이 지역의 기독교인은 적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흩어져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다. 그리고 윈난이나 구이저우 등지에는 과거 선교사들의 헌신된 사역의 결과, 상당히 많은 수의 소수민족 기독교인들이 있다. 적절한 선교전략은 각 성의 도시에 있는 지식인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을 돕고 훈련시켜, 그들이 계속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훈련시키는 재생산 체계를 만들어 지역 자체의 복음화를 꾀하도록 하고, 더 나아가 내륙 농촌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쓰촨(四川, 川, Sichuan)



위치: 중국 남서쪽 방면, 장강(長江) 상류 유역에 있는 중국에서 2번째로 큰 성이다. 서쪽은 시짱자치구, 북쪽은 간쑤(甘肅)와 산시(陝西)성, 남쪽은 구이저우(貴州)와 윈난(雲南)성, 북서쪽은 칭하이(青海), 동쪽은 후베이(湖北), 후난(湖南)성과 접하고 있다.

면적: 570,000만km²

인구: 10,998만 명('92년 현재)

인구밀도: 193명/km²

민족: 쓰촨은 중국을 통틀어 가장 다양한 민족집단이 살고 있는 성이다. 한족, 이족, 티벳족, 미아오족, 후이족, 좡족 등 14개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 현재 남아 있는 소수민족들은 대부분 매우 독립적이며, 전통적인 생활양식을 강하게 고수하고 있다.

1인당 생산액: 2,360원(元)('92년 현재)

행정구역: · 성도(省都)-청두(成都:Chengdu) (地級市)

- 5개 직할시-청두(成都), 충칭(重慶), 쑤궁(自貢), 두커우(渡口), 루저우(瀘州)
- 9개 지구-팡시엔(方縣), 페이링(涪陵), 내이강(內江), 이빈(宜賓), 러산(樂山), 미엔양(綿陽), 난충(南充), 다시엔(達縣), 야안(雅安)
- 그 밖에 3개 자치주, 12개 현시(縣市), 182개 현, 8개 자치현

기후: 동부 고원지대는 생각보다 따뜻하는데, 주변의 산들이 차가운 한대기단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동부에는 “촉(蜀)나라 개는 해를 보고 짖는다”는 말이 있을 만큼 안개가 자주 끼고 흐린 날이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상대적으로 바람은 적고 습도가 높다. 동부 분지는 겨울은 따뜻하고 여름엔 극심한 무더위가 계속된다. 강우량은 1,000mm 내외이며 서부고원은 서늘하고 건조한 기후를 나타낸다.

오지와 풍요의 양면성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 조조, 손권이 천하를 놓고 힘을 겨뤘던 역사의 무대가 바로 쓰촨성이다. 성도(城都)인 청두(成都)는 삼국시대 촉한(蜀漢)의 도읍지였다. 쓰촨성은 중국 최대의 쌀 생산지이며 입안이 타는 듯 매운 요리로도 유명한 지역이다.

쓰촨성은 전국적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성이다. 인구밀도는 가장 높지만 주민들의 분포상태는 고르지 않다. 주민의 95%가 동부에 모여 산다. 농공업 총생산액 및 1인당 생산액도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는 쓰촨성이 중국의 중심지대에 위치하며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진데다가 쓰촨분지의 우월한 자연조건, 풍부한 물산, 장기개발에 의한 공고한 경제기초, 풍부한 노동력, 고도의 노동기능에서 연유된 것이다. 물산이 풍부하여 예로부터 “토지가 비옥하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天府之國)”으로 불렸다.

옛날부터 베이징(北京), 상하이(上海), 톈진(天津) 등 대도시를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 식료품을 공급해 왔으며, 지금도 돼지고기, 식용유, 차 등 주요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공급기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건국 이후 국책으로 추진된 내륙공업화 정책으로 인하여 철강, 기계, 전기전자 등 중공업 분야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쓰촨분지의 풍요로운 경작지대를 빼놓고,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시짱(티벳)과의 경계지역은 오지로 남아 있다.

쓰촨 사람은 일반 중국인에 비하여 순박하고 질서와 예의를 지키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다. 예로부터 부지런하기로 정평이 나 있어, 안개 사이에서 늦은 시간까지 논일을 하는 농부의 모습은 쓰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이들은 주로 농업, 가내공업, 소상업, 운수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쓰촨의 산과 물이 다른 성들에 비해 좋은 것처럼, 온화한 성품을 갖고 있는 주민들은 소박한 생활방식을 영위하고 있다. 쓰촨성 칭안(慶安)은 1904년생 덩샤오핑의 고향이기도 하다.

<삼국지>의 배경 청두(成都)

쓰촨성의 성도, 청두평원 중부에 위치하며, 면적 1.24만 km², 인구 937만 명이다. 비농업인구는 171만으로 서남지역 제2의 대도시이며 내륙의 신흥 공업기지가



티벳 쯡족(藏族)들이 특이한 방식으로 건축하고 있는 모습.

다. 쓰촨성은 물론 중국 서남 지방 일대의 정치, 경제 중심지이기도 하다.

온화한 기후여서 겨울에도 비교적 따뜻하며 강수량이 풍부하여 땅이 기름지다. 중국의 곡창 가운데 하나이며, 풍경이 아름다운 관광도시이기도 하다. 시내와 인근에 명승 고적이 산재해 있다. 청두는 오랜 역사를 지닌 것 못지않게 이름이 많다. 청두는 역사문화의 도시로서 옛부터 농업이 성하였고, 채색·비단 등의 수공업 제품으로 이름을 떨쳤다. 한대(漢代)에는 ‘비단의 도시(錦城)’라 불리기도 했고, 촉나라 때는 성 둘레에 연꽃을 많이 심어서 ‘연꽃(芙蓉)의 도시’라 불린 적도 있다.

옛부터 지형이 험해서 하늘에 오르기보다 더 험난한 곳이라고 일컬어져 왔다. 그러나 오늘날은 항공편이 발달하여 대부분의 중요 도시와 연결되어 있고, 철도는 물론 민강(岷江)의 수운을 이용할 수 있는 중국 서남지역 최대의 교통 요지이다.

국제도시로 떠오르는 충칭(重慶)

충칭시는 우리에게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가 있는 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장강(長江) 유역의 최내륙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구 1천4백만을 자랑하는 중국 최대의 도시이다. 충칭은 우한(武漢), 난징(南京)과 함께 중국의 3대 쟁점 도시라고 할만큼 여름에는 습도가 높고 온도가 40℃를 웃도는 날이 많다.

충칭시는 단일 성으로는 중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쓰촨성의 물류 중심지이며, 보다 넓게는 2억5천만 명이 넘는 서남지역의 경제적 창구 역할을 담당하는 국제도시이다. 또한 충칭시는 도심지역이 가릉(嘉陵)강과 장강에 둘러싸여 있어, 장강을 이용하여 서남지역과 우한, 난징, 상하이를 잇는 내륙 수로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을 지닌 충칭시는 중국 대륙의 서남부에 위치한 관계로 동북아시아 국가보다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투자 진출이 활발한 편이다. 특히 홍콩과 싱가포르는 현재 충칭과 직항로까지 개설하고 투자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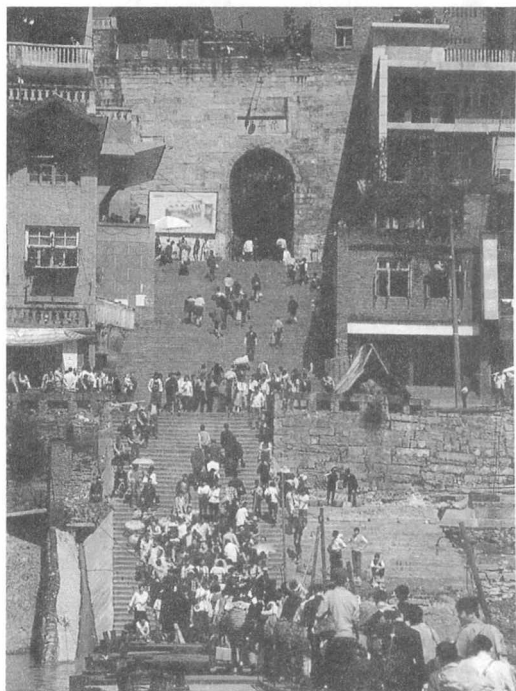
다.

이렇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 지역에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이곳이 급후의 내륙개발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기독교 역사, 현황

1869년 존 그리피스(John Griffith)가 복음을 들고 이곳에 도착했다. 그는 허베이에서 산시까지 강을 따라 항해하며 마침내 쓰촨에 도착하였다. 보수적인 침례교인들이었던 중국내지선교회의 선교사들 역시 이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많은 다른 선교회들과 더불어 내지선교회도 청두에 그들의 본부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리하여 1940년대 말에는 13개 교파와 18개 교회가 세워졌다.

문화대혁명 동안에 모든 교회들이 폐쇄되었으나, 개혁 개방 이후 많은 삼자교회들이 다시 문을 열었다. 그러나 과거 공산정권의 핍박을 기억하면서 아직도 비밀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교회 성도들이 많다.



장강을 지나는 주요 상업 항구가 있는 쓰촨성. 쓰촨성 동부의 주요 항구인 완산시.



쓰촨성의 한 마을에서 장례식을 하고 있다. 무덤으로 가는 길에 가족들이 한 줄로 길게 엎드린 채로 통곡하는데, 그 위로 운구가 지나가고 있다.

구이저우(貴州, 黔, Guizhou)



위치: 중국 남서부 원구이 고원에 위치. 북으로는 쓰촨성, 서로는 윈난성, 동으로는 후난(湖南)성, 남으로는 광시좡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와 경계를 이루며, 바다와 면하지 않는다. 지형이 험준하고 왕래가 적어서 고립지가 많다.

면적: 176,100km²

인구: 3,361만 명('92년 현재)

인구밀도: 191명/km²

민족: 주민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한족을 비롯하여, 미아오, 부이, 둥, 이, 수이, 후이, 걸라오, 좡, 야오족 등 다수의 소수민족이 600여만 명 정도로, 전 성 인구의 25%를 점하고 있다.

1인당 생산액: 1,425원(元)('92년 현재)

행정구역: · 성도(省都)-구이양(貴陽:Guiyang)

· 2개 지급시-구이양(貴陽), 리우판수이(六盤水)

· 4개 지구-통렌(銅仁), 준의(遵義), 화지에(華節), 안순(安順),

· 3개 자치주-黔西南 布依族·苗族 자치주, 黔東南 苗族·侗族 자치주, 黔南 布依族·苗族 자치주

· 그 밖에 7개 현급시, 84개 현, 11개 자치현으로 나뉘어 있다.

기후: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한데 시베리아의 찬 기류를 산맥들이 막아주기 때문이다. 강수량이 매우 일정하고 풍부한 이 지방은 유형적으로 습기가 많고 구름이 많이 끼며, 비오는 날이 길고 일조량이 적은 편이다. 한번 비가 오면 사흘 정도는 계속되는 것이 보통이다.

아름다운 땅, 가난한 사람들

과거 구이저우성을 표현하는 두 단어를 찾으려면 가난과 미개를 꼽았다. 한(漢)나라 때부터 중국의 영토로 불렸지만, 역사상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최근에 이르러서였다.

19세기에 들어와 윈난성, 쓰촨성의 인구 포화지역에서의 이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반면, 산세가 험하고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이 궁핍하기로 유명한 성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오지이다. 실제로 75%의 한족 이외에 소수민족의 집중 거주지이다. 문명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는 하지만 60~70%의 문맹률을 기록하고, 50% 이상이 도로의 연결이 불가능한 지역에 살고 있다. 집의 개념보다는 동굴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97% 이상이 평균 고도 1,000m 이상의 산악지대여서 여행자들도 무척 적다.

구이저우성은 험준한 산지와 고원으로 이루어져 지리적 위치 및 자연조건이 불리하지만, 카르스트 지형이어서 아름답고 신기한鍾유동이 많아 관광자원으로의 개발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풍부한 광산자원

과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자원의 이용 상황은 극히 미진한 상태에 있다.

소수민족의 도시 구이양(貴陽)

구이저우성의 성도로서 성 중부 5개구를 관할한다. 면적은 2,436km², 주민은 159만 명으로 한족, 미아오족, 부이족, 후이족 등이 혼거하고 있다. 시구(市區)의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분지로서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으로 유명하다.

공업이 신속하게 발전되었으며 알루미늄, 석탄, 철광석, 납, 금, 은 등 광물자원이 풍부하며 중국 최대 매장량의 수은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광산 기계 및 담배 등을 생산하는 공장이 들어서 있다). 항공교통의 요충이며 쿤밍(昆明), 난닝(南寧), 창사(長沙)로 가는 철도 여행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평균 해발 1,070m. 농업으로는 논농사가 성하고 옥수수, 담배 등이 주로 재배된다.

1958년 이전에는 열차가 통행하지 않았으나 현재에는 삼검(湘黔), 귀곤(貴昆), 천검(川黔), 및 검검(黔

桂) 등 4개 철도간선의 교차점으로서 통과능력이 매우 큰 구이양 철도 중추역이 건설되어 있다.

이 지역은 3천년 전의 상(商) 왕조 이래 역사의 무대가 되었던 유서 깊은 곳이다. 구이저우성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는 소수민족은 독특한 건축물과 1년에 100개가 넘는 민속축제 등 고유 문화를 창조해냈다. 대부분 지역에 독립심이 강한 미아오(苗)족이 살고 있어, 개척하기 어려운 지역이기도 하다. 소수민족들은 손님대접하기를 좋아한다.

기독교 역사, 현황

구이저우성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노력은 교통의 불편함과 함께 백인에 대한 반감 등으로 많은 방해를 받았다. 그런 중에도 복음의 씨를 뿌려졌다. 한의사 선교사가 처음으로 이곳에서 의료사업을 통하여 꾸준히 복음을 전한 결과, 천여 가정이 그들의 우상을 버리고 기독교인이 되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시작된 선교사역은 그후 꾸준히 발전하여 1920년대에는 이곳에 신학교가 세워질 정도로 부흥하였다. 이곳에 살고 있는 150만 명에 달하는 미아오족은 많은 사람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에 있다.



구이저우 성에 사는 미아오족이 독특한 복식 형태를 갖추고 있다.



구이저우 성 미아오 족의 특산물인 마오타이 주(酒)를 먹고 있다.



윈난(雲南, 滇, Yunnan)



위치: 중국 남서 변경에 있는 성(省). 북서쪽은 시짱자치구(西藏自治區; 티베트), 북쪽은 쓰촨성, 동쪽은 광시좡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 및 구이저우성과 맞닿아 있다. 또 서쪽으로 미얀마, 남쪽과 남동쪽으로는 라오스 및 베트남과 인접해 있다.

면적: 394,000km²

인구: 3,832만 명('92년 현재)

인구밀도: 92명/km²

민족: 한족은 전 성 인구의 68.3%를 차지하며, 미아오, 바이, 이, 부랑, 하니, 두룽, 좡, 다이, 리쭈, 후이족 등 20여 개의 소수민족이 31.7%를 차지하고 있다(1,370만 명).

1인당 생산액: 1,897원(元)('92년 현재)

행정구역: · 성도(省都)-쿤밍(昆明: Kunming)

· 2개 지급시-쿤밍(昆明), 둥촨(東川)

· 9개 현급시-취징(曲靖), 위시(玉溪), 추쑤(楚雄), 따리(大理), 께양(个陽), 징홍(景洪), 루이리(瑞麗), 카이위엔(開遠), 샤오통(昭通)

· 7개 지구-샤오통(昭通), 취징(曲靖), 위시(玉溪), 쓰마오(思茅),

린룬(臨瀾), 바오산(保山), 리장(麗江)지구

· 그 밖에 8개 자치주, 112개 현, 19개 자치현으로 나뉘어 있다.

기후: “사시여춘(四時如春)”이라는 말이 있듯이 연중 온화한 봄의 날씨이다. 아열대 지역이지만, 고도가 높아서 여름철에도 서늘하며, 겨울에는 산맥들로 막혀 있어 온화하다. 연강수량은 많은 편으로 600~2000mm 이상이며, 계절풍의 영향으로 건기(11월~4월)와 우기(5~10월)가 형성된다.

중국에서 가장 많은 소수민족(26개 종족)이 모여 살고 있으며 지리와 기후 또한 각양각색인 윈난성은 중국에서 4번째로 큰 성이다. ‘유색금속 왕국’, ‘동물 왕국’, ‘식물왕국’ 등의 별명을 갖고 있지만, 편협한 위치 및 역사적 원인으로 오랜 기간 내지와의 교통이 두절되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낙후된 곳이다.

개혁 개방 이후 설탕, 담배, 차 등의 경공업 원료와 과일, 향료 등의 생산과 국경 무역을 통해 신속하게 발전, 서남지역 경제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어 황금시대를 맞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56%의 현이 빈곤한 생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곳 주민들의 일부는 원래 거주하던 주민이고 일부는 중국의 여러 성으로부터 온 이주민이다. 주로 산간 지역에 살기 때문에 성격이 소박하고, 소수민족의 복장, 풍습, 언어를 잘 보존하고 있으며 낙천적이다. 윈난성 주민들은 주로 평원이나 강 유역에 살며, 벼농사가 주업이다. 윈난 주민의 약 10%는 도시에 산다.

한족과 비한족 이주민들 사이, 혹은 한족과 소수민

족 사이에 통혼이 수없이 이루어져 왔다. 실제로 동화되지 않은 비한족 주민들도 있는데, 그중 다수민족이 21개 집단, 소수민족이 60개 집단이나 된다. 이들은 서로 섞여 살며, 한 마을에 한 종족만 사는 경우는 없다. 한족과 통혼한 소수민족 가정 중에 76%의 자녀들이 소수민족의 신분을 선택, 정부가 주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형태는 매우 다양해 라후족처럼 여전히 원시사회의 모습을 띤 부족이 있는가 하면, 바이족, 후이족처럼 비교적 진보한 소수민족도 있다. 소수민족의 사회 진출도 매우 높아 현재 윈난성 장인 허즈치양(和志強)은 나찌족이고 부성장 따이광루(戴光如)는 좡족이다.

윈난성은 인류의 발원지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다. 또한 산수가 수려하여 관광자원도 풍부하다. 쿤밍의 윈시림과 리장의 대리석, 징홍을 위주로 한 열대우림은 손꼽는 명물이다. 베이징 국무원은 '92년에 국가급 여행지역을 제정했는데, 11개 지역 중 유일한 내륙지역인 쿤밍이 휴양지로 결정되었다. 지금은 각 기관마다 관광을 주 사업으로 외화벌이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원난성의 음식도 어느 중국 음식처럼 기름기가 많아 한 두 끼 이상 먹으면 물리고 만다. 그러나 소수민족인 이족이나 라후족의 음식은 김치, 된장 등 우리 음식과 비슷한 것이 많다.

봄의 도시 쿤밍(昆明)

원난성의 성도, 원구이(雲貴)고원 중부 해발 1,895m의 고원지대에 자리잡고 있다. 아무리 더워도 섭씨 30℃를 넘는 일이 없고 위도가 낮아 한겨울에도 15℃ 이하로 떨어지는 일이 드물다. 사시사철 온난한 기후 때문에 '봄의 도시(春城)'라고 불린다.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쿤밍은 산의 경관이 빼어날 뿐 아니라 유서 깊은 사원과 건축물 등이 있으며 중국에서 여섯 번째로 큰 호수인 면적 330km²의 전지(滇池)를 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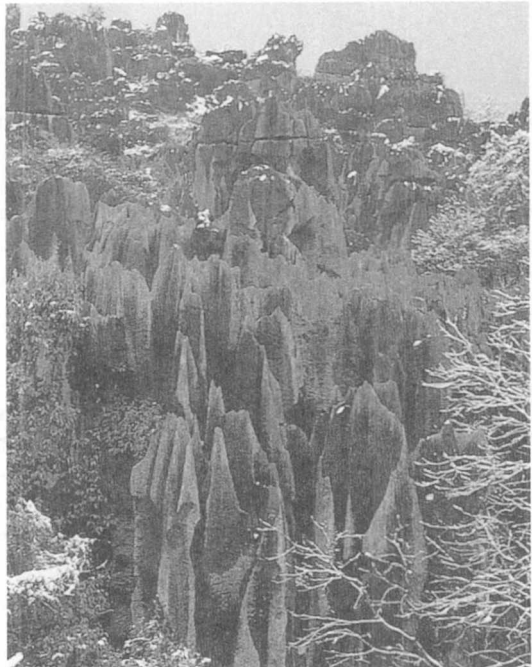
인근에 있는 다리(大理), 리장(麗江), 스린(石林), 시쌍판나(西雙版納) 등의 관광지로 가는 중심지로, 베이징과 서안(西安)에 이은 중국 3대 관광지로 꼽히는 곳이다. 해발 2,000m의 도시답지 않게 인구도 300만 명에 육박하고 중국 서부에서 가장 큰 도시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다. 쿤밍에서 동남쪽으로 약 130km쯤 떨어져 있는 스린(石林)은 이름 그대로 '바위의 숲'이다. 죽순처럼 돋아난 바위들이 기묘한 형상을 하고 있는 세계적인 관광 명소이다.

대리석의 원산지 다리(大理)

원난성 서부에 있는 다리는 쿤밍에서 서쪽으로 400km 거리에 있으며, 버마 국경에서는 150km 떨어진 곳에 있는 작은 도시이다. 표고 2,086m의 고지에 있으나 여름 기온이 20℃를 넘고 겨울에도 온난하여 옛부터 벼농사가 성했다. 시가지 서쪽에 울창한 숲을 이루며 솟아 있는 창산(倉山)은 세계적인 대리석 산지이다. '대리석(大理石)'이란 명칭도 이 지역에서 유래된 것이다. 현재 다리는 쿤밍, 버마, 티베트를 잇는 교통의 요지이자 상업도시로 번영하고 있다.

기독교 역사

원난성에서의 첫 개신교 선교는 1877년 존 맥카시(John McCarthey)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며, 바로 그 뒤를 이어 중국내지선교회가 들어왔다. 40년 이내에 이 지역에서는 75명의 선교사들이 거의 200개에 이르는



스린(石林)은 수만 개의 바위들이 기묘한 형상을 하고 있는 아름다운 곳이다.

전초기지 혹은 집회 장소들을 활용하면서 활동하였다. 그러나 험난한 지형과 산적들이 복음의 전파를 방해했으며 적지않은 외국인 사역자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프레이저(J.O. Fraser)와 존(John), 그리고 이소벨 쿤(Isobel Kuhn)과 같은 사람들은 리쑤(栗)족에게 매우 효과적인 사역을 수행했다. 프레이저는 1934년 성경을 리쑤어로 번역하였으며, 1943년에는 정식 교회가 수립되었다. 또한 알콜중독과 무질서로 악명높았던 커자(客家)인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갔으며 많은 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다.

현재 전도인과 목회자가 매우 부족하며 기독교 서적도 부족하다. 일반 성도들에겐 아직까지 성경이 없는 편이다. 교회 관리자들과 성도들 간에, 그리고 젊은 목회자와 연로한 목회자들간에 모순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에 따라 '92년도엔 중국 정부의 인가를 얻은 원난신학대학이 폐쇄되기까지 이르렀다.

'90년도 통계에 따르면 백만 이상의 불교 신자가 있으며 소수민족의 원시종교를 따르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진다고 한다.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시련으로 변화되는 인생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히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매 순종하는고 하더라”
(눅 8:25)

우리들은 항상 우리가 평안한 날을 보낼 뿐 아니라, 순탄한 길을 다니며 범사에 내 뜻대로 되기를 주께 구한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생활만 계속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원한다면, 우린 반드시 많은 시련과 곤고, 갈등 그리고 순조롭지 못한 일들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경 가운데에서 우리들은 비로소 놀라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우리들이 정말로 주를 사랑하려고 할 때, 가끔 혼란스럽고 해결되기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다. 이러한 풍랑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잘 알게 한다. 평범하고 순탄하기만 한 인생길에서는 놀라운 간증이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들이 점차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전능하심을 체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경외하며 섬길 것인지 깨닫게 된다. 주님께선 말씀하신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벧전 1:7)”

허름한 방 한 칸에서의 찬양



장잉메이(張英梅)

저는 농촌에 사는 한 젊은 여성입니다. 학교 졸업 후 8년 동안 도시에서 살았는데, 복음에 대해선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93년 가을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는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저는 늘 미래의 삶에 대해 허무한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제 인생의 목표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저는 저의 몸과 마음을 주께서 사용하시길 원했습니다.

가슴 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다.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 이곳 고향에도 교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보통 교회당이 아니라 40~50명이 겨우 다닥다닥 앉아서 집회를 할 수 있는 작은 방 한 칸이었습니다. 처음 이 작은 방안으로 들어갔을 때 제 마음 속에 일어난 감정은 뭐라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40여 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낡고 허술한 집을 빌려 주의 성전으로 삼고 그 안에서 주께 경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마음은 참으로 고귀했습니다.

깊이 감동된 저의 두 뺨엔 눈물이 흘러 내렸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이 교회에서 조금이나마 봉사하기 위해, 다시는 도시로 나가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고향에 남았습니다.

아주 오래 전엔 이곳에도 큰 교회당이 있었지만 문화대혁명 당시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형제 자매들은 끊임없이 예배당을 위해 기도해왔는데, 정부에서 우리들이 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빈터를 내 주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 곳에는 아직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농촌 성도들이 자신들의 예배당을 통해 더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들은 마땅히 그들과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그의 계획하신 때에 땅을 주셔서 예배당을 건립할 수 있도록.....

성도들의 마음이 온전히 드러질 때, 허술한 방 안에서 나오는 찬송도 감동적인 하늘의 선율이 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제사가 될 것입니다.

중국어문선교회 자료실 이용 안내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는

중국 기독교 · 정치 · 경제 · 사회 · 역사 · 소수민족 · 선교전략 등에 관련된

정기 간행물, 논문, 각종 세미나 강의안, 단행본 등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열람하길 원하시거나 필요하신 분은 직접 오셔서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연구부에서 일할 파트타임 자원봉사자와 간사를 찾습니다.

PC 통신을 통한 중국 관련기사 스크랩(PC통신을 갖고 계신 분은 집에서도 가능),

중문연구자료 번역, 도서 정리 등에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서 자료 정리 및 분류작업에 달란트가 있는 분들의 간사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연락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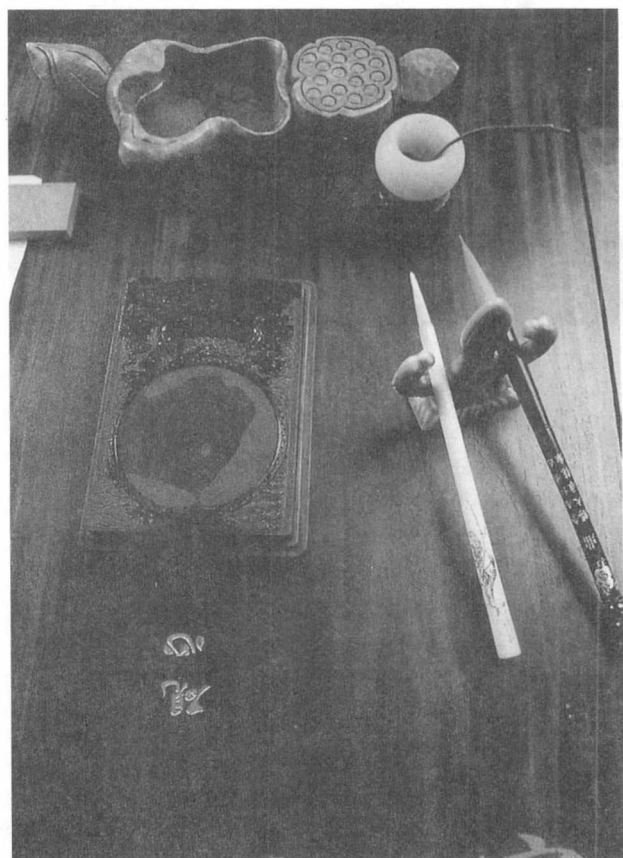
담당: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 02)533-5497



중국문화
중국문

문방사보 (文房四寶)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붓, 종이, 먹, 베풀이 네 가지 물건을 「문방사보(文房四寶)」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이것은 중국의 많은 독서인(讀書人)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서법과 회화는 독특한 풍모를 갖추고 있는데, 최근 몇 년 동안 국제적으로도 매우 알려져 화제가 되었다. 서화 예술가는 반드시 붓과 먹, 종이, 베풀의 힘을 빌었으므로 문방사보가 중요시되었고, 그 특성에 따라 현재 중국 고유의 서법과 회화의 미를 발전시킬 수 있었으므로 문방의 네 가지 보물로 여겨진 것이다.

「예술가가 그 작품을 잘 이루려면, 반드시 먼저 그 도구를 예리하게 다듬어야 한다(工欲善其事, 必先利其器)」고 하여 서화 예술가들은 공구의 선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중국 역사상 당(唐), 송(宋) 두 시대에 문예 풍조가 가장 흥왕하였다. 당시의 명가(名家)에서 제조된 뛰어난 「문방사보」들이 있다. 마치 당 나라 때 '제갈(諸葛)의 붓', '단계(端溪)의 베풀'처럼 불리게 되는 것이다. 오대(五代)의 '이정규(李廷珪)의 먹' 또는 '등심당(澄心堂)의 종이' 등은 역사적으로도 널리 명성을 얻은 작품이며 후대 문인들에게 격찬을 받았다. 즉 문방사보는 우수한 품질로서 서화에술에 대해 직접적인 공헌을 한 것이다.

송대에는 인쇄술이 널리 보급되었으며, 종이와 먹이 대량으로 생산되었기 때문에 걸출한 서화 예술가가 많이 배출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작품도 세상에서 빛을 발하였다. 또한 많은 판본도서는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으며, 종이의 질과 먹의 색깔 상태는 천년을 거쳤는데도 변함이 없어 그 품질의 우수성을 증명하고 있다.

「붓」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중국 서화 예술에 이바지한, 그 무엇보다도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도구이다. 붓의 발명은 매우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근대 고고학의 새로운 자료가 증명하는 바에 따르면, 갑골문자(甲骨文)는 먼저 붓으로 글을 쓰고 난 후에 다시 칼로 새

기면 필치가 완연하게 드러난다고 한다. 갑골문은 중국 고대 은상(殷商)시대의 산물이므로, 붓의 역사도 그 근원을 찾아보면 적어도 3천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붓의 특성은 탄력성에 있다. 중국의 전통 필기구인 붓과 현재 통용되고 있는 볼펜이나 만년필 등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필기구들은 그 끝이 모두 금속으로 만들어진 데 반해, 끝이 부드러운 머리를 이루고 있는 붓은 바로 부드러운 동물의 털로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만년필과 볼펜의 펜촉은 종이 위에 그려낸 선이 가볍고 무겁거나, 굵고 가는 등의 차이가 크지 않다. 반면 붓은 붓머리가 유연하므로 종이 위에서 붓 머리가 평면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제외하고는, 붓을 위로 올려치거나 아래로 내려 그으면 선의 모양이 달라진다. 그래서 종이 위에 선을 가늘게 또는 굵게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중봉(中鋒)과 측봉(側鋒) 혹은 건필(乾筆)과 습필(濕筆) 등 필법에 따라 글의 모양이 매우 다르게 된다. 붓은 이러한 특성을 지니고 중국의 서법과 회화에 독특한 풍격을 만들어 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붓에는 「양털 붓(羊毫)」, 「황모 붓(狼毫)」, 「자호(紫毫)」 등이 있다. 「황모 붓」은 쪽제비 털이며, 「자호」는 토끼 털로 만든 것이다. 「양털 붓」은 털이 부드러워서 물을 많이 빨아들이고, 「자호」는 힘이 있어서 글쓰기에 좋다. 때로는 강한 털과 부드러운 털이 적당히 섞인 것으로 붓을 만들기도 한다. 이것을 「겸호(兼毫)」라고 하는데, 두 가지 서로 다른 동물의 털을 합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서화가들이 사용하는 붓은 사람에 따라 그리고 습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다른 것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며 다른 성질의 붓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붓에 맞추어 사용하는 것은 「먹」이다. 먹은 그을음(연기)과 아교의 혼합물이다. 소나무 그을음(松燃)과 기름 그을음(油燃), 그리고 칠 그을음(漆燃) 등으로 구분된다. 먹은 서화 예술의 표현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서화가들은 먹의 선택에 매우 신경을 쓰게 된다. 좋은 먹이란 재질이 섬세하고 균등해야 하며, 견고하면서도 점성이 없고 먹의 색깔이 명료하게 조화를 이루어 광채가 신선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 먹의 색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예술작품의 성패가 달라지기도 한다.

「벼루」는 먹과 서로 보완되어 사용되어지는 것으로서 돌로 만든다. 돌의 재질은 반드시 밀도가 고르게 된 것이어야 하며, 먹이 잘 갈아져 붓을 상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 벼루는 소재의 재질이 견고해야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다. 옛날 사람들은 벼루 위에 시제(詩題)를 새겨서 문방 장식품을 삼아 후세에 그것을 전함으로서, 한낱 도구에 지나지 않을 것을 가치있는 관상 예술품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종이」는 기원전 2세기 동한(東漢) 시대 사람인 채륜(蔡倫)이 발명한 것으로 전인류 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700여 년 후 회교국가에서 종이 만드는 기술을 배워갔고, 약 400여 년이 지나자 비로소 북 아프리카와 스페인을 거쳐 유럽 대륙으로 퍼져 나갔으며, 파피루스와 양피지를 대신하게 되었다.

현재 국내외에 이름이 널리 알려진 쉬엔즈(宣紙: 화선지)는 대만 난터우(南投)현의 푸우리(埔里)진에 있는 30여 가구의 종이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다. 이렇게 수공으로 만든 종이는 질이 유연하여 적합한 온도의 흡수성과 붓, 먹의 사용에 대해 효과를 발휘하여 서로 조화를 잘 이룬다.

중국의 서화 예술은 전통적 도구인 「문방 사보」를 통하여 중국인의 사상과 문자, 생활과 감정을 전달해왔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불후의 공적을 이루어 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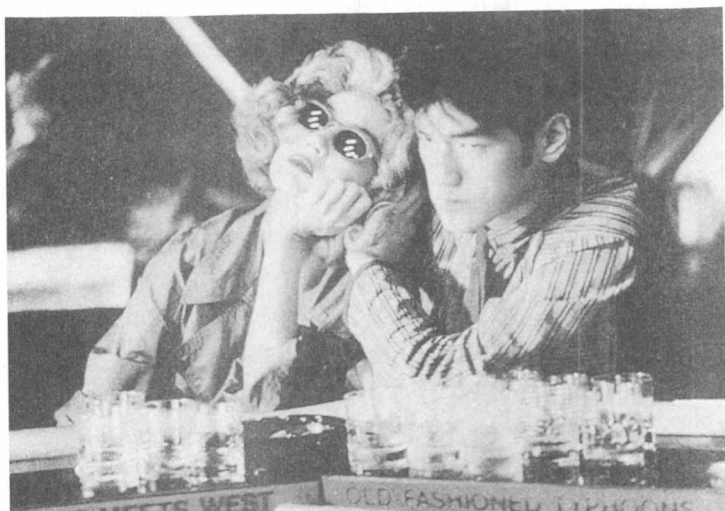
위 글은 대만 光華雜誌社의 〈中國人的註冊商標〉에서 발췌한 것이다.

번역/ 이민선 · 본지 편집기자

아비정전(阿飛正傳), 중경삼림(重慶森林)

젊은 영화감독에게 비친 홍콩, 그 우울한 보고서 끝에 건져올린 희망

김현경



최근 한국에서도 대단한 인기를 끈 왕가위 감독의 영화 「중경삼림」

얼마 전 신문에 홍콩의 유명한 코믹 배우인 주성치가 캐나다로 이민 신청을 했는데, 홍콩 마피아와의 관련성 여부 때문에 기각되었다는 내용이 실렸다. 그뿐 아니라 주윤발, 장국영 등 홍콩의 유명 배우들은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 등으로의 이민을 끝내고 홍콩에서 활동만 하고 있다. 또한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홍콩 사람들은 가족과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는 노력을 암암리에 기울이고 있다.

이 모든 일들 뒤에는 홍콩 반환 시기가 내년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이 무거운 배경으로 흐르고 있다. 중국에서는 반환 후에도 홍콩에는 그다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하고 있지만, 100여년 가까이 중국과 궤적을 달리해 왔던 홍콩인들에게 우선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한 공포감은 중국이 천안문사태를 무력으로 진압하는 것을 보고 더욱 증대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홍콩인들은 언제든지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피신할 안전장치를 미리 준비해놓고, 그 날이 다가오는 것을 호기심과 두려움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중, 고등학교 시절 세계사 시간에, 홍콩은 중국이 영국에게 100년

동안 빌려준 도시라고 배웠지만 홍콩이 중국에 속해 있는 곳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그 때만 해도 중국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땅덩이가 큰 공산국가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홍콩은 자유무역지, 화려한 밤거리, 가짜 유명상품의 천국이라는 이미지가 컸기 때문이다. 그 후 「영웅본색」 류나 「첩혈쌍웅」 등의 영화들을 통해서 다가온 '홍콩'은 내 상상과 그리 다르지 않았다.

총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생각보다는 무시무시한 도시일지 모른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그런 데 작년, 그

동안 우리 나라에 소개되었던 영화와는 전혀 다른 풍으로 홍콩을 소개하는 새로운 감독에 의해 홍콩에 대한 인상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에 그의 영화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팬들이 증폭되고 있다는 왕가위(王家偉) 감독이 바로 그이다. 주로 홍콩 젊은이들의 고뇌와 방향을, 줄거리가 아닌 영상으로 이야기하는 30대 젊은 감독의 특이한 영화 연출법은, 비단 홍콩인들뿐 아니라 도시 속에서 비슷한 외로움을 느끼는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얻었다. 더구나 홍콩 반환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의 영화 속에 나타나는

홍콩 젊은이들의 모습은 지금 홍콩이 겪고 있는 불안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 같아 관심을 모으고 있기도 하다.

그의 영화 중에서 각각 1960년대와 1990년대 홍콩 젊은이들의 모습을 다룬 「아비정전」과 「중경삼림」을 통해 홍콩인이 말하는 홍콩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자.

「아비정전」은 1960년 4월 16일



'60년대가 영화상의 배경이기는 하지만 영화 전반에 흐르는 분위기는 '90년대의 홍콩이다.

대부분의

오후 3시에 시작해서 1961년 4월 13일에 끝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왕가위 감독이 홍콩에 이민 온 시기는 1963년으로, 그는 그가 속해 있지 않은 홍콩의 '60년대를 그린 것이다. 그가 1960년 4월 16일을 이야기의 시작으로 삼은 이유는, 그 날이 처음으로 인간이 인공위성을 띄운 날이었고, 같은 연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는 것을 영화자료로 수집하면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60년대의 분위기가 젊은이들의 시대, 희망에 충만한 시대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반면에 「아비정전」을

만들던 '90년은 그 때와는 반대로 점점 더 보수적이 되어가고, 환경보호운동이 시작되어 우주에 나가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60년이란 시간을 택하게 되었다고, 한 영화전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비정전」에서 그러한 희망을 발견하기는 힘들다. 전체적으로 어둡고, 여간해서는 밝음을 찾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은

왕가위 감독의 영화가 그런 것처럼 「아비정전」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아비(장국영 분)는 20대 후반의 젊은이이다. 클럽의 가수였던 양모에게서 자랐는데, 양모가 생모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매사에 어긋나기만 한다. 1960년 4월 16일 오후 3시에 1분 동안 함께 한 것을 영원히 잊지 않겠다고 하면서 장만옥에게 접근해 사랑을 얻어내지만, 그는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다. 결국 장만옥은 그를 떠나가고 그 후에 만난 유가령과도 곧 동거에 들어가지만, 그는 그 누구에게도

진정한 마음을 주지 않는다.

그러다가 양모가 늙은 미국인과 결혼해 도미해야 할 상황이 벌어지자, 결국 양모는 생모가 필리핀에 있다고 알려준다. 아버지는 생모를 찾아가지만 생모는 그를 만나주지 않는다. 생의 오직 하나의 이유였던 생모와의 만남도 결국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미국으로 가기 위한 여권을 만들기 위해 브로커들과 상대하게 되고, 결국 그들의 돈을 갚지 못해 소란을 일으키다 죽임을 당한다.

한편 장만옥은 아버와 헤어진 후에도 늘 그의 집을 맴돌다가, 그때마다 만나게 되는 경찰(유덕화 분)을 통해 상처를 회복하게 되지만 그들의 사이는 오래 가지 못한다. 유덕화는 선원이 되어 필리핀에서 아버를 만나게 되고 그의 죽음을 지켜보게 된다.

아버지정전은 왕가위 감독이 시간을 본격적으로 다룬 첫 번째 영화이다. 왕 감독은 특정한 시간을 지칭해서 시간 자체를 다루곤 한다. 그에게 시간이란 하나의 강박관념이거나, 아니면 주제의식처럼 보이기도 한다. 어쩌면 홍콩 반환을 일 년 앞두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홍콩에 살고 있는 홍콩인으로서 더욱 시간에 대한 개념을 붙잡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영화에서 아버지는 자신을 ‘발이 없는 새’라고 말한다. 그래서 하늘을 떠돌다가 힘이 다하면 언젠가는 떨어져 죽을 것이라고... 이



왕가위 신드롬, 「중경삼림」

는 홍콩인들이 스스로를 뿌리 없이 떠도는 사람들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들은 마음의 고향인 중국을 그리워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갖고 있기도 하다. 이 영화에서는 양모와 생모를 대비해 홍콩 반환에 대한 홍콩인들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왕 감독은 결국 생모와의 해후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후에 아버가 죽는 것으로 처리해 홍콩 반환 이후의 홍콩인들의 삶이 결코 평탄하지는 않으리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30년이 흐른 '90년대 홍콩 젊은이들의 상황은 어떤가? 「중경삼림」은 57시간의 실연과 1년 간의 연애가 엇갈리고 비워져버린 두 남자와 두 여자의 독백처럼 이어져 있다. 영화는 두 가지 에피소드로 이루어져 있는데 시간 순서는 첫 번째 에피소드 이후에 두 번째 에피소드가 진행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구성이지만, 사실은 첫 번째 에피소

드가 진행되는 도중에 두 번째 에피소드가 시작된다.

2부의 주인공 왕정문과 1부의 주인공 임청하가 완구점에서 만나는 첫장면이 혼란을 일으키게 한다. 만난 순간에 서로 또다른 모습으로 있는 것, 왕 감독은 이를 시간의 단면으로 해석한다. 내년 7월경, 홍콩은 ‘반환’이라는 말처럼 잠시 놓았던 자신의 위치를 찾아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너무나 다른 새로움과 시작을 안겨주는 것처럼...

첫 번째 에피소드 - 1994년 4월 28일 홍콩, 경찰관인 223(금성무 분)은 사복 차림으로 용의자를 추적하던 중 금발머리의 가발을 한 여인(임청하 분)을 만나고 56시간 뒤 사랑에 빠진다. 그러나 지금은 만우절 날에 자기를 버린 애인 메이를 못잊어 하고 있다. 그는 매일 유통기간이 5월 1일인 파인애플 통조림을 산다. 5월 1일은 그의 생일이고, 파인애플은 그녀가 좋아하던 과일이다. 결국 메이가 전화를 하지 않자 그는 그 파인애플 통조림을 다 먹어 버린다.

금발머리의 여인은 헤로인을 밀반입하려고 하지만 인도인들의 배신으로 일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들은 드디어 술집에서 만나고 함께 술을 마신 후 223은 술에 취한 여자를 호텔로 데려간다. 그녀는 깊이 잠들고 그는 밤새도록 서부영화만 본다. 새벽 무렵 그는 조깅을 하다가, 뺨뺨에 생일을 축하한다는 그녀의 메시지가 들어

오자 기뻐한다. 잠시 후 금발머리 여인은 자신을 배신한 헤로인 공급업자를 쏘아 죽인다.

두 번째 에피소드 - 순찰 경찰관인 663은 스튜어디스 애인을 위해 매일 페이(왕정문 분)가 일하는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패스트푸드점에 샐러드를 사러온다. 페이는 그런 그를 보면서 사랑에 빠지는데... 그러나 이틀 후 스튜어디스 애인은 이별의 편지와 함께 663의 집 열쇠를 가게에 맡기고 떠난다. 663이 그것을 받으려 하지 않자 페이는 주소를 알아내 그가 없을 때 집을 찾아가 물건들을 사 놓고 집안을 정리한다. 뭔가 이상한 것을 느끼기 시작한 663은 페이를 집에서 맞닥뜨리자 그녀의 마음을 알아채고 데이트를 신청한다. 그러나 그녀는 그와 만나기로 약속한 날, 캘리포니아로 떠나버린다. 1년이 지나고 스튜어디스가 된 페이는 홍콩에 돌아와 663이 가게를 인수한 것을 알고 놀란다. 그는 그녀에게 비행기표를 한 장 부탁한다. 어디든 그녀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이 영화는 「아비정전」에 비해서는 화면의 빛깔이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밝고 낙천적이다. 특히 이 영화를 더욱 생동감 있게 하는 것은 주제가인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림」이다. 영화를 보고난 후 자신도 모르게 노래가락을 흥얼거리게 할만큼 영화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물론 이 영화에서도 주인공들

은 서로 만났다가 헤어지고, 서로 스쳐가도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기도 하지만, 「아비정전」과는 달리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연인들이 서로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이지만 다시 만나는 것에서 끝난다. 「아비정전」에서 아버지가 그의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던 것과는 달리, 물론 「중경삼림」에 그 뒷이야기에 대한 더이상의 힌트는 없지만 두 남녀들에게서 다소나마 희망 같은 것을 느끼게 한다.

왕가위 감독은 여전히 홍콩이라는 도시에서 풍겨나오는 허무와, 홍콩 반환이 가까와 옴에 따라 방황하는 홍콩인들의 자화상을 그리고 있지만, 이제 다소나마 그 속에서도 희망이라는 씨알을 건져올린 것은 아닐까. 어차피 그 시기는 두려움을 갖고 있던 희망을 지니고 있던 그들의 앞에 다가올 현실이기에, 그가 아무리 영화 속 시간들을 이리저리 굴절시켜 놓아도 시간은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 다가올 일들은 다가오는 것이기에, 그는 이제 홍콩인들이 조금은 담담하게 기다림의 미덕을 배워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

1년 후 오늘, 우리는 조금은 달라진 홍콩을 보게 될 것이다. 중국의 일부분으로서의 홍콩으로. 그때 홍콩인들은 영상 속에 자신들의 모습을 어떻게 담아낼까. 그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부여하실까.

김현경/ 월간 「복음과 상황」 기자

12억 인구를 위한 일꾼을 모집합니다.

해외협력선교회(PWM) 선교사 모집

중국에서 제과기술 전문인
선교사, 대학에서
컴퓨터·한국어·피아노 등을
가르칠 교수 선교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자는 해외협력선교회
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Tel. 02/565-3431
Fax. 02/564-8462

중국어 찬송가

生命之道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 235)

P. P. Bliss, 1874

WONDERFUL WORDS: 8.6.8.6.6.6.

P. P. Bliss, 1874

조금 느리게 ♩. = 66

聖 經 都 是 真 神 言 語 證 明 耶 蘇 基 督
 Shèng jīng dōu shì zhēn shén yán yǔ zhèng míng Yē sū jī dū
 성 경 때 우 스 전 셴 연 위 정 밍 예 수 지 두 —

道 成 肉 身 釘 十 字 架 流 血 洗 我 罪 污
 dào chéng ròu shēn dīng shí zì jiā liú xiě xǐ wǒ zuì wū
 다 오 청 러 우 셴 딩 스 즈 지 아 리 우 시 에 시 워 주 이 우

生 命 之 道 極 奇 妙 我 今 篤 信 不 搖 動
 shēng mìng zhī dào jí qí miào, wǒ jīn dǔ xìn bù yáo dòng
 성 밍 즈 다 오 치 치 마 오, 워 진 두 신 부 야 오 뚱
 후렴

美 哉 主 道 奇 哉 主 道 生 命 之 道 奇 妙
 měi zāi zhǔ dào, qí zāi zhǔ dào shēng mìng zhī dào qí miào
 메 이 짜 이 주 다 오, 치 짜 이 주 다 오, 성 밍 즈 다 오 치 마 오 —

美 哉 主 道 奇 哉 主 道 生 命 之 道 奇 妙
 měi zāi zhǔ dào, qí zāi zhǔ dào, shēng mìng zhī dào qí miào
 메 이 짜 이 주 다 오, 치 짜 이 주 다 오, 성 밍 즈 다 오 치 마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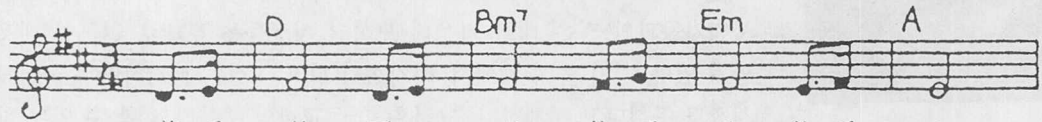
우리말 가사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한국 교회에서 예배 때 부르는 찬송가 중에서 중국 교회 성도들도 즐겨 부르는 찬송가를 신습니다.
 중국어를 배우지 않은 독자들을 위해 한어병음과 함께 한글 발음을 달았습니다(한글 발음은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지 않고 원발음과 유사한 음으로 표기했습니다). [편집자 주]

慈愛的天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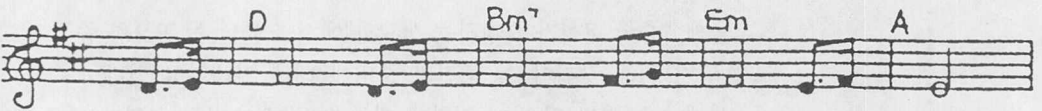
사랑의 주님이



慈 愛 的 天 父 他 愛 我 他 愛 我
cí ài dì tiān fù tā ài wǒ tā ài wǒ
츠 아이 디 티엔- 푸 타 아이 워 타 아이 워



天 父 就 照 樣 接 受 了 我
tiān fù jiù zhào yàng jiē shòu le wǒ
티엔- 푸 지우자오 양- 지에셔우러 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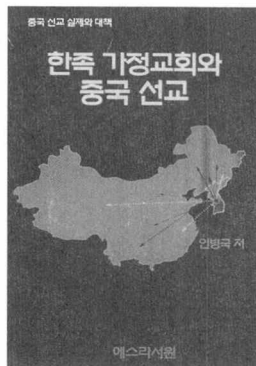
慈 愛 的 天 父 他 愛 我 他 愛 我
cí ài dì tiān fù tā ài wǒ tā ài wǒ
츠 아이 디 티엔- 푸 타 아이 워 타 아이 워



如 此 我 也 要 愛 你
rú cǐ wǒ yě yào ài nǐ
루우- 츠- 워- 예야오 아이 니

우리말 가사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그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한족 가정교회와 중국선교

<한족 가정교회와 중국선교>는 중국선교 전문가인 저자가 여러 차례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 교회를 면밀히 관찰하고, 특히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한국 사역자들과의 깊은 대화 가운데 모아진 자료들을 토대로 연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본격적인 중국선교를 시작도 못했다고 전제한다. 그것은 중국 교회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한족 가정교회와 본격적으로 교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한국 교회가 한족 가정교회를 선교의 대상으로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그들은 21세기 중국선교의 동역자요, 세계선교를 완성하는 지상과업의 동역자라는 것이다.

이 책은 첫째, “한족 가정교회의 현실과 전망”에서 한족 가정교회 지도자와의 대화를 통해 오늘날 가정교회의 모습을 세밀히 분석하고 있다. 가정교회가 자교회를 보는 관점, 타교회와의 교통, 조선족 교회를 보는 관점, 당면 과제와 비전 등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가정교회의 구체적인 면모를 공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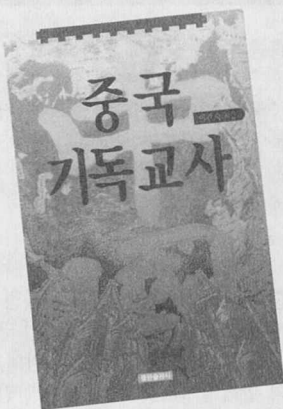
둘째, “중국 교회가 요청하는 선교사”에서 오늘날 꼭 필요한 중국 선교사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과 준비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셋째, “중국선교의 방향 전환에 대한 제언”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의 오류를 바로잡고 21세기를 감당할 수 있는 중국선교로 전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중국선교의 전환기를 맞고 있다. 조선족 위주에서 한족선교와 소수민족 선교로 방향 전환을 요청받고 있다. 중국 가정교회는 한국 교회에 그들의 사역자들을 훈련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그들은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위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것처럼 한국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 달라는 것이다. 한국 교회의 바울과 바나바만이 중국 교회가 화급히 필요로 하는 사역자들을 훈련하는 일과 중국을 복음화하고 21세기 세계선교의 주역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다.」-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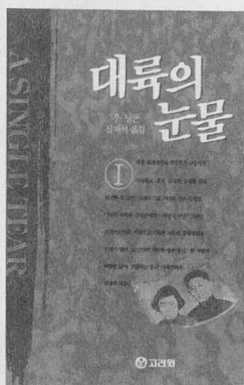
한국인에 의해 쓰여진 중국선교 개론서가 전무한 실정에서 이 책은 중국 교회를 이해하고 올바른 중국선교를 안내받을 수 있는 ‘오늘의 중국선교 개요’가 될 것이다.

한족 가정교회와 중국선교 · 인병국 저 · 에스라서원 · 243쪽 · 6,2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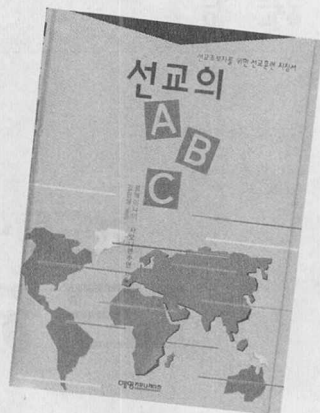
중국 기독교사

이관숙 지음
신국판 · 512쪽 · 10,000원
쿰란출판사



대륙의 눈물(1),(2)

우닝쿤 지음
심재석 옮김
신국판 · 290쪽 · 각권 6,300원
고려원



선교의 ABC

통웨이나이 · 샤오니앤추엔 지음
김한성 옮김
신국판 · 317쪽 · 7,800원
에듀커뮤니케이션

현재 중국에서 장애인 의료봉사 활동 중인 이관숙 목사가 저술한 이 책은, 선사시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기독교 전승과정과 역사, 정치·사회 문화 운동과 교회의 유형, 중국 기독교회 성립 과정과 교회 생활의 전통 등 중국문화사의 일면에서 풍부한 자료를 토대로 기독교사를 다루고 있다.

“중국 기독교사는 중국선교 역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교 역사를 외국 선교사에 의한 피선교의 과정으로만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중국의 기독교는 교회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준행하기 위해 명왕조 시대에는 신문화와 과학발전에 기여하였으며, 청왕조 시대에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구교(기독교 반대)운동 가운데서도 생명을 바쳐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이다.”

과거 한국 기독교 형성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중국 교회와 신학에 대해 한국 교회는 상식 정도의 지식도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한국 교회가 중국 교회의 선배인양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중국 교회와 중국선교에 관심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반드시 읽어야 할 자료임에 틀림없다.

대륙은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 적어도 우닝쿤 교수의 눈에는 그렇다. <대륙의 눈물>은 공산화 초기부터 문화혁명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30년 역사를 온몸으로 부딪친 우닝쿤 교수와 그의 부인 리이가이의 공동 회고록이다.

미국 유학 중이던 저자 우닝쿤은 신 중국의 건설이라는 꿈을 안고, 친지와 친구들의 만류를 뿌리친 채 중국에 돌아왔다. 그에게는 뜨거운 조국애와 성스러운 사명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잇달은 정풍(整風)운동과 반우파 투쟁에 휘말리면서, 정치학습회의와 교무회의에서 동료 교수들로부터 심문을 받는 등 극우파로 몰려 갖은 고초를 겪게 된다.

이 책은 단순한 개인의 정치·사회적 경험담만이 아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중국의 현대사를 걸어 온 지식인이 겪었던 아픔에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저자가 솔하게 인용한 두보, 험뎬으로 대표되는 동서양 대문호들의 작품과, 유배지인 싱카이 호수에서 자아내는 역설적인 낭만적 분위기에서 뜻밖의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아주 이론적이거나 단편적인 경험을 강조하거나 하지 않고 선교에 관심있는 지망생이나 선교 담당자 모두가 선교의 다양한 측면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역자의 말 중에서)

책임과 중보기도, 선교의 역할, 선교사의 준비, 선교사의 교육, 선교사의 생활 등이 이 책의 주요 내용이다.

한 사람의 평신도가 선교사로 서기까지는 먼저 선교적인 안목이 생기게 되면서 중보기도자로 출발하여 비전을 품고, 직접 선교를 삶으로 체험해 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이 책은 말한다.

“선교사가 되려는 개인의 확고한 결정 여부는 하룻밤 사이에 돌변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 동안 당신의 하나님을 온전한 신뢰하는 데 달려 있다.”

아울러 선교사가 갖춰야 할 타문화권에 대한 수용적 태도와 선교사로서의 성장과정에 수반되는 모든 과제들, 생활에서 오는 어려움 등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과도처럼 밀려오는 선교의 외양만 보고 겁을 내다가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파도 속에 발을 내딛는 용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보도물에 나타난 최근 중국 동향

종교

용취안사 첫 TV광고

푸젠(福建)성에 있는 용취안사가 불교 사찰로는 처음으로 관광객 유치에 위해 TV광고를 시작하였다.
(문화일보 4. 9)

조직적인 라마교 탄압

인권 단체 '티벳을 위한 국제 캠페인'은 중국이 티벳의 라마교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국이 문화혁명 기간에 파괴된 라마교 사원의 개축을 금지하고 승려 수를 제한하는가 하면, 티벳 공산당원의 종교생활 금지, 사원에 대한 통제강화 등과 같은 적극적인 탄압정책을 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4. 14)

달라이 라마 6월 첫 대만 방문

달라이 라마가 6월, 사상 처음으로 대만을 방문한다. 그의 대만 방문은 대만의 '국제 생존 공간'을 넓히려는 노력의 일환인데, 달라이 라마가 티벳 독립을 추구하고 있어 중국과 대만 간에 또 다시 한차례 충돌이 예상된다.
(조선일보 4.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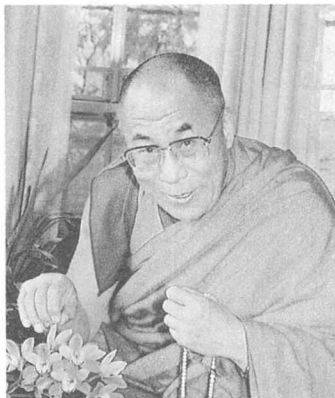
회교 원리주의 공동 대처 합의

중국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타

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과 회교 원리주의 확산에 공동 대처한다는 양해를 성립시켰다. 이로써 베이징(北京) 당국은 회교 소수민족의 소요에 보다 강력히 대처하고, 중앙아시아 3개국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게 됐다. 중국에는 현재 1천6백여만 명의 회교도가 거주하고 있다.
(조선일보 4. 30)

티벳 항의시위, 80여 명 부상

5월 7일에 이어 14일, 티벳의 라마교 승려들이 중국 관리들의 달라이 라마 사진 철거 지시에 항의하며 중국 보안군과 충돌, 80여 명이 부상했다. 사건 발생 후 중국은 두 개의 주요 수도원을 봉쇄했다.
(조선일보 5. 17)



정치·외교

홍콩 주민, 중국에 민주화 요구 시위

홍콩 주민 1천여 명은 오는 '97년 7월 중국에 주권이 반환되는 홍콩 장래에 불안을 표시하며 중국이 민선으로 뽑은 홍콩 입법국을 폐지하기로 한 데 대해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중앙일보 4. 15)

중국 군인 39명 반혁명죄로 사형 선고

베이징 군사법원은 지난달 3일 당중앙 군사위가 인민해방군 사상 최대 규모의 반혁명 집단으로 규정한 인민해방권력동맹(PLPA) 사건 공판을 열고, 해방군 장교 39명에 사형, 41명에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한국일보 4. 18)

중·러 등 5개국 신뢰 구축 조약

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등 5개국 정상들은 상하이(上海)에서 회담을 갖고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조약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상호 군사공격 및 훈련금지, 훈련규모에 관한 상호통보, 상호적 관계 확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일보 4. 27)

고문, 학대 만연

중국이 지난 '88년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는 아직도 고문과 학대 등의 인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다고 국제사면위원회가 밝혔다.
(조선일보 5. 3)

천안문시위 주역 리우강 미국 망명

'89년 천안문사태 주역 중 하나였던 중국 반체제 인사 리우강(劉剛, 34)이 최근 국제기관의 도움으로, 중국 당국의 엄중한 감시를 뚫고 미국 서부 해안의 한 도시에 무사히 도착했으며 정치적 망명이 허용됐다.
(한겨레신문 5. 3)

홍콩, 베트남 난민 송환 강행

아시아에서 베트남 난민들을 가장 많이 수용해 온 홍콩은 내년 7월 중국에 주권이 반환되기 전, 난민수용소를 정

리하기 위해 베트남 난민들의 본국 강제송환을 개시했고, 이 달에만 6백 명의 베트남 난민들을 강제 송환시킬 계획이다.

(한겨레신문 5. 13)

군사 외교 박차

지난 4월 러시아 등과 국경 신뢰협정을 체결한 중국의 인민해방군 최고위 간부들이, 최근 잇달아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와 일부 유럽 국가를 방문, 맹렬한 군사 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동아일보 5. 13)

신장 분리주의자 등 1천7백 명 체포

중국 경찰은 잦은 소요가 있어 온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 북서부 지역에서 범죄 소탕이 시작된 지난 4월 25일부터 6일 동안 테러용의자, 분리주의자, 일반 범죄자 등 1천7백 명을 잡아들였다.

(한국일보 5. 14)

중국 문화대혁명 30주년

'96년 5월 16일로 30주년을 맞는 문화대혁명에 대해 현 중국공산당 지도부는 사회주의 발전을 파괴한 내란으로 평가했다.

(조선일보 5. 15)

천안문시위 참여 바오통 가택연금

중국은 지난 '89년 6·4 천안문 민주화 시위와 관련, 당 간부로는 유일하게 구속됐던 바오통을 석방한 뒤 베이징 교외의 시골집에 사실상 가택연금했다고 그의 딸 바오지안이 밝혔다.

실직한 전 당 총서기 자오쯔양(趙紫陽)의 최측근 인사였던 바오통은 「반혁명 선동」 및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7년 간 복역한 후 이번 5월 27일에 석방되었다.

(한국일보 5. 28)

덩샤오핑 요양 중

중국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91)이 현재 상하이에서 요양 중이라고 홍콩 평귀(蘋果)일보가 보도했다. 덩은 상하이 도착 후 두 차례에 걸쳐 위독 상태에 빠졌으나 집중적인 치료와 요양으로 현재 호전됐으며, 상하이 당국은 그의 건강 동향을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



심상치 않은 덩샤오핑 밀랍인형

다고 전했다.

덩은 베이징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력투쟁에 균형과 안정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그가 권력과 정보의 중심지 베이징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당 지도부내에서 논란이 발생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경향신문 5. 29)

당 요원 신장 독립주의자에 의해 암살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수도 우루무치(烏魯木齊)시에 소재한 지하 독립단체가 지난 4월 29일 자치구 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을 암살했으며, 2월 10일엔 두 명의 경찰관을, 2월 말엔 회교 성직자 한 명을 스파이 혐의로 암살했다고 밝혔다.

또 자치구 쿠차(庫車)현에서는 4월 29일 9명의 분리 독립주의자들이 총과 사제폭탄을 갖고 중국 당국과 충돌하다 살해됐다. 이에 따라 5월 들어서는 분리 독립주의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척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경향신문 5. 29)

차오스 방미 거부

차오스(喬石)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국회의장 격)은 중·미관계 악화를 이유로 미국 방문을 거부했다고 차오스를 만난 북경 주재 서방 외교관이 밝혔다. 차오스는 올들어 중·미관계 악화로 쿠바와 캐나다를 방문할 때도 미국을 방문하지 않았다.

(경향신문 6. 2)

정세

4대 개발사업 본격 시동

중국이 다음 세기까지 계속될 4개 초대형 사회간접자본(SOC)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중국 정부가 확정, 추진 중인 4대 개발 계획은 양쯔(揚子)강의 삼협(三峽)댐 건설, 양쯔강 물줄기를 보다 북쪽으로 끌어대는 관개시설 공사, 산시(山西) 및 내몽고 지방에 초대형 탄광 구축 사업, 북단 헤이룽장(黑龍江)에서 남단 광둥(廣東)에 이르는 3만5천km의 해안도로 구축 등이다.

(중앙일보 4. 1)

티벳에 한족 이주 추진

중국은 향후 5년 동안 1백억 위엔(약 1조원)을 투입, 티벳 자치구 수도인 라싸(拉薩) 동쪽 란창(瀾滄)강 지역의 동광(銅礦) 개발을 위해 10만 명 단위의 도시를 곳곳에 건설해, 모두 50만 명의 한족을 티벳에 들여보낼 예정이다. 현재 티벳자치구 인구 239만 명 가운데 한족은 이미 15만 명에 달하는 상태이다.

(중앙일보 4. 3)

농업 인구 감소

9백만 명 이상의 중국 농민이 지난해 농업을 포기해, 중국의 비농업 인구는 전년도 보다 3.36% 늘어난 2억8천만 명이 됐다. 중국에는 4억5천만 명 가량의 농민이 있으나, 이중 1억2천만 명은 충분한 일감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농민들이 농업을 그만두고 도시로 가고 있다.

(한겨레신문 4. 10)

베이징, 국유기업에 고용보조금 지급

베이징시 정부는 40세 이상의 남성이나 35세 이상의 여성 실업 근로자를 최소한 2년 이상 고용하는 국유기업의 경우, 1인당 3천 원(미화 약 1백20 달러)씩의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조선일보 4. 16)

외환보유고 세계 4위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지난 3월말 연초

보다 72억 달러 늘어난 8백8억3천만 달러를 기록해, 세계 4위의 외환 보유국으로 부상했으며, 3위인 대만과의 격차를 급속히 좁혀가고 있다.

(조선일보 4. 22)

외국인 노동허가제

중국 정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허가서를 발급받도록 규정한 새로운 조례를 발표, 시행했다. 이 법령에 따라 대만·홍콩·마카오 출신을 포함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는 입국 즉시 거주지 노동국에 취업허가 등록을 마친 뒤 3개월마다 취업허가서를 갱신받아야 하며, 이미 중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도 6월 30일 이전에 등록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5. 1)

종신고용제 폐지

중국은 올 연말까지 전국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계약제를 도입, 지난 '49년 중국에 공산정권이 들어선 이래 실시돼 온 이른바 '철밥그릇(鐵飯碗: 공산당 정부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목표 아래 노동자들에게 평생 일 자리를 보장, 노동자들이 소속된 기관에서 종업원들에게 주택, 교육, 의료 등 폭넓은 복지 혜택을 주는 종신고용제) 제도를 사실상 폐지할 것이다.

(중앙일보 5. 3)

중국 기업 대만 내 자본 투자 허용

대만은 20% 이하의 자본을 소유한 중국 기업들이 대만 내에 투자하거나 자 회사를 설립하도록 처음으로 허용하기로 원칙적으로 결정했다고 대만과 홍콩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같은 조치는 긴장된 양안관계를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경향신문 5. 28)

광둥성 정부 내수시장 판매 확대

광둥성 정부가 다음 달부터 외국인 투자기업 생산품에 대해 지금까지 30~50%로 제한해 온 내수시장 판매 제한 폭을 품목에 따라 완전히 없애기로 해, 중국으로 진출하는 국내 기업의 운신 폭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외환 유출 등을 우려해 외국 투자기업의 내수시장 판매를 크게 제한해 왔었다. (경향신문 5. 30)

사 회

중국 부모, 자식에게 회초리 사용

중국에서는 남자 어린이의 90%, 여자 어린이의 48%가 부모에게 매를 맞고 있다. 부모들이 회초리를 드는 이유로는 자녀들의 학업성적이 저조(65%)하거나 방정치 못한 품행(29.5%), 기타 문제(9%) 등이다.

(경향신문 4. 10)

작년 105만 쌍 이혼

중국에선 지난해 약 105만 5천 쌍의 부부가 이혼했다. 이는 '94년보다 7만4천 쌍이 늘어난 수치이며 이혼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재혼한 사람은 83만 명으로 이는 '94년보다 4만 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문화일보 4. 15)

배우자 수리 신고하면 포상

지린(吉林)성은 세무 관리들의 수뢰 등 부패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부부간에 배우자의 부당 수입 등을 상호 감시, 신고토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배우자가 비정상적인 소득이 생겼거나 집에 고가품을 가져오는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깨문고 기업인들과 외식을 하면서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 범법 사실을 신고하면 '받은 선물'로 포상을 받게 된다.

(동아일보 4. 30)

몽골 산불 30만ha 태워

몽골 초원에서 발생하여 4주간 몽골의 20개 성 중 11개 성 72곳에서 계속되다가, 중-몽 국경을 넘어 중국 내몽고자치구로 번졌던 대화재가 9일 간의 진화작업 결과, 4만6천ha의 삼림을 포함한 30만ha에 이르는 지역을 태우고 완전히 진화됐다.

(조선일보 5. 2)

담배와의 전쟁 본격화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5월 15일부터 병원, 학교, 대합실 등 모든 공공 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베이징 공공장소 흡연 금지에 관한 규정'을 발효시켜 대대적인 금연 운동을 벌인다.

(한겨레신문 5. 3)

혼전 관계 여성에 최고 20만 원 벌금

공업도시 우한(武漢)시에 있는 병원들은 최근 당국의 지시에 따라 여성의 순결을 강조하는 전통을 지키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결혼을 앞둔 여성이 신체 검사에서 비처녀로 드러날 경우, 2백~2천 위엔(한화 2만~20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해 예비 부부와 법률 전문가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조선일보 5. 11)

터키-중국 「신실크로드」 개통

터키와 중국을 연결하는 철도망의 마지막 연결 부분인 마슈하드~사라크스 노선이 정식으로 개통돼 터키에서 중국으로 통하는 「신실크로드」가 완성되었다.

(동아일보 5. 12)

중국 매체 안에서 처음 나와

중국 각지의 2백여 개에 달하는 인쇄 매체와 방송국의 리스트가 소개된 세계 최초의 중국 매체 가이드 『China AMPS(Asian Media Planning Source)』가 최근 발행됐다. 중국광고협회(CAA)와 미국 광고회사인 LLT 인터내셔널이 공동 발간한 이 책은 중국 인구통계, 발행 부수, 프로그램 형식과 논조, 광고 담당자 연락처 등이 정리되어 있다(영어판, 중국어판).

(조선일보 5. 15)

1년 평균 화장품 구입비 1달러

중국 여성들은化粧품을 구입하는 데 1년에 평균 1달러씩을 쓰고 있으며, 이는 세계 여성들의 평균 비용 18달러를 크게 밑도는 것이라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또한 지난해 중국 내 2,200여 개化粧품 회사들이 인민폐 1백90억 위엔(한화 1조 9천억 원) 상당의化粧품을 생산하는 등, 개혁 정책으로 중국인들의 봉급이 인상되면서化粧품 시장이 막대한 잠재력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5. 25)

인구 급증 광저우 소학교 취학난

중국에서 의무교육으로 되어있는 소학



취학난에 시달리는 도시의 아이들

교의 취학난이 심각하다. 광둥성 광저우(廣州)시 일부 지역의 학부모들은 요즘 자녀들을 소학교에 입학시키기가 어려워 여간 고민스러운 것이 아니다. 경제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대규모 인구 유입으로 취학아동이 급증했으나 이를 수용할 만한 학교 시설이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통계에 따르면 인구 3백85만의 광저우에서 올 9월 시작되는 신학년을 맞아, 8,000명의 어린이들이 소학교에 입학하지 못할 형편이라고 한다.

(경향신문 5. 27)

두 곳에서 광산 사고, 117명 사망·실종

지난 5월 21일, 허난(河南)성 평딩(平頂)산 탄광에서 가스가 폭발, 광원 46명이 사망하고 38명이 실종됐으며, 간쑤(甘肅)성 청(成)현에서는 홍수로 아연, 납 광산 지하갱에 3주간이나 잠겨 있던 광원 33명의 사체를 발굴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지난해 모두 8,203건의 광산 사고가 발생, '94년보다 2.73%가 증가한 10,100명이 사망했으며, 금년 들어 처음 2개월 동안에는 각종 산업재해로 1,757명이 사망하고, 738명이 중상을 입었다.

(한국일보 5. 27)

한·중 관계

베이징에 조선족 폭력배 갈취 극성

중국 내 조선족 폭력배들이 베이징의 한국인 유흥업소 주인들을 상대로 정기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심지어 돈을 내지 않는 한국 업소 주인을 권총으로 위협해 금품을 털어가고 있어 한국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중앙일보 4. 7)

한국으로 밀항 기도자 급증

중국 공안당국은 지난해 산둥(山東)·랴오닝(遼寧)·장쑤(江蘇)성에서 한국행 밀항자 1,947명을 체포했다. 이같은 수치는 '94년 산둥성, 랴오닝성에서 체포된 82명에 비해 무려 20배가 넘는 것이다. (경향신문 4. 11)

북한 마약 지린(吉林)성서 만연

북한에서 제조된 각종 마약이 지린성으로 유입, 만연되고 있어 북·중간 국경의 안전과 치안을 위협하고 있다.

(조선일보 4. 16)

조선어 주교재 한국 표준어로 교체

중국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조선어과가 설치된 베이징대와 연변

(延邊)대, 산둥(山東)대 등 중국 25개 대학의 주교재를 현행 북한 문화어에서 한국 표준어로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동아일보 4. 17)

부산~베이징, 상하이 직항로 개설

부산~베이징, 상하이 직항로가 개설된다. 김해~베이징 노선은 아시아나 항공과 중국민항이, 김해~상하이 노선은 대한항공과 중국의 북방항공이 매주 4편 취항하게 되었다.

(중앙일보 5. 3)

불법체류자 강력 단속 합의

한·중 양국 정부는 제2차 한·중 영사국장 회의에서 한국 내 불법체류 중인 중국인 산업연수생이나 위장 결혼자들을 강력히 단속, 처벌하기로 합의했다. 또 자국민 권익보호 및 정부간 협조문제, 국제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경찰 수사 및 사법공조 문제, 복수사증 협정 체결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교환이 이뤄졌다.

(동아일보 5. 7)

국제결혼 때 면접 심사

한·중 양국은 수교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양국 간 위장 국제결혼을 막기 위해 6월부터 국제결혼 희망자의 경우 반드시 자국 외무부를 경유해 면접 심사를 받도록 하고, 혼인증명서 등은 양국의 대사관에서만 발급하기로 했다.

(조선일보 5. 8)

중국 어선 무장한 채 우리 어선에 난입

6월 2일 칼과 도끼 등으로 무장한 중국 선원들이 공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한국 어선 통영선적 69톤급 어선 창성호(선장 김진곤)에 난입했다. 이들은 전자 장비와 기관실을 부수고 한국 선원 5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뒤 현금 15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인터폴에 중국 해적 어선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

(한국일보 6.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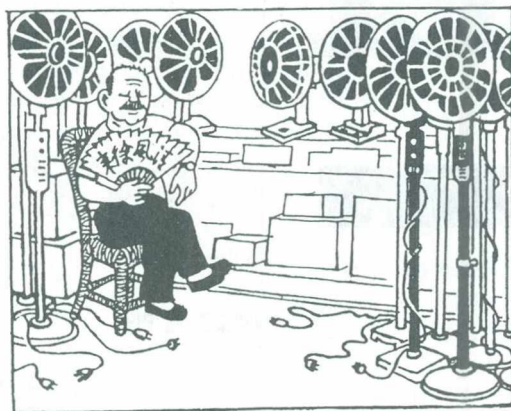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옛 것이 더 낫다. 九九歸作一, 心情自然涼

(원점으로 돌아가니 마음은 자연히 편안하다)

陶謨基



중년 이후의 노년층에게는 차라리 옛날부터 해 오던대로 계속하는 것이 더 속 편하다는 뜻. 경제 개방 이후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물자가 많이 보급되었지만, 실상 사용방법을 새로 익히기도 어렵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에 적응하기 어려워 오히려 옛 방식을 그리워하고 있다.

중국인의 유모어(笑話)

오리알이 짜다(吃咸蛋)

两个傻瓜在一起吃咸鸭蛋。



두 바보가 함께 절인 오리알을 먹고 있었다.



怪事呀, 我过去吃的鸭蛋都是淡的, 今天吃的怎么会是咸的呢?

“이상한 일이야, 내가 옛날에 먹은 오리알은 모두 싱거웠는데, 오늘 먹은 것은 왜 이렇게 짜지?”



哦, 你太没见识, 连这点小事也不懂, 这咸鸭蛋明摆着是腌鸭子生的嘛!



“야 너 정말 무식하구나. 이런 것도 모른단 말야? 이 짠 오리알은 소금에 절인 오리가 낳은 거라귀!”



有道理, 有道理.

“그래, 맞아. 그렇지.”

‘三’과 ‘四’가 들어간 말

중국어의 어휘 변화는 다양한 것으로 유명하다. “슈오산다오스(說三道四:이것 저것 말하다)”는 올바르지 못하고 불성실함, 꾀불견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자 성어 중에 ‘다른 사람의 잘잘못을 떠벌이다’는 뜻의 “슈오창다오두완(說長道短)”과 ‘이것 저것을 말한다’는 뜻의 “슈오둥다오시(說東道西)”라는 말이 있다. 《현대한어사전》에는 ‘자기 멋대로 이야기해버리다’는 뜻으로 나와 있다. 비슷한 뜻으로 “지옌산화스(問三話四)”란 말이 있다.

수에 따라 글자의 구조가 배치되기도 한다. ‘이랬다 저랬다 번덕스러움’을 뜻하는 “산판스푸(三番四覆)”나 중국 예교 전통의 하나인 “산충쓰더(三從四德)” 즉, 여자가 결혼하기 전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하면 남편을 따르고 죽으면 아들을 따른다”고 하는 <三從>과 “부덕(婦德), 부언(婦言), 부용(婦容), 부공(婦功)”을 뜻하는 <四德>을 예로 들 수 있다.

리구청(李谷城)이 편집한 《중국대륙정치용어집》에 보면 ‘三’을 머리글자로 하는 정치용어가 거의 50개나 된다. 이러한 용어들은 대개 중요한 정치 슬로건에 많이 쓰이므로 소개할 가치가 있다.

산라오스이엔(三老四嚴)

1960년대 그 유명한 따칭유전(大慶油田)을 개발할 때 ‘따칭의 정신’을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제시된 슬로건이다. “성실한 인간이 되자(當老實人), 진실된 이야기를 하자(說老實話), 일을 성실히 하자(辦老實事)”의 <三老>, 엄격한 요구, 엄밀한 조직, 엄숙한 태도, 엄격하고 공정한 규율을 뜻하는 <四嚴>을 말한다.

산통스리우(三通四流)

중국은 ‘대만과의 평화통일’의 정책을 구체적으로 건의하고자 1979년 1월 ‘대만동포에게 고함’이란 문서를 발표하였는데,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교류방안을 제시하였다. <三通>은 “통신(通郵), 통상(通商), 통항(通航)”을 가리키는 말이고 <四流>는 “경제, 과학, 문화, 체육” 네 방면의 교류를 말한다.

산귀스팡후이이(三國四方會議)

문학 말기 린비아오(林彪)의 아들 린리궈(林立果)가 무장정변을 일으키기 위해 첫 번째 비밀회의를 열었다. <三國>은 상하이(上海), 저지양(浙江), 난징(南京)으로 린비아오 집단의 통제를 받은 지역이다. <四方>은 위에 설명한 세 지역 책임자, 즉 상하이의 왕웨이궈(王維國), 난징의 저우지엔펑(周建平), 항저우의 천리원(陳勵耘)과 베이징의 장팅쩌아우(江騰蛟)를 가리킨다.

산지엔파스(三件大事), 스거원티(四個問題)

덩샤오핑은 1980년 1월에 “3가지 대사업(三件大事)”을 발표하면서 “4개 현대화-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4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3가지 대사업은 ①국제사무중 패권주의를 반대하고 세계평화를 유지한다. ②대만을 중국으로 복귀시켜 조국통일을 이룬다. ③경제건설에 더욱 노력하여 4개 현대화 건설을 이룬다 등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4개 문제는 ①확고부동한 정치노선을 시종일관 지켜나가야 한다. ②안정적이고 단결된 정치 국면을 지켜나가야 한다. ③힘들고 어려워도 개혁정신이 있어야 한다. ④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전문지식과 능력을 갖춘 간부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守望中華》124기 중에서
번역/ 김은희·본지 편집기자



세미나 스캐치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 중국선교세미나

중국복음선교회부설 <중국교회와선교연구소> 주최, 5월 정기세미나가 5월 23일(목) 오후 7시에 중화기독교한성교회 소강당에서 열렸다.

본 연구소의 한운숙 연구원이 '개혁개방 이후 중국 사회의 계층 변화'라는 주제로 개혁 개방 이후 15년간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중국 사회계층의 변화 요인과 발생하는 문제들을 비롯하여, 8개로 나눈 사회계층의 특징을 설명하였다.



또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회에 대한 인식의 확대가 필요하고 이 시기의 소외되는 계층이 누구인가를 주목하는 것, 중국을 구성하고 있는 정치·경제·사회·문화·종교 등의 여러 제도와 조직, 사상, 가치 등에 있어서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변화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적절히 선교할 수 있다고 제언하였다.

'96 KAT 전문인선교 세미나

5월 17일 오전 10시부터 '96 전문인선교 세미나가 핏볼 회관에서 진행되었다.

'21세기 선교본부의 여호수아 프로젝트에 대한 전문인선교의 전략적 조명'에 대한 발제(발제자: 김영석 목사)로부터 열린 토론의 무대가 열렸다. 각 선교단체 소속 사역자들과 현지 사역자들뿐 아니라 선교 관심자와 개교회 목회자들도 참석하였다.

특히 '미완성 과업의 신속한 성취를 위한 선교사 재배치 방안'에 따르면, 진정한 의미에서 선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선교사의 마음 속에서부터 역할 분담 인식의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미전도종족 선교를 위한 교회와 교단 선교부, 선교단체 그리고 선교사의 역할 분담' 영역에서는, 실제적인 사역에서 서로 간의 이해와 협력을 위한 의사소통 등 여러 장애요소들을 공감하며 앞으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사항들을 토론하였다.

'96 제1회 인천지역 선교세미나

지난 5월 6일(월)부터 이틀 동안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행 13:47)"는 주제로 인천지역 해외선교단체들이 연합하여, 인천의 교회와 평신도들에게 구체적인 선교의 길을 제시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선교세미나를 가졌다.

정민영 선교사(GBT), 이현종 목사(예수선교회), 민요섭 총무(HOPE) 등이 주제 발표를 하였고, 각 선교단체 실무자들이 지역과 종족별 선교 접근방법을 안내하기도 하였다.

선교의 주요 무대로 부상하고 있는 인천의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하나가 되어 뜨거운 열기를 전해 주었다.

세미나 소식

베리 오스틴의 '사역자의 자기관리' 세미나

예수전도단에서는 YWAM 유럽지역 책임자 베리 오스틴 목사를 초청하여 '사역자의 자기관리' 세미나를 개최한다. 교육과 행정 그리고 필요한 정보를 나눔으로써 사역에 도움을 줄 것이다.

일시: 9월 2일~6일

강사: 베리 오스틴

대상: 목회자, 선교단체 간사, 평신도

자세한 문의는 한국예수전도단으로

TEL. 02) 871-7351~3

OMF 국제 동아리 모임

한국 OMF에서는 중국 연구를 비롯하여 강해설교, 영어 성경공부, 대화상담, 예배와 드라마팀 등 분과별 연구모임을 갖고 있다.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6:50~9:30

장소: 사랑의교회 소망관 501호

자세한 문의는 한국 오엠에프

TEL. 02) 555-3958, 567-9859 FAX. 563-6950

훈련받을 일꾼을 모집합니다

예수전도단 가정전도학교

예수전도단에서는 일반인들에게 가정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역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가정전도학교를 개설한다.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세대에게 부어 주리라(행 2:17)'는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을 회복하고, 화목하고 성령충만한 가정을 위한 영적 각성 운동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다.

일시: 8월 14일~17일

장소: 금남산 기도원

자세한 문의는 예수전도단으로

TEL. 02) 871-7351~3

GWM '96 여름 복방 단기 사역

<갈릴리세계선교회>에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정탐선교, 바울과 같은 교회개척 및 선교지 교회 후원선교,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선교 등의 주제로 선교대회를 개최한다.

기간: 96년 8월 12일~8월 20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팀사역,

토요일 저녁부터 3박 4일간 선교대회)

장소: 홍콩

사역분야: 의료, 어린이 전도, 드라마, 이·미용

자세한 문의는 갈릴리세계선교회로

TEL. 02) 420-1450, 424-1144 FAX. 421-1425

제10기 전문인선교훈련원 훈련생 모집

일반전문직업을 가진 직장인들이 창의적 접근지역에서 직업을 가진 전문인 선교사로서 사역할 수 있도록 훈련하기 위해 훈련생을 모집한다.

대상: 대학(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나 경력 소유자이며 전도 및 제자훈련이 된 자

훈련기간: 96년 8월 말~97년 8월 말(최소한 1년)

훈련비: 독신 65만 원, 부부 120만 원

장소: 서초동 영화교회 교육관

자세한 문의는 <한국전문인선교훈련원>

TEL. 02) 537-2043, 594-3438 FAX. 595-7809

PWM 하기선교훈련원

해외협력선교회에서는 '토착교회 설립전략'이라는 주제로 단기 선교훈련을 실시한다.

일시: 96년 8월 12일~17일

장소: 광림 세미나하우스

참가자격: 선교사 후보생, 선교관심자,

등록마감: 1차- 6월 30일, 2차- 7월 20일

자세한 문의는 <해외협력선교회>로

TEL. 02) 565-3431 FAX. 564-8450



지역별 중국대학 소개

北京大學	中央音樂學院	北京電影學院國際培訓中心
北京語言學院	北京體育學院	外交學院
北京師範大學	北京師範學院	北京農業大學
清華大學	中央民族學院	北方工業大學
中國人民大學	對外經濟貿易大學	北京廣播學院
北京外國語學院	北京(聯合大學)	北京經濟學院
北京第二外國語學院	外國語師範學院	北京醫科大學
北京中醫學院	北京郵電學院	中國北京國際針灸培訓中心
中央美術學院	北京科技大學	北京中國語言文化學校
中央戲劇學院	北方交通大學	
中央工範美術學院		

중국학 속 안-개

모집과정

대부분의 대학이 한어인 수생(장기, 단기), 즉 중국어 연수 과정을 운영하며 본과생, 보통진수생, 고급진수생, 석·박사 과정도 모집하고 있다.

개강

1학기: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1월 말
2학기: 매년 3월 1일부터
6월 말

서류신청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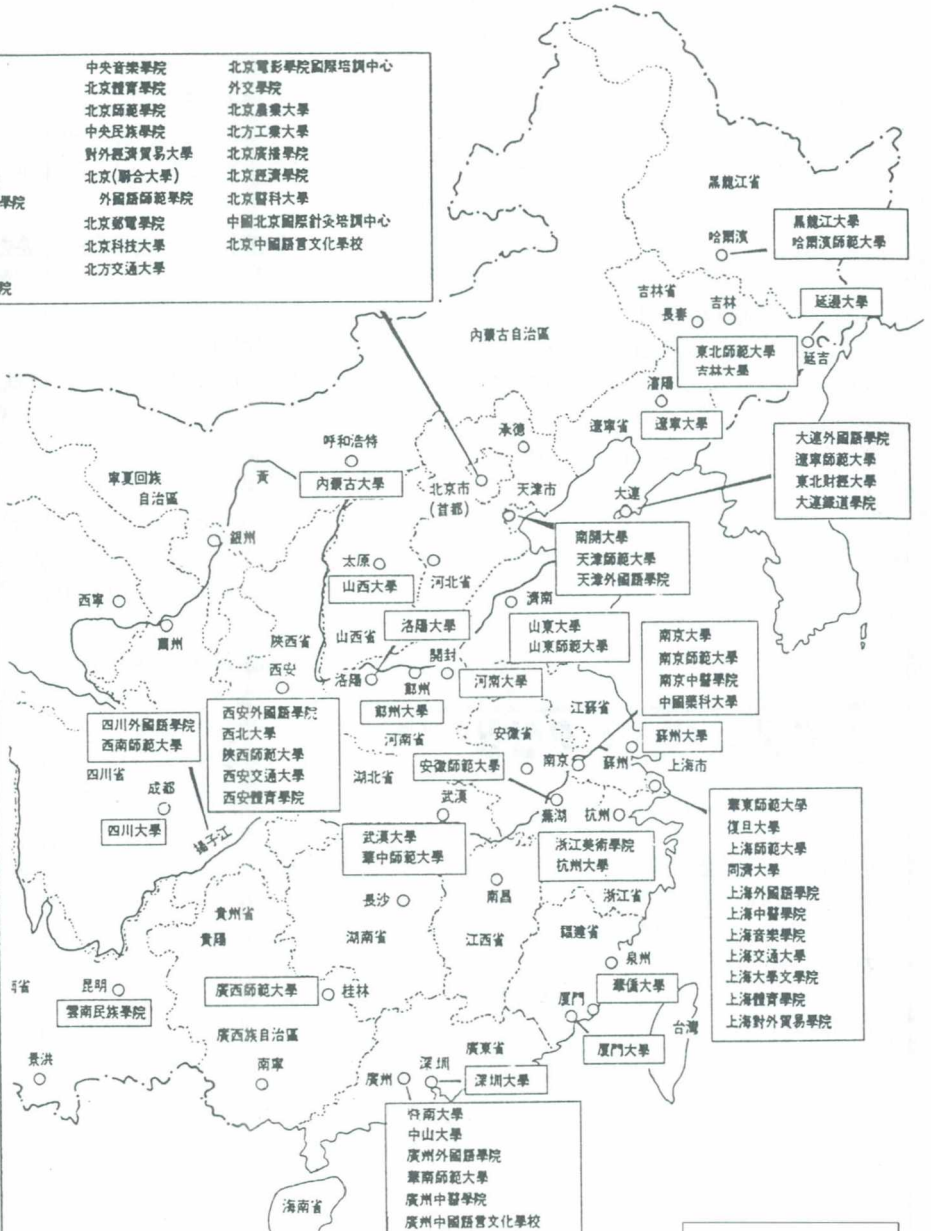
개강 6개월 이전(가능한 빨리 하는 것이 좋음)

구비서류

사진 3장, 성적증명서(영문1통), 재학 혹은 졸업증명서(영문1통), 건강진단서 2통(중국위생부양식), 여권

여권서류

여권용 사진 5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 1통, 국외여행신고확인서(남자), 인지대



자료제공 큰샘해의유학원

북경(北京)시

북경대학 (北京大學)

현재 언어연수생 약 100여명 있으며, 본과 및 석·박사생은 약 120여명의 외국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그중 한국인은 약 50여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 과정은 입문반은 없고, 초급반 2반, 중급반 2반, 고급반 2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15명이다. 언어연수생의 80%는 본과에 진학할 학생이다. 본 대학은 어학 연수보다는 본과생 모집에 주력하고 있으며, 본과생은 시험보다는 서류 전형으로 합격, 불합격이 정해진다. 언어연수보다는 진학할 때 선택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학비: 언어연수생 \$2800/년, 본과생 \$3500/년
등록비: \$ 50 **교재비:** \$ 50/학기
식비: \$ 7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5/ 1일, \$ 1750/ 350일
(전화기, TV, 공용사위실, 공용화장실)
용돈: \$30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9,090(한화 약 7,272,000 원)

북경어언학원 (北京語言學院)

현재 언어연수생 약 3,000여명 있으며, 본과 및 석·박사생은 약 40여명의 외국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그중 한국인은 약 1,000여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 과정은 입문반 8반, 초급반 8반, 중급반 8반, 고급반 8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15명이다. 언어연수생의 50%는 타대학의 본과에 진학할 학생이다.

북경어언학원 한국사무소에서 편견을 받아 유학생을 모집하고 있다(전화 02)733-6755-6). 한국사무소에서 받는 수속대행비는 390,000원이며,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한다.

학교 주변에 한국인촌이 형성되어 있어 생활하기에는 무척 편리하지만, 언어연수만을 할 경우에는 한국 유학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 고려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학비: 언어연수생 \$2500/년, 본과생 \$3000/년
등록비: \$ 50 **교재비:** \$ 30/학기
식비: \$ 7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2.5 ~ \$ 12(일반적으로 \$4를 선택), \$1400/ 350일(2인1실, 공용사위실, 공용화장실)
용돈: \$ 30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8,420(한화 약 6,736,000 원)

청화대학 (清華大學)

현재 언어연수생 약 400여명 있으며, 본과 및 석·박사생은 약 60여명의 외국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그중 한국인은 약 290여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 과정은 입문반 4반, 초급반 8반, 중급반 6반, 고급반 1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18명이다. 청화대학은 기숙사 시설이 깨끗한 편이며, 언어연수 과정은 주로 초급과정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대학도 한국유학생이 매우 많은 대학중의 하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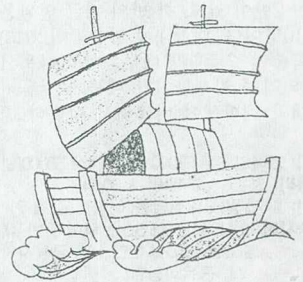
학비: 언어연수생 \$ 2000/년, 본과생 \$2200/년
등록비: \$ 20 **교재비:** \$ 30/학기
식비: \$ 70/월 (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2.5 ~ \$ 6(일반적), \$2100/ 350일
(사위실, 화장실, 전화기, 에어컨, TV)
용돈: \$ 30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8,560(한화 약 6,848,000 원)

북경외국어학원 (北京外國語學院)

현재 언어연수생 약 600여명 있으며, 그중 한국인은 약 450여명 있고, 일본인은 약 100여명이 있다. 언어연수 강의 과정은 입문반 3반, 초급반 3반, 중급반 3반, 고급반 2반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20명이다.

북경외국어학원에서는 한국 유학생은 모두 한 건물의 기숙사에서 생활하도록 되어 있다. 한국인이 많은 대학중의 하나이지만 외국인에게 중국어를 강의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잘 가르친다고 한다. 한국유학생회가 있어서 모든 것을 함께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학비: 언어연수생 \$2000/년, 본과생 \$2400/년
등록비: \$ 15 **교재비:** \$ 30/학기
식비: \$ 70/월 (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3.5(일반적) ~ \$ 8, \$ 1225/ 350일(2인1실, 공용사위실, 공용화장실, TV)
용돈: \$ 30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7,710(한화 약 6,168,000 원)



북경과학기술대학 (北京科技大學)

현재 언어연수생 약 60여명 있으며, 본과 및 석·박사생은 약 28명의 외국 유학생이 재학 중이다. 그중 한국인은 약 41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 과정은 입문반 1반, 초급반 1반, 중급반 2반, 고급반 2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10명이다. 북경과학기술대학은 기숙사가 가격에 비해 넓고 깨끗한 편이며, 언어연수 과정은 주로 중, 고급과정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본 대학은 한국유학생수가 많지 않고, 분위기가 좋은 대학중의 하나이다.

학비: 언어연수생 \$2000/년, 본과생 \$2800/년
등록비: \$ 60 **교재비:** \$ 50/학기
식비: \$ 7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2.5 / 1일, \$ 875 / 350일(2인1실, 전화기)
용돈: \$ 30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7,425(한화 약 5,940,000 원)

북경방송학원 (北京放送學院)

현재 언어연수생 약 91명, 보통진수생 4명, 본과생 2명, 연구생 4명의 외국유학생이 재학중에 있다. 그중 한국인은 약 47명 있고, 일본인은 33명, 미국인 1명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과정은 입문반이 없고, 초급반 4반, 중급반 4반, 고급반 2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10명이다. 대학내에 방송국이 있고, 재학중인 중국학생 대부분이 아나운서가 되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발음이 타대학 재학생에 비교해서 탁월히 좋다.

학비: 언어연수생 \$2000/년, 본과생 \$3000/년
등록비: \$ 25 **교재비:** \$ 30/학기
식비: \$ 7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4.5 ~ \$ 9(\$ 5.5 선택이 일반적),
\$ 1925/ 350일 (2인 1실, 공용사위실, 공용화장실)
용돈: \$ 30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8,420(한화 약 6,736,000 원)

북경사범대학 (北京師範大學)

현재 언어연수생 약 280명, 보통진수생 15명, 본과생 28명, 연구생 14명이 재학중에 있다. 그중 한국인은 약 100명이 있고, 일본인은 152명, 미국인 40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과정은 입문반 2반, 초급반 3반, 중급반 3반, 고급반 3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15명이다.

본 대학은 1996년 9월 학기부터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한어과가 개설된다. 신청자는 어학수준 보다는 고등학교때의 성적을 위주로 보며 모든 비용은 언어연수생과 동일하다.

학비: 언어연수생 \$2240/년, 본과생 \$2240/년
등록비: \$ 20 **교재비:** \$ 30/학기
식비: \$ 7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3.5(일반적) ~ \$ 12,
\$ 1225 / 350일(2인1실, 공용사위실, 공

공화장실)
용돈: \$ 30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7,955(한화 약 6,364,000 원)

천진(天津)시

남개대학 (南開大學)

현재 언어연수생 약 150명, 보통진수생 15명, 본과생 82명, 연구생 84명이 재학중에 있다. 그중 한국인은 약 120명이 있고, 일본인은 130명, 미국인 26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과정은 입문반 3반, 초급반 3반, 중급반 5반, 고급반 1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15명이다. 천진시에서 가장 큰 대학이며, 기숙사는 학교안에 있는 것과 학교밖에 있는 기숙사 2가지 종류가 있다. 남개대학은 언어연수보다는 석, 박사 과정의 학생수가 많다.

학비: 언어연수생 \$2400/년, 본과생 \$2400/년
등록비: \$ 40 **교재비:** \$ 30/학기
식비: \$ 6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6(일반적) ~ \$ 7, \$ 2100/ 350일
(2인1실, 공용사위실, 공용화장실, 전자기, 에어컨, TV)
용돈: \$ 20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7,690(한화 약 6,152,000 원)

천진사범대학 (天津師範大學)

현재 언어연수생 약 200명, 보통진수생 15명, 본과생 22명, 연구생 14명이 재학중에 있다. 그중 한국인은 약 100명이 있고, 일본인은 80명, 미국인 6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과정은 입문반 2반, 초급반 2반, 중급반 3반, 고급반 2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20명이다. 가까이에 위치한 남개대학보다 비용도 훨씬 저렴하다.

학비: 언어연수생 \$1400/년, 본과생 \$1600/년
등록비: \$ 25 **교재비:** \$ 30/학기
식비: \$ 60/월 (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3(일반적) ~ \$ 4, \$ 1050/ 350일
(2인1실, 공용사위실, 공용화장실)
용돈: \$ 20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5,625(한화 약 4,500,000 원)

천진외국어학원 (天津外國語學院)

현재 언어연수생 약 148명, 보통진수생 15명이 재학중에 있다. 그중 한국인은 약 38명이 있고, 일본인은 61명, 미국인 6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과정은 입문반 1반, 초급반 2반, 중급반 3반, 고급반 2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14명이다. 천진시에 가까이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학비: 언어연수생 \$1500/년, 본과생 \$3000/년
등록비: \$ 20 **교재비:** \$ 30/학기
식비: \$ 6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3/ 1월, \$ 1050/ 350일
(2인1실, 사위실, 화장실, 전자기, 에어컨, TV)
용돈: \$ 20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5,720(한화 약 4,576,000 원)

상해(上海)시

화동사범대학 (華東師範大學)

사범대학이면서도 종합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으며, 상해에서 언어연수하기에는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언어연수생 약 220명, 보통진수생 24명, 본과생 61명, 연구생 32명이 재학중에 있다. 그중 한국인은 약 44명이 있고, 일본인은 202명, 미국인 5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과정은 입문반 5반, 초급반 7반, 중급반 5반, 고급반 3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15명이다. 학교캠퍼스가 공원처럼 아름답다.

학비: 언어연수생 \$2000/년, 본과생 \$2000/년
등록비: \$ 30 **교재비:** \$ 30/학기
식비: \$ 7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4 ~ \$ 14 / 1일, \$ 1400 / 350일
 (2인1실, 공용사위실, 공용화장실, 전자기, TV)

용돈: \$ 30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7,900(한화 약 6,320,000 원)

복단대학 (復旦大學)

상해의 중점대학인 복단대학은 중국내에서 복경대학 다음으로 유명한 대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석, 박사 과정으로 진학하기에 적합한 대학이다. 현재 언어연수생 약 500명, 보통진수생 24명, 본과생 31명, 연구생 32명이 재학중에 있다. 그중 한국인은 약 140명이 있고, 일본인은 200명, 미국인 5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과정은 입문반 4반, 초급반 3반, 중급반 3반, 고급반 3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15명이다.

학비: 언어연수생 \$2400/년, 본과생 \$2400/년
등록비: \$ 50 **교재비:** \$ 30/학기
식비: \$ 70/월 (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3.5 ~ \$ 7, \$ 1225 / 350일
 (2인1실, 공용사위실, 공용화장실)
용돈: \$ 30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8,145(한화 약 6,516,000 원)

동제대학 (同濟大學)

현재 언어연수생 약 80명, 보통진수생 10명, 본과생 40명, 연구생 35명이 재학중에 있다. 그중 한국인은 약 40명이 있고, 일본인은 50명, 미국인 5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과정은 입문반 2반, 초급반 2반, 중급반 1반, 고급반 1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15명이다. 본 대학에는 본과생이 많이 있는데, 입학하기가 비교적 용이한 대학 중의

하나이다.

학비: 언어연수생 \$1700/년, 본과생 \$3000/년
등록비: \$ 30 **교재비:** \$ 30/학기
식비: \$ 7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3 / 1일, \$ 1050 / 350일(2인1실, 공용사위실, 공용화장실)
용돈: \$ 30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7,250(한화 약 5,800,000 원)

흑룡강(黑龍江)성

하얼빈공업대학 (哈爾濱工業大學)

하얼빈은 북경 방송국의 아나운서들이 와서 재교육을 받을 정도로 중국에서 가장 표준어를 구사하는 지역이다. 하얼빈공업대학의 학년은 매년 9월에 시작되며 가을, 봄 두학기로 나눈다. 유학 신청은 학생들의 학습편의를 위해 6월 말과 12월 말로 하고 있으며 특수 상황이면 따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에 유학생 유치 서울사무소가 개설되어 있어 유학과 언어연수에 대한 상담 및 수속 등의 행정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한달 반의 짧은 시일 안에 유학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저렴한 수속비로 유학신청을 할 수 있다.

학비: 언어연수생 \$ 1500/년
등록비: \$ 30 **교재비:** \$ 50/학기
식비: \$ 6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4 / 1일, \$ 1400 / 350일
 (2인1실, 샤워실(온수), 화장실)
용돈: \$ 25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6,750(한화 약 5,400,000 원)

하얼빈공업대학 유학생 유치 서울 사무소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2-24
 영재 B/D 401호
 전화: 02)562-5839

요녕(遼寧)성

심양대학 (沈陽大學)

현재 언어연수생 약 40명, 보통진수생 3명, 본과생 10명이 재학중에 있다. 그중 한국인은 약 7명이 있고, 일본인은 25명, 미국인 5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과정은 입문반 2반, 초급반 1반, 중급반 1반, 고급반 1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10명이다. 심양시에 가까이 위치하며, 학교안에 한국인이 세운 외국어학원이 있어서 영어를 배우기에 매우 편리하다. 심양시는 한국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이며, 경제가 발달한 도시이기 때문에 생활하기에 매우 편리하다. 심양시는 일반적으로 표준어를 많이 쓰는 지역이다.

학비: 언어연수생 \$ 1500/년
등록비: \$ 80 **교재비:** \$ 50/학기
식비: \$ 6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4 / 1일, \$ 1400 / 350일
 (2인1실, 샤워실, 화장실, TV)
용돈: \$ 25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6,750(한화 약 5,400,000 원)

요녕대학 (遼寧大學)

현재 언어연수생 약 80명, 보통진수생 30명, 본과생 60명, 연구생 20명이 재학중에 있다. 그중 한국인은 약 100명이 있고, 일본인은 50명, 미국인 10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과정은 입문반 3반, 초급반 2반, 중급반 2반, 고급반 2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10명이다. 심양시에 위치하며, 한국인이 많은 대학 중의 하나이다.

학비: 언어연수생 \$1500/년, 본과생 \$1800/년
등록비: \$ 60 **교재비:** \$ 50/학기
식비: \$ 6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4 / 1일, \$ 1400 / 350일

(2인1실, 공용샤워실, 공용화장실, 냉장고)
용돈: \$ 25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6,730(한화 약 5,384,000 원)

길림(吉林)성

길림대학 (吉林大學)

길림성의 성도인 장춘(長春)시에 위치한 길림대학은 현재 언어연수생 약 56명, 보통진수생 38명, 본과생 52명, 연구생 16명이 재학중에 있다. 그중 한국인은 약 106명이 있고, 일본인은 29명, 프랑스인 2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 과정은 입문반 2반, 초급반 2반, 중급반 1반, 고급반 1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10명이다. 장춘시의 물가는 저렴한 편이며, 일반적으로 보통화를 구사하기 때문에 언어연수 환경으로는 적합하다.

학비: 언어연수생 \$1600/년, 본과생 \$1600/년
등록비: \$ 30 **교재비:** \$ 40/학기
식비: \$ 6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3 ~ \$ 4 / 1일, \$ 1400 / 350일
 (2인1실, 샤워실, 화장실, 전하기, TV)
용돈: \$ 25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6,790(한화 약 5,432,000 원)

동북사범대학 (東北師範大學)

현재 언어연수생 약 83명, 보통진수생 3명, 본과생 21명이 재학중에 있다. 그중 한국인은 약 51명이 있고, 일본인은 39명, 미국인 17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과정은 입문반 2반, 초급반 3반, 중급반 2반, 고급반 2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15명이다.

학비: 언어연수생 \$ 1600/년
등록비: \$ 30 **교재비:** \$ 40/학기
식비: \$ 6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3(일반적) ~ \$ 5, \$ 1050 / 350일

(2인1실, 공용샤워실, 공용화장실)
용돈: \$ 25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6,440(한화 약 5,152,000 원)

산둥(山東)성

대련외국어학원 (大連外國語學院)

언어연수생 약 320명, 보통진수생 3명, 본과생 25명이 재학중에 있다. 그중 한국인은 약 86명이 있고, 일본인은 128명, 미국인 8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과정은 입문반 5반, 초급반 4반, 중급반 4반, 고급반 2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20명이다. 대련은 한국과 가깝고 한국 기업이 많이 진출한 지역이다.

학비: 언어연수생 \$ 1550/년, 본과생 \$ 1750
등록비: \$ 50 **교재비:** \$ 40/학기
식비: \$ 6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3.5 / 1일, \$ 1225 / 350일(2인1실, 공용샤워실, 공용화장실, 냉장고, TV)
용돈: \$ 25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관리비: \$ 50 **활동비:** \$ 100
여행보험비: \$ 100
합계: \$ 6,835(한화 약 5,468,000 원)

산둥대학 (山東大學)

산둥성 제남(濟南)시에 위치한 산둥대학은 현재 언어연수생 약 121명, 보통진수생 3명, 본과생 39명이 재학중에 있다. 그중 한국인은 약 91명이 있고, 일본인은 55명, 미국인 2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과정은 입문반 3반, 초급반 2반, 중급반 1반, 고급반 2반이 있고, 한 반 평균 인원은 약 11명이다. 산둥성은 한국과는 이미 많이 친숙한 지역이며, 언어연수 환경으로 추천하고 싶다.

학비: 언어연수생 \$ 1500/년, 본과생 \$ 1500
등록비: \$ 20 **교재비:** \$ 40/학기

식비: \$ 6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2.5 ~ \$ 3.5(\$2.5가 일반적), \$ 875/350일(2인1실, 샤워실, 화장실, 전하기, TV)
용돈: \$ 25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6,155(한화 약 4,924,000 원)

산둥사범대학 (山東師範大學)

제남에 위치한 산둥사범대학은 현재 언어연수생 약 70명, 보통진수생 72명, 본과생 8명이 재학중에 있다. 그중 한국인은 약 35명이 있고, 일본인은 25명, 미국인 4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과정은 입문반 1반, 초급반 2반, 중급반 2반, 고급반 1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12명이다. 북경의 어언학과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어서 본 대학에서 6개월 공부하고 나머지 6개월은 북경어언학원에서 하는 코스도 있다.

학비: 언어연수생 \$1600/년, 본과생 \$1600
등록비: \$ 20 **교재비:** \$ 20/학기
식비: \$ 6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4(일반적) ~ \$ 6/일, \$ 1400 / 350일
 (2인1실, 샤워실, 화장실, 에어컨, TV)
용돈: \$ 25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6,760(한화 약 5,408,000 원)

절강(浙江)성

절강대학 (浙江大學)

현재 언어연수생 약 85명, 보통진수생 3명, 본과생 13명, 연구생이 15명이 재학중에 있다. 그중 한국인은 약 22명이 있고, 일본인은 26명, 미국인 21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과정은 입문반 2반, 초급반 4반, 중급반 2반, 고급반 1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9명이다. 절강대학은 공업대학으로는 중국 내에서 청화대학 다음으로 유명하다.

학교 캠퍼스가 무척 아름답다.

학비: 언어연수생 \$1800/년, 본과생 \$1800/년

등록비: \$ 20 **교재비:** \$ 20/학기

식비: \$ 6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3.5 ~ \$ 6 (\$ 3.5이 일반적),
\$ 1225 / 350일(2인1실, 공용사위실,
공용화장실)

용돈: \$ 30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7,385(한화 약 5,908,000 원)

항주대학 (杭州大學)

현재 언어연수생 약 130명, 보통진수생 28명, 연구생 2명이 재학중에 있다. 그중 한국인은 약 25명이 있고, 일본인은 50명, 미국인 4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과정은 입문반 2반, 초급반 2반, 중급반 2반, 고급반 1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16명이다.

학비: 언어연수생 \$2000/년, 본과생 \$2000/년

등록비: \$ 50 **교재비:** \$ 30/학기

식비: \$ 6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2.5(일반적) ~ \$ 7/일, \$ 875 / 350
일(2인1실, 공용사위실, 공용화장실)

용돈: \$ 30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7,275(한화 약 5,820,000 원)

강(江蘇)성

남경대학 (南京大學)

현재 언어연수생 약 151명, 보통진수생 21명, 본과생 18명, 연구생 42명이 재학중에 있다. 그중 한국인은 약 70명이 있고, 일본인은 83명, 미국인 13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과정은 입문반 3반, 초급반 5반, 중급반 4반, 고급반 1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15명이다. 남경은 지역적으로 깨끗한 환경을 자랑한다.

학비: 언어연수생 \$1800/년, 본과생 \$1800/년

등록비: \$ 30 **교재비:** \$ 40/학기

식비: \$ 6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4 ~ \$ 4.5(\$4이 일반적),
\$1400/ 350일 (2인1실, 공용사위
실, 공용화장실)

용돈: \$ 25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잡비: \$ 100

합계: \$ 7,090(한화 약 5,672,000 원)

남경사범대학 (南京師範大學)

현재 언어연수생 약 270명, 보통진수생 40명, 본과생 20명, 연구생 20명이 재학중에 있다. 그중 한국인은 약 85명이 있고, 일본인은 30명, 미국인 10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과정은 입문반 2반, 초급반 4반, 중급반 4반, 고급반 2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20명이다.

학비: 언어연수생 \$1800/년, 본과생 \$1800/년

등록비: \$ 20 **교재비:** \$ 20/학기

식비: \$ 6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5(일반적) ~ \$ 6/일,
\$ 1750 / 350일(2인1실, 공용사위실,
공용화장실)

용돈: \$ 25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잡비: \$ 40

합계: \$ 7,350(한화 약 5,880,000 원)

광둥(廣東)성

광둥외어외무대학 (廣東外語外務大學)

광주시에 위치한 광둥외어외무대학은 현재 언어연수생 약 87명, 보통진수생 27명, 본과생 1명, 연구생이 5명이 재학중에 있다. 그중 한국인은 약 21명이 있고, 일본인은 68명, 미국인 2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과정은 입문반 3반, 초급반 3반, 중급반 2반, 고급반 1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15명이다. 광주 공항과 가까이 있으며, 학교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무척 아름답다.

학비: 언어연수생 \$1600/년, 본과생 \$2000/년

등록비: \$ 40 **교재비:** \$ 20/학기
식비: \$ 6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3.5 ~ \$ 5(일반적),
\$ 1750 / 350일(2인1실, 사위실, 화
장실, 전화기, TV, 냉장고)

용돈: \$ 30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7,730(한화 약 6,184,000 원)

심천대학 (深圳大學)

광주시에 경제특구 심천(深圳)시에 위치하며, 지역과 학교가 모두 깨끗하다. 홍콩과는 지하철, 배 모두 연결되어 있어 무척 편리하다. 캠퍼스도 무척 아름답다. 현재 언어연수생 약 90명, 보통진수생 1명, 본과생 13명, 연구생 1명이 재학중에 있다. 그중 한국인은 약 30명이 있고, 일본인은 50명, 미국인 3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과정은 입문반 2반, 초급반 2반, 중급반 1반, 고급반 1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20명이다. 오후시간에 태극권과 서예, 중국 요리, 관광 등의 프로그램이 있다.

학비: 언어연수생 \$1800/년, 본과생 \$1800/년

등록비: \$ 30 **교재비:** \$ 12/학기

식비: \$ 6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4.5 ~ \$ 6.5(\$ 4.5가 일반적),
\$1,575 / 350일(2인1실, 사위실, 화
장실, TV, 냉장고, 에어컨)

용돈: \$ 30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7,737(한화 약 6,189,600 원)

허북(湖北)성

무한대학 (武漢大學)

현재 언어연수생 약 83명, 보통진수생 3명, 본과생 61명, 연구생 14명이 재학중에 있다. 그중 한국인은 약 30명이 있고, 일본인은 48명, 미국인 2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과정은 입문반 2반, 초급

반 2반, 중급반 2반, 고급반 1반이 있다.
학비: 언어연수생 \$1800/년, 본과생 \$1800/년
등록비: \$ 30 **교재비:** \$ 50/학기
식비: \$ 6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2.5(일반적) ~ \$ 6/1일,
 \$ 875/ 350일(2인1실, 공용샤워실, 공용화장실, TV, 에어컨)
용돈: \$ 25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6,475(한화 약 5,180,000 원)

섬서(陝西)성

서안외국어대학 (西安外國語大學)

현재 언어연수생 약 150명, 보통진수생 3명, 본과생 13명, 연구생 15명이 재학중에 있다. 그중 한국인은 약 15명이 있고 일본인은 100명, 미국인 10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과정은 입문반 2반, 초급반 3반, 중급반 3반, 고급반 1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15명이다. 학교 캠퍼스가 무척 아름답다.
학비: 언어연수생 \$1800/년, 본과생 \$1800/년
등록비: \$ 30 **교재비:** \$ 20/학기
식비: \$ 6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3/1일, \$ 1050/350일
 (2인1실, 샤워실, 화장실, 전화기)
용돈: \$ 25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6,620(한화 약 5,296,000 원)

섬서사범대학 (陝西師範大學)

현재 언어연수생 약 50명, 보통진수생 3명, 본과생 13명, 연구생이 15명이 재학중에 있다. 그중 한국인은 약 15명이 있고, 일본인은 26명, 미국인 9명이 있으며, 어학 연수 강의과정은 입문반 1반, 초급반 1반, 중급반 1반, 고급반 1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15명이다. 학교 캠퍼스가 무척 아름답다.
학비: 언어연수생 \$1480/년, 본과생 \$1800/년

등록비: \$ 100 **교재비:** \$ 20/학기
식비: \$ 6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3.5 ~ \$ 5.5(\$3.5 일반적),
 \$ 1225/ 350일(2인1실, 공용샤워실, 공용화장실)
용돈: \$ 25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6,545(한화 약 5,236,000 원)

사천(四川)성

사천연합대학 (四川聯合大學)

사천대학과 사천과기대학이 합쳐진 사천연합대학은 사천성 성도(成都)시에 위치하고 있다. 현재 언어연수생 약 120명, 보통진수생 18명, 본과생 19명, 연구생이 24명이 재학중에 있다. 그중 한국인은 약 20명이 있고, 일본인은 57명, 미국인 2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과정은 입문반 1반, 초급반 2반, 중급반 2반, 고급반 2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17명이다. 이곳은 최근 한국기업들이 대거 진출하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학비: 언어연수생 \$1500/년, 본과생 \$1500/년
등록비: \$ 30 **교재비:** \$ 20/학기
식비: \$ 6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6/1일, \$ 2100/ 350일(2인1실, 샤워실, 화장실, 전화기, TV, 냉장고, 에어컨)
용돈: \$ 25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7,370(한화 약 5,896,000 원)

사천외국어학원 (四川外國語學院)

현재 언어연수생 약 14명이 재학중에 있다. 한국인은 아직 아무도 없으며, 일본인은 5명, 미국인 2명이 있으며, 어학 연수 강의과정은 초급반 1반, 중급반 1반, 고급반 2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7명이다.

윈남(雲南)성

윈남민족학원 (雲南民族學院)

윈남(雲南)성 쿤밍(昆明)시에 위치한다. 중국의 대표적 관광지인 쿤밍시는 사계절이 모두 봄같이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이다. 윈남민족대학은 현재 언어연수생 약 31명, 보통진수생 31명, 본과생 1명, 연구생 1명이 재학중에 있다. 그중 한국인은 약 2명이 있고, 일본인은 15명, 미국인 5명이 있으며, 언어연수 강의과정은 입문반 2반, 초급반 6반, 중급반 3반, 고급반 1반이 있고, 한 반의 평균 인원은 약 4명이다.

학비: 언어연수생 \$1400/년, 본과생 \$1500/년
등록비: \$ 20 **교재비:** \$ 15/학기
식비: \$ 60/월(구내식당을 이용했을 경우)
기숙사비: \$ 3.5(일반적) ~ \$ 8, \$ 1225/350일
 (2인1실, 샤워실, 화장실, TV)
용돈: \$ 250/월(중국 국내 관광비 포함)
합계: \$ 6,380(한화 약 5,104,000 원)

정직과 신뢰의 큰샘해외유학원

서울시 종로구 관철동 11-3
 동흥빌딩 6층 담당자: 진수정

TEL: (02) 732-4637
 739-5048
 FAX: (02) 739-0521
 천리안ID: China21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아십니까?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선교현지에 무리없이 정착하기 위해
정말 값지고 귀한 6개월을 투자하십시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6개월-
급한 건 사실이지만
조급하게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열정은 이해하지만
무모함은 혼란을 불러올 뿐입니다.
먼길을 가려면 차근차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선교훈련원의
성실한 준비 프로그램
중국선교 적응훈련을 만나십시오.

교육목표

첫째, 중국에 대한 바른 이해로 현지 적응능력 배양
둘째, 생활중국어와 선교중국어를 자신있게 구사
셋째, 중국선교사역에 대한 비전의 구체화

교육기간

6개월(매년 3월·9월 개강, 주 5일)

교육내용

선교중국어 집중훈련, 중국문화 및 선교연구 세미나,
중국어 공동훈련, 현지 언어연수 및 답사

교육대상

중국선교 헌신자 및 관심자
훈련 후 선교지에 곧 나가려는 사람에게 우선권이 있음

참가인원 및 선발기준

본 훈련원의 선발기준에 의함

중국어문선교회 부설 중국선교훈련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우 137-069
TEL: 02) 535-4255, 594-8038
FAX: 02) 599-2786

중국선교훈련원은 선교언어 훈련과 중국문화 적응훈련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국선교훈련원은 초교파적·복음적 단체로 1989년 10월 30일에 창립된 중국어문선교회(대표:박성주 장로)의 부설기관입니다.

중국을 주께로

중국을 사랑하는 이들의 동반자

1996년 7·8월호(통권40호)

발행처/ 시님(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

대 표/ 박성주

발행·편집인/ 이동화

편 집 장/ 석은혜

편집기자/ 한영혜·차이나권수영

이민선·김현주·김은희

편집디자인/ 정광숙

광고·홍보/ 김정하이준석

중국을 주께로

등록일자/ 1994년 2월 14일

등록번호/ 바 - 2078

발행일자/ 1996년 6월 10일

인쇄처/ 신구인쇄

인쇄인/ 김기환

총판/ 크리스찬 매거진

전화: 637-4163

값/ 3,500원

중국어문선교회

본부, 출판부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전화: 02)533-5497, 02)592-0132

팩스: 02)599-2786

중국선교훈련원, 선교국

서울시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402호

전화: 02)594-8038, 02)535-4255

팩스: 02)599-2786

인천지부

인천시 남구 용현4동 89/1

성광교회 세계선교센터 309호

전화: 032)872-07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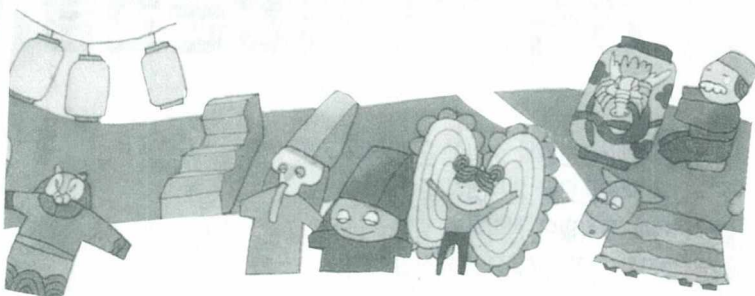
독자투고 및 정보제공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며 만드는 잡지입니다. 본지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독자들의 정성어린 의견과 정보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본지를 읽은 소감 및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현리안 ID / Sinim

Tel. 533-5497, 592-0132

Fax. 599-2786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기다리며

깨어 있는 크리스천 젊은이라면 젊은 시절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반드시 고민하는 시간을 거칠 것입니다. 가장 활기차고 정열적인 젊은이 시간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보내느냐는 나머지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밑받침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바쳐도 아깝지 않은 일을 찾는 사람, 자기가 소망한 귀한 것을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한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을 투자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세대 젊은이들이 가장 애타게 찾는 것이 아닐까요?

21세기를 준비하는 이 땅의 젊은이들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것에 투자하게끔 도전하는 '96 선교한국 대회가 온 8월 10일, 5회째 열리게 됩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의 세대에 우리의 손으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 대회에서 웅해도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 나라를 위해 증거의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도 21세기 세계의 주역이 될 중국을 향해 큰 꿈을 꾸고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더욱 많이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억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광활한 대륙으로 달려나갈 젊은이들의 환상을 봅니다.

이를 위해 이번호 특집은 "21세기 중국선교,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씁니다. 중국 유학·비전트립의 준비, 중국어권 신학훈련·국내 훈련단체 소개 등은 보다 철저하고 세밀하게 중국선교를 준비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미 헌신한 이들에게 어떤 준비를 거쳐야 할지 몰라 중도에 포기하거나, 무작정 현지에 가서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국인들의 '만만디(慢慢的)'는 바로 중국선교를 준비하는 우리가 반드시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21세기에 중국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성취할 청년·대학생들 그리고 동일한 비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번호 <중국을 주께로>가 충실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느니라" (시 110: 3)

<중국을 주께로>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사진, 그림은 중국어문선교회 출판부의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지에 실린 글의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중국어문선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중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반잡지입니다.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소개하며 특히 중국선교에 초점을 맞추어 중국의 교회소식, 선교상황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여 국내외 교회와 관심자들에게 중국을 알려주는 중국선교 전문정보지입니다.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1996. 4. 1-1998. 3. 31

서초우체국승인
제340호

받는 사람

중국을 주께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301호)

137-069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전화

〒

우편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1996. 4. 1-1998. 3. 31

서초우체국승인
제340호

받는 사람

중국을 주께로 편집부 앞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756-7

(신우빌딩 301호)

137-069

정기구독 신청요령

구독료 납부방법

정기구독료를 시중은행 99번 창구에 가셔서 지로용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지로번호: 7602362

귀하의 의견은 「중국어 주계로」의 발전에 더없이 소중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던(도움이 되는) 기사는 무엇이었습니까?

2. 「중국을 주제로」에 보완될 부분이나 수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3. 앞으로 「중국을 주제로」를 통해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기사나 주제가 있다면?

4. 그밖에 편집자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십시오.

1. 해당되는 곳에 V 표를 하십시오.

- ☐
- 신규구독
- ☐
- 재구독
- ☐
- 주소변경

*구독기간(신규 및 재구독): 19 년 월부터 19 년 월까지

- ☐ 1년 21,000(6권) ☐ 2년 42,000(12권) ☐ 3년 63,000(18권)

2. 신청인 이름 (남, 여)

생년월일

배달주소(우 -)

전화: (집) (직장) 팩스:

교회명 직부

기타 요망사항

3. 주소변경; 성명
- 전화

변경주소(우 -)

* 주소는 통반까지 정확히, 그리고 우편번호도 꼭 기입해 주십시오.

중국에 대해 아십니까? 중국선교의 동역자를 찾습니까? <중국을 주께로>가 있습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마음과 눈으로 읽히시기 원합니다.

희어진 밭,
중국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중국 교회의 외침이 당신의 귀에 들리고 있습니까?
중국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때
여러분은 그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복음을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수고하는 사역자들에게는 눈과 귀요,
중국인을 사랑하는 한국인,
교회를 깨우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에게는 선교의 불꽃이요,
선교사로 파송된 현지 사역자를 돕는 후원자들에게는 기도의 보고요,
국내 중문과 학생들과
중국에서 유학하는 크리스천 모두에게는 유익한 정보지입니다.

<중국을 주께로>는 여러분의 손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1년 구독료 21,000원을
정확한 주소와 함께 보내주십시오.

전화: 02)592-0132, 533-5497/팩스: 599-2786/주소: 서울 서초구 방배본동 756-7 신우빌딩 301호

<중국을 주께로> 담당자 앞

구독료 납부:국민은행 008-01-0454-178 박성주/ 시중은행 지로용지 7602362(회지구독이라 적어주십시오)



**극동방송
아세아방송**

아직도 선교사 파송과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북방지역에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은 전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기도와 헌금으로 동역할
전파선교사가 되어 주십시오.



**방 송 의
메 아 리**

**별목장에서
귀순한
북한주민**

"시베리아 별목장에서 남몰래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자유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한 끝에 목숨을 걸고 남조선으로 귀순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시골주부**

"주부인 저는 사는 것이 고달퍼서 자살하려고 했습니
다. 그런데 우연히 귀 방송을 듣고 예수님을 만게 됐지
요. 지금은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중국교회
지도자**

"지금 중국에 천소교회가 약 3만 군데 있는데, 그들은
극동방송과 아세아방송을 들으며 믿음 생활을 한답니
다. 어느 한 집에 라디오가 있으면 밤중에, 시간에 맞
춰, 그 집에 모여 설교를 듣습니다."



**북한지역
주민**

"하루는 새벽에 방송을 들으니가 합창(찬송)이 끝난
후에 어느 사람이 연설(설교)을 하는데 참 좋더군요.
그후 하루라도 그 방송을 듣지 않고 출장을 간다든지
하면 불안했습니다. 이제 저는 공산주의자도 민족주의
자도 아닙니다. 저는 이제부터 예수주의자입니다."

**전파선교사
신.청.방.법**

① 저희 방송사에 전화(또는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 전용 전화 번호 / (서울 02) 322-0·6·9·1
영 육 구 원
(서울 320-0283, 0290)

② 어느 은행이든 99번 창구에 가서서 지로 용지를 요청,
아래 번호를 적어 작성 금액을 송금해 주시면 됩니다.

전용 지로구좌번호

1 · 1 · 2 · 0 · 6 · 9 · 1
일 일 이 - 영 육 구 원



주님!

기도와 헌금으로 북방선교 사역에 동역할
전파선교사 100,000명을 주옵소서!